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1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Domesticity)에 관한 연구

- 울산시 H사 자동차 공단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

여 성 학 과

조 주 은

2002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Domesticity)에 관한 연구
- 울산시 H사 자동차 공단 집단 거주지를 중심으로 -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7월

이 화 여 자 대 학 교 대 학 원

여성학과 조 주 은

조 주 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 도 교 수 이 재 경 _____

심 사 위 원 조 순 경 _____

조 은 _____

이 재 경 _____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v
I.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6
1. 노동자 가족에 관한 기존 논의	6
2. 노동계급 여성(Working Class Women)의 가정중심성에 관한 논의	9
C. 연구방법	17
1. 연구방법	17
2. 연구대상	19
3. 연구과정	23
4. 개념적 자원	27
II. ‘가정중심성’ 출현의 사회경제적 맥락	29
A. 사례 여성들의 생애적 배경	29
1. 과거: 결혼 전 생애사	29
2. 현재: ‘정상가족’	36
3. 거주지역의 성격: 공업도시	38
B. H사의 성별화된(gendered) 기업전략	44
1. ‘가정주부성’과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45
1-1. 직원부인 특별교육	45
1-2. 공장건강학	48
1-3.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49
1-4. 문화회관 운영	52
2. 2교대제 근무형태	53
C. 상대적 고임금: 노동운동의 성격과 기업복지	55

III. 가정중심성의 형성과정: 가족관계	59
A. 생계부양자 남편을 중심에 둔 부부관계	59
1. 불안한 결혼 초기	61
2. 전업주부직(housewifery)에 대한 협상	64
3. 일상적 부부 갈등과 상쇄되는 지점: 늘 안쓰러운 남편	73
4. 경제위기 경험 후 강화되는 남편에 대한 내조	84
B. 결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어머니’ 정체성	90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의미화	90
1-1.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	91
1-2. ‘힘듦’의 내용과 맥락	94
2. 어머니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 느끼기	100
IV. 가정중심성의 강화과정: 남편의 노동자 정체성과 노동환경	105
A. 노동자 정체성을 둘러싼 자녀교육	105
1. 중간계층 의식/ ‘중산층’과의 구별짓기	106
2. 가족의 세대간 상향 이동노력	113
3. 좋은 아버지와 권위적 아버지의 경계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역할	117
B. 집단 거주지에서 교대제 근무로 인해 구성되는 일상생활	123
1. 노동자 부인들끼리 말걸기	124
1-1. 여성들끼리의 소통과 공유의 장	124
1-2. 동질화된 문화	130
2. 남편의 근무형태에 따른 갈등과 일상	135
2-1. 남편이 주간근무인 이웃에 마실 가기	136
2-2. 남편을 쉬게 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나오기	137
2-3. 남편을 위해 집에 머물기	139
V. 결론 및 종합논의	145
참고문헌	153
ABSTRACT	163

표차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2
<표 2> 보조사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표 3> 연구대상자의 성장 가족 배경	30
<표 4> 연구대상자의 결혼 전 취업경험	33
<표 5> 울산의 연령별 성비변화 추이	39
<표 6>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56
<표 7>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생활실태	108
<표 8> '98년도 지역별 출생성비 현황	118

그림차례

<그림 1> H사 자동차공간 집단거주지 지도	43
<그림 2> 가정중심성 형성 및 강화과정	143

논 문 개 요

본 연구는 그 동안 노동운동의 핵심세력으로서만 관심을 받았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가족 삶에서 기업의 성별화된 경영전략, 사회·문화적 조건, 노동시장의 특성 등과 관련하여 ‘가정중심성’이 어떻게 형성, 강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를 통해 산업 노동자군이 대규모로 생겨나게 되었다. 산업노동자의 성장을 주도해 온 것은 생산직 노동자층이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접 생산라인에 참여하여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음으로써 가난과 맞벌이로 상징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어 임금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에 본격적으로 편입됨에 따라, 노동자 내부의 이질성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가족은 일반화된 범주를 가지고 논할 수 없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가족인 울산지역 H 자동차 ‘노동자’ 가족은 더 이상 가난으로 상징되지 않는다. 그들은 현금의 형태로 받는 임금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복지를 통해 비 급여의 형태로 임금을 보충 받음으로써 가족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H사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시급’이라는 급여제도를 적용시키고 있다. 따라서 남성들은 임금보존을 위하여 정상 근무시간 이외의 각종 연장근로를 통하여 작업장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호황시기에만 넘쳐나는 많은 일들을 자원하여 수행함으로써 고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H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 2교대제를 통하여 남성들로 하여금 일체의 가사노동에서 면제받도록 하고, 여성들에게는 ‘가정주부성’과 ‘어

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문화를 통하여 성별화된 기업전략을 운용하고 있다. H사 노동자의 부인들이 결혼관계에 들어오기 전 가족, 직업 배경, 즉 생애사라는 구조 역시 적극적인 행위자agent로서 여성들이 결혼을 탈출구로 여기고 중간계급의 상징이었던 '전업주부'를 희망하면서 가정중심성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배경을 이룬다.

H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결혼생활은 중매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 울산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시작된다. 결혼초기에는 '남편에 대한 적응'과 함께 '낮선 타지'에서 '주/야간 근무'에 대한 3중의 적응을 겪으면서 외로움과 불안함을 경험한다. 부부관계의 갈등은 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서 기인한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있게되는 것은 부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반대하는 남편과의 협상과정을 거치게 되면서이다. 여성들은 결혼 전 삶의 맥락에서 '나가면 고생인 일'을 하는 것보다 가정주부직이 더 보상적이라고 판단하여 전업주부로 있게 된다. 여성들은 남편들이 밤에도 안 자고 감독자의 통제 하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있는 남편들의 노동환경을 안쓰러워 하며, 동시에 이런 안쓰러움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의해서 더욱 촉진되며 남편을 위해 식사준비 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성들이 갖는 남편에 대한 연민은 부부갈등을 소극적으로 해소하게 하며, 여성들은 경제위기 후 가중된 노동강도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내조를 더욱 강화한다. 여성들이 경험한 결혼초기의 불안함,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있어 문제, 집단거주지의 동질화된 문화와 관련하여 자녀출산으로 인한 어머니 정체성은 결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게 한다. 따라서 생계부양자에 대한 내조로 구성되는 부부관계와 강한 어머니 정체성에 입각한 자녀관계는 여성들이 가정적 요구에 계속 결부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가정중심성은 형성된다.

가정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은 남편의 노동자 정체성과 특수한 노동환경에 의해서이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중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계급 양극화 인식에 따라 중산층으로 의미화하지는 않는다. H기업 남성 노동자들의 의식은 대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생산직이라는 열등의식이 복합적으로 구

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자’ 가족의 자식에 대한 기대와 투자는 매우 구체적이고 열정적이다. 여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하여 남편 월급의 반 이상을 각종 저축과 보험에 쏟아 붓고 내핍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자식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는다. 남편의 자식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훈육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들은 자식교육에 있어서 권위자’라는 의식을 갖게되면서 자녀를 보살필 때 더욱 감정과 태도를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편들의 주/야간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어머니 역할수행은 남편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남편이 야간근무를 한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집단거주지에서의 여성들간 문화는 남편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간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완충지의 역할을 한다. 여성들은 공간적으로 ‘집’을 중심으로 한 활동반경을 갖고 시간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스케줄을 세심하게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남녀간의 역할분리는 점점 심화되어 가고 여성들은 가정영역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기 힘들게 됨으로써 가정중심성은 강화되어 간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경험을 통하여 가정중심성이 기업의 성별화된 문화, 작업장 문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 그 속의 성별분업을 포함한 가부장성을 드러냄으로써 가족연구의 계층별 세분화와 맥락화된 노동자 가족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한국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게 되면서 농촌의 공동체적 삶은 급속히 해체되고 그 대신 산업노동자군의 형성과 도시의 삶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조주현, 1993). 산업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성장을 주도해 온 것은 생산직 노동자층이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집단으로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과정에서 그 비중이 점점 커져왔으나 1980년대까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음으로써 맞벌이를 해도 생계자체가 어려운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강인순, 1991; 김애령, 1987; 이효재·지은희, 1988; 팽경인, 1988)는 ‘가난’으로 상징되는 노동자 가족의 생존전략과 경제적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경제가 세계 자본주의에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 내부의 균열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들어 생산직이건 사무직이건 전반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노동자들의 하강이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근로시간, 노동조건 등에서의 양극화 현상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김동춘, 1999: 28). 본 연구의

1)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점점 복잡해지는 고용형태의 변화와 불명확한 개념의 정립으로 인하여 제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2000년 4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는 690만 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별로 보면 99년 6월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는 36.2%인 반면, 여자는 67.3%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40~80%에 불과하며 이러한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0%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밖에 노동시간 등의 노동조건 등을 살펴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에 비하여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김소영(20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정책과제” 『제2회 한국법률가

연구대상 기업인 H사 자동차는 1980년대 이후 수출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력산업이라는 특성과 함께 1987년 민주노조를 만든 이후 매년 임금인상 투쟁을 거쳐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은 상대적 고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가족 삶은 기존 노동자 가족처럼 더 이상 ‘가난’으로 상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후 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인 범주를 사용하기 힘들며 사업장의 규모, 고용형태, 지역별, 성별로 맥락화되어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한국 가족연구의 대부분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즉, 연구대상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족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정치, 경제와 대학교, 각종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도시와의 편차가 큰 현실에서, 그 동안 연구대상에서 소외되었던 지방도시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뿌리내리고 있는 해당 지역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이 개별 가족생활 및 이웃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위주의 공업화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생겨난 대규모의 공업단지인 울산은 주거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 중에서도 노동자와 그들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대를 가져왔다. 인구 구성상 노동자 가족의 증가는 이 지역에서의 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요구한다(강인순, 1991).

울산은 도시인구 중 제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이상철, 1992: 91) 노동자 밀집도시이다. H자동차는 한국 최대의 사업장으로서 약 26,000명이 근무하며, H중공업은 그에 버금가는 20,000명 규모이다.²⁾ 울산의 300여 개의 제조업 사업체는 H그룹과 관련을 갖는 H계열사의 대기업과

대회 자료집』, 박승흡(2000),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노동운동의 과제”, 『전태일열사 30주기 추모사업회 자료집』)

2) 이 수치는 H사에 직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정규직의 숫자이다.

기타 중소 부품하청업체들이다. 울산시 동구는 H사 중공업 단지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구에는 석유화학단지가, 북구에는 H사 자동차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에 울산시 동구는 중공업 마을, 북구는 자동차 마을로 통하고 있다.³⁾ 특히 울산시 북구 유권자의 70%가 자동차 가족 유권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H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노동자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 지역 노동자 가족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울산지역 H사라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⁴⁾ 내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⁵⁾ 80년대 후반부터 98년까지 H사에서 노동자 가족운동이 활발했었던 것도 전업주부화 되어 가는 노동자 가족에서 생존전략이 변화⁶⁾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남성이 가족경제를 책임지는 생

-
- 3) 울산시 동구와 북구에 밀집된 노동자 가족들의 지지에 힘입어 현재(2002. 3.) 동구와 북구 구청장 모두와 시·구의원 일부는 울산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운동권 출신이다. 단, 동구 구청장은 1998년 울산·부산지역 시민, 노동단체 등 15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반제청년동맹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1999년 10월 28일에 치러진 동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구속된 전 동구청장 부인이 당선되어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있다(출처: 주간 울산인권소식 제 34호 2000년 7월 14일(금), 울산인권운동연대.). 따라서 동구와 북구는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의미로 지방자치제 각종 선거시 노동운동권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99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도 동구와 북구에 노동자출신 후보가 출마하였었다.
 - 4) 기존의 연구에서 노동자가족이라고 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가 (생산직)노동자 지위였기에 개념상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노동자’ 가족은 남편이 생산직 노동자이고 부인은 전업주부이기에 노동자가족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 가족의 계층적 위치를 남성의 직업에 의해 분류하고 있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그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남성편향적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박숙자, 1991). 서구에서도 기혼여성의 계급적 지위를 설명할 때 남성의 직업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있어왔다(Boulton M.G., 1993; McMahon M., 1995; Wearing, 1984). 따라서 기혼여성들이 가족과 독립하여 사회와 맺는 관계를 무시하고 남편의 직업과 계층적 지위로 가족을 단일화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노동자’ 가족이라 함은 남편만이 생산직 노동자 지위를 갖고 있는 가족이다.
 - 5) H기업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노동자 중에서 배우자가 취업하는 비율은 13%이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13.7%였다(H사 자동차 노조(2001), “H자동차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울산 리서치 연구소).
 - 6) 기존의 노동자가족에서의 생존전략은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결합하여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가족의 대표적인 생계부양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생존전략이 변화되는 것이다.

계부양자,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전업주부로 구성된 가족형태는 전형적인 대도시 화이트칼라 중산층 모델로 간주되어 왔었다. 그러나 울산지역 H사라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도 도시 화이트칼라 가족에서 볼 수 있었던 가족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는 존재는 성별분업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중심성의 전제가 된다.

가정중심성(domesticity)은 서구사회에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진행과 함께 일터와 가정이 분리되면서 생겨난 이데올로기이다. 산업사회로의 변화는 ‘남성은 사회, 여성은 가정’과 같은 성에 따른 적절한 위치(proper place)라는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신혜경, 1996). 즉 가정은 남성에게는 휴식처, 여성에게는 도덕성이 구현되는 장이며, 모성과 여성적 덕은 자녀양육의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Higonnet, 1993).⁷⁾ 이처럼 ‘여성이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가정중심성(domesticity) 이데올로기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중산층 가족의 이상이었으며 실제 여성들의 삶과는 괴리가 있었으나 전 계층의 여성들과 남성들에게 급속히 퍼져나가게 된다. 한국사회에서도 가정중심성에 대한 보급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는 1960년대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현모양처와 가정주부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1970년대이다. 한국사회에서 계층 상승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한 학력과 학벌주의는 급격한 계급분화로 인한 중산층 내 전업주부에게 가정 내 주요한 과업으로 이어졌다. 그것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아이의 학업성적과 대학진학, 이에 직결되어 있는 사회적 성공에 책임을 지는 어머니 역할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핵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은 ‘자녀를 중심에 둔⁸⁾ 모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제로 중간계급 여성들의 이상(ideal)이라고 알려진 가정중심성(domesticity)이

7) 조은·이정옥·조주현(1996), “IV. 가정과 일터의 분리: 여성의 임노동화와 ‘여성문제’의 등장”,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113-114에서 재인용.

8) 최근 한국사회에서 중산층의 핵가족이 서구처럼 부부중심이 되기 힘든 요인으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들고 있다(김자혜·김미숙, 1990; 김은희, 1993; 윤택림, 1996; Lee Jae Kyung, 2000).

한국사회에서 균열되고 있는 지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도시 중산층 여성에 대한 ‘가사 및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조은(1985)은 비교적 안정된 계층이라고 얘기되는 이 여성들은 가사와 일터 어느 곳에도 분명하게 귀속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중심성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가정중심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모성’에 대해 중산층 대졸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변혜정(1992)은 여성의 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어머니제도의 내면화는 완벽한 어머니 이상을 실현하는 가운데 여성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억압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완벽한 어머니 되기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모순과 갈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모성에 대한 중산층(을 포함하는)⁹⁾ 연구(노영주, 1998; 신경아, 1997; 이경아, 2000)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은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며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내 관계 속에서만 정의되는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갈등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삶은 평등한 삶을 향한 변화와 갈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 사회를 향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가부장제의 토대인 성별분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계속 진출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전술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기존 노동자 가족에서 보여지는 ‘맞벌이 가족’은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성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학계 내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로서 의미 있게 간주되었다. 따라서 전체 여성의 억압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게 될 가정중심성이 진보적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이라고 알려진 울산시 H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지역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보여지는 전업 주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 여성들은 결혼 전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어떻게 전업주부로 있게 되었는가? 자동차 단지라고 명명되는 집단거주

9) 이경아(2000)는 중산층 여성을, 신경아(1997)와 노영주(2000)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부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지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의 부인들은 어떻게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을까? 이것과 가정중심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따라서 본 연구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들이 행위자(agent)로서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는 가정중심성(domesticity)이 결국엔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전체여성에 대한 억압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성별분업을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가정중심성이 형성, 강화되는 기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B.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

1. 노동자 가족에 관한 기존 논의

국내 노동자 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에 집중되어 있다. 이점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노동자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력으로 부각되면서 노동자와 노동자가족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겠다. 당시 저임금구조에 입각한 노동자가족에 대한 연구는 노동자가족에 대한 일반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기존 노동자가족에 대한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강인순, 1991; 김애령, 1987; 이효재·지은희, 1988; 팽경인, 1988). 첫째, 노동자들이 사회 내에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를 극소화하고 있고, 둘째, 저임금구조에 대응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가족성원들이 어떤 형태든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가족성원 중 부인들의 취업이 생계유지 및 생계보조에 대한 소득 극대화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강인순, 1991). 즉, 이들의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구조 안에서 가족이 수행하는 노동력 재생산, 수입과 소비형태라는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노동자 가족의 재생산, 생존전략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그 내부의 가부장성, 성별분업¹⁰⁾을 다룬 연구(김미하, 1990)는

맞벌이 노동자 가족에서 여전히 드러나는 자녀 양육에서의 성별분업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취업은 개별남성으로 하여금 양육참여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성별분업 해소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양육의 성별분업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라는 노동시장의 특성과 성 차별적 노동구조, 내부 노동 시장의 성격과 공사분리 원칙 등을 지적하여 가족 내 성별분업의 문제는 가족 내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성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 가족운동에 대한 연구(명진숙, 1994)에서는 노동자 가족의 생존전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으로 구조화된 노동자 가족에서의 기존의 생존전략은 되도록 많은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남성가장의 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가족이 생겨나면서 한 가족의 대표적인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노동자가족의 생존전략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자 가족운동이 출발할 수 있었던 점은 ‘전업주부’인 노동자 부인들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 가족에서 생존전략의 변화, 즉 ‘맞벌이에서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에 대한 지원’은 어떤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일어난 것일까? 이것은 기존의 노동자 가족을 설명하는 기본 범주가 바뀌어지는 중요한 지점이다. 명진숙(1994)은 이에 대해 ‘가족을 단위로 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편입은 성별분업의 논리에 따라 여성들에게는 가사 노동자, 노동력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면서 노동자 가족으로서의 이해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든다’고 하여 전체 노동시장의 성격, 노동자 남편 직장의 성격 등과 관련한 분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이효재·지은희(1988)도 맞벌이를 하는 노동자 가족 내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가구원의 구성이 어떠하든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다는 차별적인 가내성별분업의 강고함을 지적한바 있다. 그 요인들로는 직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 전통적인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 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들은 노동자 가족에 관한 ‘생존전략’에 집중해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된 지형에서 노동자의 부인들이 전업주부로 있어도 남편의 임금에 온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생과사를 다투는 가족’인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의 내용과 질에 대한 연구(이혜경, 1986; 김혜경, 1987; 정승혜, 1988; 김효숙, 1988; 김은정, 1992)는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동자 가족은 항상 밥 먹고살기도 빠듯한 가족으로서 ‘생존전략’을 구사하며 살아야 하는 가족으로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풍부한 내용을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적 생활실태에 초점을 맞춘 기존 노동자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벗어나 근로자계층 부부의 가족관계 중 결혼적응 과정을 질적 방법을 통해 연구한 것으로는 이숙현(198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에 거주하는 32쌍의 근로자계층 부부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들은 부모로의 역할전환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자녀 출생 후 결혼만족도가 향상되었고 시부모와의 관계는 자녀의 출산 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녀의 연구는 기존 가족연구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질적방법을 사용했다는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근로자계층’에 적합한 변수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시부모와의 동거와 어려운 경제사정을 출산 전 결혼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는데,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부부 외출의 제한이 부부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가설은 중산층적인 가치로 ‘근로자계층’ 부부를 재단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시부모와의 동거가 부부끼리의 외출을 방해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있어 주요한 변수로 설정한 시부모와의 관계, 특히 시부모와의 동거가 다른 계층에서는 볼 수 없는 근로자계층의 특수성인지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할 것이다.

당시 가족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설문지조사를 중심으로 한 양적 연구방법

의 한계를 인식하고 가족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연구로 L. Rubin(1976)의 『Worlds of Pain』을 들 수 있다.¹¹⁾ 그녀는 미국 백인 노동자계급의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결혼하는 이유 그리고 구애와 결혼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부부 각각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계급적, 가족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의 연구라 현재 미국 노동자계급 가족생활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고통의 세계로 의미화되는 노동자 가족생활의 풍부한 면을 거시적 사회구조, 문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노동계급 여성(Working Class Women)¹²⁾의 가정중심성에 관한 논의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노동계급 여성들이 자신을 일차적으로 노동자로서 정의하기보다는 외모 꾸미기 등과 연결된 결혼에 관한 관심으로 가정에 귀속시키고 있다는 연구(이건정, 1990; 조은, 1989; 홍승아, 1987; Kim, 1997)가 있다. 서구에서는 가사 및 모성에 관한 태도를 둘러싼 가정중심성이 중간계급 여성보다 노동자 가족 내 기혼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발견된다는 연구물(Boulton, 1983; Komarovsky, 1962; Oakley, 1974; Rainwater, L., Coleman, R., and Handel, G, 1959; Rosser & Harris, 1965; Wearing, 1984)이 축적되어 왔다.

이건정(1990: 80-82)은 다국적기업 전자회사 생산직 미혼 여성노동자들을

11) 김홍주(1993), “한국 가족 문제의 특징”,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 지성사). p.174

12) 노동계급 여성(Working Class Women)의 가정중심성을 언급하는 서구 논의에서 노동계급여성은 그 여성이 전업주부로 있거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생산직 노동자 남편의 부인을 가리키고 있다. Boulton(1983)은 기혼여성의 계급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남편의 직업을 사용하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에 귀 기울이면서도 남편의 직업에 의해 여성들을 범주화하는 것이 중간계급 여성들의 현실적인 사회경험과 남편의 행위를 비교하는데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노동자들에게 여성다움을 강조하는 노동통제방식에 주목하였다. 기업은 Miss A를 선출하거나 최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방식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정체감보다는 기업에 대한 자부심, 좋은 배우자·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본다. 기업의 여성다움을 강요한 통제는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직장은 결혼하기 전까지 스쳐 지나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하고 임금의 대부분은 치장하는데 들어가게 한다. 사측에서 미혼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장하는 여성다움은 남녀간의 분리된 역할, 즉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현모양처 이미지 등의 가정중심적 태도·가치관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이견정이 여성노동자들의 태도를 기업의 이데올로기적 통제전략과의 관계에서 논의한다면 Kim(1997)은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가정중심적 실천을 계층상승 욕구와 연결시킨다.

Kim은 1980년대 마산수출자유지역(MAFEZ)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세계에 대한 경험연구에서 여성들이 연애와 결혼을 통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비슷한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게 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재생산된다는 것을 종적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Kim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의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은 사회적 계층상승을 위한 전략으로서 결혼을 위치 지으며 결혼 준비금 마련을 목표로 한 저축과 화장품 구입 등의 소비문화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또한 그녀들은 수출자유지역에서의 노동을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I Will Never Come Back to a Sewing Machine”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결혼을 통하여 중간계급과 동일시되는 전업주부, 전일제 어머니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홍승아(1987)는 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이중노동’ 수행에서 나타나는 가정중심성을 지적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서 겪는 힘겨운 이중노동은 노동여성들의 가족지향성(familial orientation)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다. 그녀들은 항상 자신의 가족에 대한 책임(모성의 역할,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의미(identity)를 주부로 우선시하여 의식, 행동한다는 것이다. 홍승아는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을

가정적 존재로 규정하고 이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는 이유를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에서 찾고 있다.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편은 생계부양자/부인은 집에 남는 가사노동 담당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가족 형태를 이상형으로 두고 이를 추구하려는 성향을 지닌다고 논의하고 있다.

조은(1989)은 홍승아가 논의한 이중노동의 성격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재고하며 노동자계급의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본다. 조은은 산업부문에서 노동하는 기혼여성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탁아소에 대한 필요도 증대하고 있으나 가부장적 국가는 사회적 재생산의 부담을 개별가족에게 맡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오후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노동계급 가족의 여성들은 자녀 양육, 가사, 취업 등 삼중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화 중의 하나¹³⁾가 ‘가정중심성’이라고 본다. 조은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혼여성들이 가족을 위한 아침, 점심, 저녁 준비를 위해 야간근로를 선호하는 홍승아 연구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가 재생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기혼여성들이 담당하는 이중노동의 실태를 ‘가정중심성’ 신화와 연관지어 논하였다.

노동계급 여성의 가정중심성에 관한 국내논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 속에서 미혼의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가정주부를 꿈꾸게 하고 계층상승과 도피처로 의미되는 결혼제도 속에서 기혼 여성들에게는 이중노동을 유지하게 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분석되고 있다. 이견정은 미혼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기혼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하였던 Kim, 홍승아, 조은의 연구는 여성들이 있어야 할 1차 적인 공간은 가정이라고 의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업주부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하며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전 계층에 확산되어 있는 가정

13) 나머지 신화 한가지는 가족임금이라고 지적한다. 어떤 노동자계급 가족도 최소 2명, 대체로 부부 2명이 벌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며 남성가장이 은퇴하게 되면 생계의 부담을 딸들이 나누어지게 된다고 본다(조은, 1989: 246-247).

중심성은 미혼 여성노동자, 노동자 가족에서도 엿볼 수 있으나 여전히 이상(ideal)으로서만 존재하며 노동자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을 실현시키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연구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의 이론은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들이 전업주부로서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가정중심성을 논하고 있다.

Rosser와 Harris(1965)는 Swansea라는 해안도시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사회변화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계급 주부의 가정중심성을 지적한다. Rosser와 Harris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소가족화 되면서 확대가족이 해체된다는 일반적 가정과는 달리 확대가족은 사회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해간다고 본다. 더 넓은 친족집단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의해 해체되기보다는 변형돼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확대가족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가정중심성’이라는 변수를 가져온다. South Wales시의 혼인관계에 대한 보고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계급 여성들보다 노동 계급 주부의 ‘가정중심성’은 더 높다는 주장을 한다. 여성들이 가정 중심적일수록 여성들이 가사 일에 더 결부되고 남편과 여성간의 성역할 분화가 더욱 뚜렷해지며 친족간의 연계망에서 친척들과의 더 빈번한 접촉에 관계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여성의 가정중심성의 정도가 결정적인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부인들이 왜 더욱 가정중심적인지,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육체노동자 가족생활에 대해 연구한 Komarovsky(1962)는 노동계급 여성들은 가정에서의 성별분업에 대해 거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남편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가정주부직housewifery’을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뿐 아니라 만족의 근원으로 여기지만, 고학력 여성일수록 가사노동에 대해 덜 호의적이며 가정주부는 좌절의 근원이 된다고 한다.¹⁴⁾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고학력이라는 변수를 사용

14) 실제 가정주부직 수행에 있어 고학력 여성들의 좌절감을 상쇄해주는 부분은 남편들의 정서적 지지이다. 그러나 교육받지 못한 노동계급 여성들의 남편들은 육아, 가사노동을

함으로써 ‘교육’이 계층 간 가정중심성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암시하고 있다.

Rainwater와 그의 동료들(1959)¹⁵⁾은 더 이상 가난으로 상징되지 않으며 소비자로서의 구매능력을 갖춘 노동자 가족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가족 내 소비를 주관하는 노동자들 부인에 관한 가족 삶에 관한 연구를 통해 노동계급 부인은 중간계급 부인들과는 달리 애정과 즐거움의 근원을 자녀에게 두며 자녀가 주는 즐거움에 관심이 많다고 지적한다. 노동계급 부인들은 항상 자녀를 원하며 자녀를 갖는 것은 그녀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성취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성은 자연의 법칙Natures’ Law: Motherhood’이라고까지 묘사한다. 그러나 왜 노동계급 부인들이 중간계급 여성보다 더 강렬하게 가족 안에서 자녀, 남편과 관련된 활동에 특별한 그녀의 에너지와 감정을 쏟고 일상활동을 관리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Oakley(1974)는 런던에 살고있는 주부의 노동실태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를 기술하고 사회계층, 교육, 결혼생활에서의 노동분담, 작업환경, 사회적 관계 등의 변수들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의 원인을 구별하며 더 나아가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와 가사노동실태에 있어서 주부들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Oakley는 사회계급과 가정중심성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지나친 단순화, 그것을 가져오는 연구방법에 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노동계급 여성들이 가사노동에 대해 만족한다고 진술한 것은 그들에게 전형적인 언어사용방식이 있으며 그러한 규범을 고수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본다. 노동계급 여성과 중간계급 여성 모두는 가사노동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정도는 비슷하다. 그러나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주부역할에 대한

전적으로 부인에게 떠맡기며 바깥의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Komarovsky, 1962: 59-60).

15) Rainwater와 그의 동료들이 노동자의 아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윤추구를 전제로 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경제대공황을 겪고 난 후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노동계급은 고소득층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전제 하에 노동자 가족을 구매력을 갖춘 소비집단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엄격한 성별분업 하에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노동자 아내의 가족생활 연구를 기업의 영업전략 구축과 연결시키고 있다.

견해에 있어서 노동계급 여성은 중간계급 여성보다 좀더 긍정적이며 개인적으로 가정중심성과 동일시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다고 본다.

Boulton(1983)은 영국의 전업주부인 중간계급과 노동계급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Komarovsky가 막연하게 지적인 ‘교육’이란 변수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저학력에 기반하여 단순 사무직과 생산직에 근무하였던 노동계급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삶에 만족하지만 고학력에 기반하여 진취적인 전문 관리직에 근무하였던 중간계급 여성들은 개인성이 상실된다는 정체성의 갈등과 좌절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계층 여성들의 모성경험의 차이를 연구하며 결국 문제의 본질을 사회적 맥락¹⁶⁾에 위치시키면서 행위성(agency)을 부각시키는 Boulton의 논의는 본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Wearing(1984)은 호주 시드니 교외에 거주하는 노동계급, 중간계급, 페미니스트 어머니들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세 부류 여성간 공통점과 함께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에 있어 자존감과 만족의 근원은 ‘부인과 어머니 역할’이며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노동계급 여성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그녀도 여성들의 행위성(agency)를 중심에 놓고 계층 간 차이를 설명하면서 결혼 전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과 물질 자원의 차이에서 더 나아가 ‘교외’라는 지역의 특성도 연결시킨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교외에 사는 노동계급 어머니들에게 집을 벗어난 여행이나 활동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녀의 일상활동과 관심은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가정중심

16) Boulton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에 참여하고 사회의 중심적인 활동들과 함께 많은 역할들에 재통합되는 조치들(Gavron, 1966) 중 다섯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소녀들로 하여금 가족과 피고용인의 역할모두를 준비하도록 하는 교육에 있어서의 변화 둘째, 아버지들로 하여금 평등원칙에 입각해 가사노동과 부모역할을 공유하도록 하는 인식 셋째, 자녀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공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물 안의 놀이시설 확보 넷째, 아이의 건강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살핌caring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확보 다섯째, 일자리 나누기, 더 많은 시간제 노동을 고무하는 일터의 재구조화이다. Boulton은 이러한 조치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에 기반하지 않은 개별적 정체성을 지속시켜 그녀자신만의 관심과 활동들을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본다(Boulton, 1983: 214).

성을 설명하며 결혼 전 가족경험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 물적자원의 차이, 교외라는 지역적 특성을 연결시킨 Wearing(1984)의 연구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서구의 논의를 곧바로 한국사회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서구의 논의에서는 노동계급 여성들의 가정중심성을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결정적인 변수를 ‘교육과 결혼 전 직업경험’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노동시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은 대졸여성에게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국사회 대졸여성은 서구의 중간계급 여성들처럼 숙련, 책임감과 특권을 수반하는 직업을 갖기 힘들며 노동경험 역시 그녀들처럼 진취적(challenging)이고 보상적(rewarding)이지도 않다. 한국사회 대졸여성들이 경험하는 소외된 노동세계는 노동의욕을 저하시켜 오히려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게 한다(조정아, 1993).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드러나는 대공장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결혼 전 몸담았던 직업경험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과 함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Williams(2000)는 특별히 노동계급 여성의 가정중심성에 관해 분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는 페미니스트들의 40년에 걸친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선택’이란 포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가정중심성이 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는 가정중심성은 노동시장과 가족 간에 긴밀하게 연결된 성별성 체계(gender system)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노동자(ideal worker)는 경쟁사회 속에서 연장근로를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양육과 가사노동에 대해 책임이 면제된 남성 노동자이며 여성들은 어머니로서 섬세하고 따뜻한 애정의 소유자로 고착되는 것이 가정중심성이 유지되는 기제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보살핌 노동을 남녀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고 여성도 노동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가족의 재 구조화에 관한 관심 속에서 가정중심성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부계가족 전통이 강한 영남지역 H사 자동차 공단 주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부인의 경험, 현지조사, 문헌연구를 통하여 가정중심성을 만들어내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등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중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H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생애사와 거주지의 특성, H기업의 경영전략 등을 검토한다.

둘째, 본 연구대상 가족에서 가족관계(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통하여 가정중심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H사 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제위기는 아내로서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하며 그것은 또한 가정중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셋째, 남편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는 사실은 전업주부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자원동원을 가능하게 하는가? 이러한 의미와 자원들 속에서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며, 그러한 여성들의 행위가 가정중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거주지에서 남편의 노동환경과 관련돼 만들어지는 문화는 여성들에게 어떤 자원이 되며 그 자원을 활용한 여성들의 행위는 가정중심성의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C.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질적 방법을 사용했다. 질적 방법으로는 생애사를 포함한 면접(interview)과 참여관찰이다.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목적과 연관되어져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로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의 가족생활 경험이다. 기혼 여성들은 가족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순된 의식을 느끼고 다양한 정체성간 갈등과 조정을 거듭하며 가족생활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마스크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 결혼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주는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면서도 결혼을 한다. 또한 태어난 아이를 보며 신기함을 동반한 애정과 귀찮음 등을 동시에 느끼며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만족이나 아니냐의 한마디로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표준화된 양식의 설문지로 결과만을 분석하는 양적 방법은 가족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의 여성들의 내면과 가족 내적 동학을 드러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

질적 방법을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가족생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져 왔다는 사실에 기초한다(이숙현, 1988).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았으며 중립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설문지법 등의 양적방법은 연구자의 관심과 가치관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되어왔다. 더구나 기존의 가족생활 연구의 대부분이 중산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중간층의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어(이재경, 1993) 기존 연구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들의 경험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족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가난’으로 상징되는 노동자가족에 대한 경제적 생활실태조사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양적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면 변화하는

‘노동자’ 가족의 생생한 면을 놓치고 기존연구의 결과를 반복하여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를 희생자화하기 쉽다.

연구방법으로 생애사(life history)를 포함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개인의 모습은 과거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고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현재 자신의 결혼생활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은 항상 특정사회, 역사적 연속선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삶에 대한 물음만으로 가족 내 여성의 경험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홍은정, 1995). 생애사는 특히 문화와 지역이 다른 여성경험에 대한 비교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Geiger, 1986). 따라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중산층 전업주부와 가족생활 비교를 위해서는 현재 가족생활에 대한 물음 뿐 아니라 과거 어떠한 가족적 배경과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의미 부여하고 있는지,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 가족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생애사가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참여관찰법을 택하였다.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의 핵심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서울과 지방간의 지역적 편차가 큰 현실 속에서 기존 연구의 주제가 되지 못했던 지방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참여관찰법을 더욱 요구한다. 모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행태를 조직하고,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뜻 있게 하는 복잡한 의미체계(meaning systems)를 늘 사용하고 있다(Spradley, 1988). 울산에 잠시 거주하였으며 연구자의 남편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남편과 같은 일을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업을 위해 서울에 머물며 전업주부가 아닌 연구자는 그 지역사회 여성들에게 ‘이방인’으로 의미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의 인터뷰만으로는 그 여성들의 응답내용에 담겨진 의미와 맥락, 의미체계를 이해하여 역동적인 가족생활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인터뷰하는 기간을 여유 있게 정하고 여성들과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식사를 함께 하며 부대끼는 생활을 하는 참여관찰법을 택하였다. 그 여성들과

격의 없는 왕래를 통해 부부관계와 자녀관계, 가사노동의 수행방식, 일상적 삶의 반경, 가정경제 운영 방식, 이웃 간의 네트워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참여관찰은 본 연구에 꼭 필요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되었다. 참여관찰법은 2002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H사에서 사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I’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때도 활용되었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공단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이 H사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첫 아이가 취학 전인 전업주부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 연구대상자를 첫 아이가 취학 전인 전업주부로 제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육노동이 많은 시기이다. 연구자는 실제 첫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만 되어도 ‘아이 때문에 외출하기 어렵다’는 등의 영향이 전업주부의 생활반경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첫 아이가 취학전인 전업주부들은 육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크게 느낄 것이고 결혼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갈등과 만족을 복잡하게 느껴 초기양육시기와 신혼 초 가족 생활을 기억해낼 수 있는 여성들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노동운동의 메카’라는 울산에서 실제 노동운동을 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전체로 봤을 때 소수이며 노동운동 하는 가족의 가족생활은 노동자가족 생활로 일반화하기엔 어려운 특수성을¹⁷⁾ 띠고 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남편이

17) 노동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가 부인과 결혼한 노동운동을 제외하고는 남편이 노동운동 하는 가족은 부부간 심각한 갈등의 불씨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는 경우, 잦은 회의와 사적인 만남, 그들의 가부장적 의식으로 가정 안에서 아이들과 부인에게 소홀하다는 점과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는데서 오는 경제적인 손실은 노동운동가 부인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 더구나 집단거주지에서 다른 가족과의 비교는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 연구자는 울산에 머물면서 노동운동 하는 남편의 부인 중에 우울증을 가진 여성을 자주 보아 왔다. 따라서 남편이 노동운동을 하는 여성의 경험은 특수성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노동운동을 하는 연구대상자는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단, 사례 7은 본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 할 의사를 보였으며 활동가 남편의 특수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연구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여성들은 거의 없으며 연구자가 울산에 거주할 때 이웃에 살던 여성들과 그 여성들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 남편의 직장동료 부인과 그 여성들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총 26명으로 주 연구대상자는 18명, 보조사례는 8명이다.

연구대상자들과 면접을 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면접시간확보와 공감대형성의 어려움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남편은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노동을 한다. H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남편이 이번 주는 주/야간 중 어떤 형태의 근무를 하는지를 꼭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이것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야간노동을 마치고 낮에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그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큰 결례에 해당된다. 따라서 면접은 남편이 주간노동을 하여 낮 시간에 남편이 없는 오전에 할 수 있었다. 인터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연구대상자라도 그 주에 남편이 야간노동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일을 기다려야만 했다. 연구자는 여러 가지 집안 사정으로 평일에 인터뷰가 힘들 경우, 주말에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을 잠시 남편에게 맡기고 가까운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한번도 시도해보지 못했고 연구자의 가까운 친구(사례 18번)에게 한번 이야기를 꺼냈다가 정중하게 거절당했다. 따라서 인터뷰는 남편이 주간노동을 하는 낮 시간, 첫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으로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연구자의 남편이 자신의 남편처럼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론 동질감을 느끼지만 연구자가 서울 말씨를 쓰는 대학원생이라는 점에서 거리감을 느끼는 듯 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모성경험과 현격하게 차이나는 그녀들의 모성경험도 공감대형성을 어렵게 한 요인 중의 하나였다. 본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차를 마시면서 여성들은 연구자의 전공이라든가 남편과 떨어져 시집에서 아이 키우며 공부하는 고충에 대해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남편과 떨어져 있으면 남편이 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더불어 “부부는 절대 떨어져서 지내면 안 된다, 공부도 좋지만 힘든 일 하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빨리 내려와라”, “남편이 부인이 서울 가는 것을 이해해주는 것을 보면 남편 참 대단한 사람이다”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처럼 면접시간을 조정하고 여성들이 연구자에게 했던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의 가족생활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받는 다는 점과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남편에 대한 내조(특히, 식사준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었으며 고향은 거의 영남권이였다. 울산이 고향인 여성은 4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왔다. 학력은 전문대를 졸업한 2명을 빼고는 고졸이다. 자녀수는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2명이였다. 결혼 지속 년수는 5년에서 12년 사이에 걸쳐 있다. 가족은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¹⁸⁾를 띠고 있었으나 친정과 시집 모두 울산을 둘러싼 영남권에 자리잡고 있어 빈번한 왕래를 통한 끈끈한 연계망을 유지하고 있다.¹⁹⁾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과 같다.

18) 기존의 가족연구(문옥표, 1997; 이숙현, 1988; Komarovsky, 1962)에서는 노동자 가족의 경우 부모로부터 주거지를 독립할 물질 기반의 한계 등을 이유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확대가족형이라고 전제되었다. 그러나 울산의 ‘노동자’ 가족은 가족유형에서 핵가족이 보편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노동자 가족과는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 형태상 핵가족형 가구가 많이 발견되지만 떨어져 사는 가족 구성원과 지속적인 물질적·정신적 고리를 맺고 있다면 그 사회는 직계 가족의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장현섭, 1993). 따라서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부모(친정, 시집) 집에 가서 농사일을 돕고 농산물을 얻어먹으며 제사 등의 의례 등을 통해 친족과 물질적·정신적으로 강한 고리를 맺고 있는 울산의 ‘노동자’ 가족은 엄밀한 의미에서 핵가족화 되었다고 하기 힘들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연 령	학 력	고 향	결혼 년수	자녀연령 (성별)	기 타
1	32(36)	상고 (고졸)	대구 (안동)	9년	7(남) 6(여)	남편은 소위원 활동
2	37(38)	상고 (대학중퇴)	부산 (부산)	8년	8(남) 3(남)	
3	34(38)	상고 (고졸)	부산 (울산)	8년	7(여) 5(여)	
4	32(37)	전문대(고졸)	대구 (문경)	8년	7(여) 4(여)	셋째 여아 낙태 경험, 셋째 (남아) 임신 예정
5	29(31)	상고 (고졸)	울산 (울산)	5년	5(여) 3(남)	
6	32(35)	상고 (고졸)	울산 (울산)	6년	6(여) 3(여)	
7	33(35)	상고 (고졸)	부산 (부산)	7년	6(여) 4(남)	남편은 98년 무급휴직, 남편은 노동운동가.
8	36(38)	상고 (고졸)	울산 (울산)	6년	7(남) 3(남)	
9	32(37)	전문대 (고졸)	경주 (경주)	7년	8(남) 5(여)	
10	29(35)	상고 (고졸)	울산 (충남 광천)	7년	7(여) 3(여) 셋째 임신 중	7개월 동거 후 결혼
11	33(33)	상고 (고졸)	충남 단양 (포항)	6년	5(여) 2(여)	남편은 98년 무급휴직. 소위 원 활동. 둘째 임신 중 여아 임을 알고 낙태하려다 남편 의 만류로 실패.
12	33(37)	상고 (고졸)	대구 (고령)	8년	8(남) 6(남)	
13	30(35)	야간고 (고졸)	전남 나라도 (부산)	7년	7(여) 4(남)	동거 후 첫 자녀 낳고 결혼
14	34(35)	상고 (고졸)	강원도 원통 (안동)	8년	8(여) 6(남) 4(남)	
15	31(39)	상고 (고졸)	부산 (합천)	5년	5(남) 4(남)	
16	37(41)	야간고 (고졸)	안동 (성주)	12년	4(여) 1(여)	두 자녀 모두 시험관 시술로 임신
17	29(34)	인문고 (고졸)	남해 (경주)	5년	5(남) 2(남)	
18	36(37)	상고 (고졸)	청송 (울산)	8년	8(남) 6(남) 셋째 임신 중	

* ()는 배우자의 특성임.

* 사례 12는 녹음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껴 녹음하지 못하고 받아 적었으며 그녀의 진술은 사례로 인용되지 않았다.

* 대의원은 선출직으로 100명당 1명 정도인데 비해, 비선출직인 소위원은 한반(30명 내외)에서 1~2명 정도이며 이들은 노동조합활동을 뒷받침하는 기초조직이다.

<표 2> 보조사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 례	연 령	학 력	고 향	결혼 년수	자녀연령 (성별)	기타
1	42(43)	대졸 (대졸)	(부산)	16년	16(여) 15(남)	남편이 H사 간부
2	30(32)	상고졸(고졸)	대구 (울산)	7년	6(여) 1(남)	남편이 H사 하청에 근무. 결혼 전 1 년 동거
3	33	상고졸	남해	미혼		98년 무급휴직
4	35	인문고졸 (인문고졸)	부산	미혼		98년 무급휴직
5	32	인문고졸	충북 진천 (경기도 과천)	3년	1(남)	남편이 98년 정리해고 됐다가 복직
6	-*	대졸	-*			H사 교육담당 부서원
7	32	고졸 (고졸)		7년	6(여), 둘째 임신 중	‘행복한 가정 만들기 I’ 참가자
8	36	대학 중퇴	충청도	10년	9(여)	울산 여성단체 활동가

* 보조 사례 3, 4는 H사에 근무하고 있는 미혼 남성노동자들이다.

* 보조사례 6은 H사 교육담당 부서원으로 연구자가 어렵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짧지만 긴장 속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따라서 보조사례 6의 나이와 고향 등 사적인 질문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으며 그의 사적인 신상은 연구의 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질문하지 않았다.

* 보조 사례 8의 남편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기에 생략한다.

3. 연구과정

연구자는 H사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여 94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3년 6개월 가량 울산지역에 거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그 기간동안 노동 운동하는 남편의 부인들 모임²⁰⁾에서 활동하

20) H사 부인들 조직은 80년대 말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평소에는 친목 계모임의 형식으로 만나다가 대규모 투쟁이 있을 경우에는 출퇴근 투쟁 등을 통하여 노동운동하는 남편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이 모임의 구성원은 남편이 노동운동 하는 부인들이며 절반 이상이 결혼 전에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던 경험을 가진 활동가부인들이다.

였다. 그때 당시는 연구자의 결혼 전 개인사를 주변 여성들에게 밝히는 것이 상호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연구자의 학력 등 살아온 환경과 과정 등을 묻지 않는 이상²¹⁾ 굳이 밝히지 않으며 어울렸다. 울산에 거주할 당시 연구자는 동구 만세대 아파트와 화봉동 주택에서 전세로 살았으며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때 당시 맺은 인간관계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사례 1은 동구 만세대 아파트에 살 때 연구자의 위층에 살았으며 사례 18은 화봉동 주택에 거주할 당시 같은 골목에 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에 들어갔을 때 다른 여성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었다. 연구자는 진학을 위해 98년 5월 울산을 떠났으나 연구자의 남편은 계속 울산 H사 자동차공장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며 사택임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자는 2000년도 가을 학기에 한국가족연구 수업 시간 학기말 연구과제로 ‘울산지역 생산직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의 어머니 역할과 모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동연구를 했다. 당시에는 기말페이퍼라는 특성상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남편이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빼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여성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자녀들의 연령도 취학 전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하였으며 여성들의 학력도 대졸과 전문대졸도 포함돼 있고 결혼 전 다양한 사회운동에 참여하였던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생산직 노동자’ 가족과는 많

이 모임은 높은 정치적 의식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었지만 반면에 노동운동 하는 남편을 ‘내조’한다는 전통적 여성의식 또한 짙게 깔려있어 모임의 지속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H사 부인들 조직은 98년 고용안정투쟁을 지원하며 파업하는 공장에 2개월간 자식들을 데리고 들어가 함께 격렬하게 싸웠다. 그러나 결국 남편의 정치적 입장에 사이에 두고 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 부인들 조직은 깨지게 되어 그 이후 현재까지(2002년 6월) 공식적인 부인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21) 다행히도 그 지역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연구자의 개인 신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한 여성은 거의 없었다. 연구자는 울산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14개월밖에 차이나지 않는 연년생을 키우느라 늘 정신 없었기 때문에 애 키우는 여성들끼리 만나면 대화의 주제는 육아와 시집, 남편 이야기 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은 차이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진행했던 공동연구는 본 연구에 많은 영감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며 사전인터뷰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와 인터뷰, 참여관찰은 2001년 12월 3일부터 2002년 5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 현장에서의 연구는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면접을 포함한 현장연구는 12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연구자가 자녀들과 함께 울산에 머물며 진행하였다. 면접 초기에는 연구자가 조급한 마음에 4, 5명의 여성들을 매일매일 한꺼번에 인터뷰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에게서 풍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인터뷰를 며칠동안 중단하고 인터뷰 내용의 녹취를 풀면서 연구자의 조급성과 잘못된 질문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구자는, 다음 인터뷰부터는 처음 소개받은 연구대상자일 경우 인터뷰 들어가기 며칠 전에 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인터뷰할 내용을 간략하게 미리 알려주었다. 그랬더니 연구대상자도 인터뷰 전까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연구자와도 친근감이 생겨서인지 인터뷰를 통해 많은 내용들이 오갈 수 있었다. 1명의 여성을 인터뷰하면 그때그때 녹취를 풀며 문제점을 알아내고 다음 인터뷰에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1시간 30분밖에 안 걸리던 것이 다음부터는 점점 늘어나 중반에 들어서서는 계속 3시간을 넘기게 되었다. 1차 면접은 사례 당 최소 1시간 30분에서 최대 3시간 30분까지 소요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생활실태를 보다 생생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연구대상자들 대부분이 첫 자녀는 유치원 보내고 둘째 아이를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기에 첫 자녀가 올 시간(2시경)에는 반드시 집에 있어야 했고 둘째를 데리고 이동하는 부담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연구대상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는 연구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연구대상자가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물리적 공간인 집은 연구자에게 인터뷰 이상의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를 마친 후 연구대상자의 양해를 얻어 간단한 집 구경을 하였다. 집안의 방과 가족사진, 커튼²²⁾ 등의 가구 배치, 집안 가재

도구, 유아교재와 용품, 둘째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 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인터뷰에서 미처 얻지 못한 가족생활의 단면을 읽을 수 있었다. 인터뷰자료는 연구대상자의 동의 하에 녹음하여 재생시켜 자료화하였다. 단, 사례 12는 녹음하는 방식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느껴 녹음하지 않고 기록하였다가 분석에 포함시켰다.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해 머물렀던 H사 자동차 사택임대아파트는 한 층에 10가구가 사는 복도식이기 때문에 참여관찰 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지녔다. 따라서 인터뷰를 위해 머무는 기간동안 자녀양육 실태와 부부관계 등의 가족생활을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울산에 내려 오기 전 빈집이나 다름없던 연구자의 집에 불이 켜지고 아이들이 북적거리는 것을 보고는 반가와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는 같은 층의 이웃들을 초대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주야간하며 고생하는 남편을 혼자 두고 떠나 자기 할 일 하는 팔자 좋은 서울여자’라는 거리감을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인터뷰가 없는 날이면 오전에 수시로 차를 마시기도 하고 연구자의 남편이 주간근무일 때는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이웃들과의 신뢰가 쌓여 가면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중 세 명의 여성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의 여성을 소개받기도 하였다. 특히 토요일에는 면접을 하였던 연구대상자(사택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일상적으로 만날 수 없는 여성들)의 남편이 토요일야 특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여 그 시간에 연구자의 아이들과 함께 연구대상자들의 집에 삼겹살을 사 가지고 방문하여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며 면접 때 못다 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1차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2차 면접은 2002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세 번째 현장연구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세 번째 현장연구의 목적은 미리 신청

22) H사 생산직 노동자 집을 방문하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다. 안방 커튼이 거의 검은색 계통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밤새도록 야간노동을 마치고 낮에 집에서 수면을 취하는 남편들에 대한 부인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이 커튼 색을 관찰하더라도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해 놓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참여관찰 하여 어머니 문화교실의 구체적인 강의 내용, 어머니들의 반응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H사에서 직원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못한 연구자²³⁾는 이번 교육에 참여관찰하면서 회사에서 직원가족들에게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의 내용과 현황, 목적 등이 담긴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4. 개념적 자원

본 논문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 삶이 가정중심성을 어떻게 형성, 강화시키고 있는지 전업주부의 경험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일터의 분리가 일어난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선진 산업국가 중산층 여성들의 이상이었던 가정중심성(조은, 1985: 160)이 2002년 한국사회에서는 대기업 생산직blue collar 노동자 가족에서 발견되는 점에 주목한다.

‘중산층’이라는 범주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다른 정의가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상적으로 발견되는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경제적 실태에 기반하여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을 중산층 여성으로 개념화하지 않는다. 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와 그 부인은 학력 등의 자원과 부모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물질 자원이 취약한 상태이며 남성은 단순 반복적 육체노동에

23) 연구자가 직원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한번도 참석해 보지 못한 이유는 H사에서 직원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연구자가 학업을 위해 울산을 떠난 시점과 맞물리기도 하지만, 노동운동 하는 남성들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해 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편이다. 연구자도 남편으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들은 적이 전혀 없으며 주변에서 함께 어울렸던 활동가들 부인들 사이에서도 이 교육이 대화의 주제로 떠올랐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H사에서 직원부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부인은 H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한두 번씩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사례 여성들 중에서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여성은 남편이 노동운동하고 있는 사례 7과 교육 당시 자녀가 너무 어려서 참석하지 못했던 사례 10뿐이다.

종사하고 있다. 남성들은 언제 닳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시에 따를 집단해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기업을 떠나는 순간 절대빈곤층으로 하락할 불안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이며, 그 고학력을 가능하게 한 친정 또는 시집의 물적 자원이 존재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상대적 안정을 누리는 계층을 중산층이라고 개념화한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가정중심성’은 가족관계(부부관계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자 남편의 부인과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 여성들의 행위가 어떻게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여성들은 주변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그 구조를 또 다시 재생산시켜내는 하나의 주체이다. 결국 여성들을,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자신에게 보상이 많은 삶을 향해 협상해가면서 가부장제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주체(김지혜, 1995: 16)로 파악하는 것은 이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데 개념적 자원이 된다.

II. ‘가정중심성’ 출현의 사회경제적 맥락

18세기말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중산층의 이상으로 등장한 가정중심성 이데올로기는 남녀간의 본성과 기질에 의거하여 공간적·상징적으로 분리된 공/사이분법에 근거해 여성에게 ‘자녀양육’과 고된 노동 끝에 세파에 찌들린 남성을 위로하는 도덕적 구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남성에게는 사회적 노동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여성에게는 가정을 중심으로 욕구와 관심, 행동을 조직하는 성별분업을 내용으로 하는 가정중심성이 노동계급 여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점과 관련한 서구논의는 주로 결혼 전 공식교육, 그것에 입각한 직업의 특성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이 형성되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만의 특성만으로 논할 수 없다.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여성들의 과거·현재의 삶과 노동자 남편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의 성격, 노사관계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이다.

A. 사례 여성들의 생애적 배경

1. 과거: 결혼 전 생애사

한 사람의 굴곡 많은 생애사를 일반화한다는 것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더구나 이 18명의 생애사를 일반화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도이며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여성들의 학력과 가족적인 배경을 근거로 생애사를 되도록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특징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성들의 가족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산(사례 3, 15)에서 성장한 2명을 제외하고는 영남지역의 농촌출신이다. 그들의 부모들은 거의 농사를 지었으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들의 가족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성장 가족 배경

사례	형제관계	어릴 때 부모님 직업	부모님의 현재직업
1	2남 3녀 중 막내	어릴 적 두분 모두 돌아가심	모두 돌아가심
2	3남 4녀 중 여섯째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장사	어머니는 장사
3	4녀 중 첫째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장사	아버지는 공무원
4	1남 4녀 중 셋째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닥치는 대로 일함	어머니는 식당일
5	1남 1녀 중 첫째	아버지는 중1때 돌아가심. 어머니는 자동차하청에서 일하심	어머니는 자동차 하청
6	1남 5녀 중 넷째	두분 모두 농사	아버지는 밤에 경비
7	1남 2녀 중 막내	6살 때 어머니 돌아가심.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심	
8	2남 3녀 중 셋째	두분 모두 농사	농사
9	1남 6녀 중 둘째	아버지는 택시운전, 어머니는 아르바이트	
10	2남 1녀 중 첫째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장사	아버지는 유공 하청업체
11	4남 5녀 중 다섯째	두분 모두 농사	두분 모두 농사
12	1남 3녀 중 둘째	아버지는 무직, 어머니는 장사	어머니는 장사
13	2남 2녀 중 막내	아버지는 원양어선 타심. 어머니는 농사	두분 모두 농사
14	7남매 중 넷째	부모님은 농사, 중 1때 아버지 돌아가심	어머님은 농사
15	1남 3녀 중에 셋째	아버지는 철관업, 어머니는 슈퍼운영	아버지는 철관업
16	3남 3녀 중 다섯째	아버지는 철공업 하시다가 돌아가심	어머니는 무직
17	2남 3녀 중 막내	두분 모두 농사	어머니는 농사 아버지 돌아가심(2001)
18	3남 4녀의 다섯째	아버지 장사하시다가 초등학교 전에 돌아가심. 어머니는 농사	어머니는 직장생활

연구자는 울산에서 자녀를 키우며 사귀게 된 친구인 사례 18의 생애사를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현재 시어머니로부터 6억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례 18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례 18의 어린 시절은 농촌지역에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였던 어머니를 중심으로 행해진 농사노동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내 어린 시절은 행복했고 부모한테 사랑을 듬뿍 받아서 행복한 것 같고 나는 자라서 뭘 해야되겠고 이런 자체보다도(잠시 머뭇) 그런 자체라는 게 그때는 없고 그래서 자라면서 내 책임감이 많이 주어지는 거라. 우리는 촌이었으니까 소꼴 같은 거, 학교 갔다오면 그런 거는 당연히 해야되는 뭉이고 엄마가 워낙 바쁘니까, 농사일이란 게 워낙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 조금 힘들게 컸지. 우리 책임감이 일단 너무 많으니까 힘들었고. 어릴 때 그렇잖아. 친구 집에 놀러가고 싶고 이런 거는 사치지 뭐. 내가 갖고 싶고 그런 거는 그런 건 있지. 방학 때 도라지 같은 거 까서 얼마씩 모아서 원하는 거 하나씩 사고.

<사례 18>

사례 여성들은 농촌지역 내 대가족에서 성장하면서 부모님 곁에서 ‘소꼴 같은 거 먹이는 거는 당연히 해야되는 뭉이고 도라지를 까서 용돈을 벌며’ 알뜰하고 검소한 삶을 익힐 수 있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가족적 배경에서 성장하였다. 경제적 형편상 대학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목적으로 상고에 진학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은 누구라도 빨리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요구되는 가족에서 성장하며 가난을 경험하였다. 여성들의 삶에서 또한 지적될 수 있는 점은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심한 봉건적 가족 배경에서 성장한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밤 9시 30분이나 밤 10시라는 통행금지 시간을 지적하였다. 일찍 부모님 모두를 여윈 사례 1, 7은 형제들끼리 생활하면서도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한 오빠의 통제에 적응해야 했다.

굉장히 오빠가 고지식하거든. 아무래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게(엄하게) 키웠어. 그래보니까 지금도 그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사례 7>

아버지는 술을 많이 좋아하시고.. 애들은 많은데 1남 4녀 였거든요. 아버지는 그만큼 애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부업이나 일을 해 가면서... 그러니까 애들한테 엄마손이 항상 못 갔죠. 엄마는 항상,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아버님은요?] 놓고있고(허탈한 웃음). 항상 술 드시고 한풀이를 하시는 거라. 가끔 엄마도 때리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딸내미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거라. 그래서 술만 드시고 오면 책 다 빼버린다고 그라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집 안에서는 마음이 안 편했죠. 결혼을 빨리 한 것도 집안을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런 생각도 있었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피곤하니까. 결혼 딱 해서 울산 와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자본적이 처음이라면서 그랬죠. 항상 아버지 때문에 걱정을 하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랑 연결져서 자면서도 불안했죠.
<사례 4>

사례 여성들의 가족적 배경에서 눈에 띄는 점은 ‘무직’인 아버지가 많다는 점이다. 일하지 않았던 어머니들은 없다. 사례 1, 7의 친정 언니는 부모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으며 사례 2, 5, 16, 18의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떠나 보내고 장사, 공장, 농사일을 하시며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부모님이 계셨던 나머지 사례에서 공통된 점은 아버지의 잦은 음주로 인한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하면서 늘 술을 가까이 하는 농촌 지역의 문화와 보수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여성들에게 가정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해야하는 노동의 공간임과 동시에 불안함이 공존하여 탈출을 꿈꾸게끔 하는 곳이었다. 사례 4는 결혼하여 울산에서의 첫날밤은 친정에서 항상 ‘자면서도 불안했던 삶’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숙면을 취한 날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여 결혼하기 한달 전까

지 직장을 다녔다. 이 사례 여성들이 결혼 전까지 종사했던 직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대상자의 결혼 전 취업경험

사례	직장경험	퇴사시점	결혼비용 마련
1	대구소재 섬유공장 3년	결혼하기 한달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2	부산소재 중소기업 경리 3년	결혼하기 한달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3	김해소재 자동차 부품회사 경리 8년	결혼하기 일주일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4	대구소재 백화점 판매직 3년	결혼하기 3개월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5	울산소재 병원 보조 6년	결혼해서 첫째 낳기 직전까지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6	부산소재 섬유공장 5년~6년	결혼하기 한달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7	부산소재 병원보조 6년	결혼하기 5개월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8	울산소재 사무직경리 10년	둘째 임신해서 퇴사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9	경주소재 사무직 2년	결혼하기 한달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0	울산소재 백화점 판매직 6개월, 경리 2년	임신 4개월 때	혼전 동거 시 함께 마련
11	울산소재 생산직 5년	결혼하기 1년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2	대구소재 화장품가게 아르바이트	결혼하기 두달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3	부산소재 어망공장 경리, 울산소재 자동차하청	동거 3개월 후	부부가 함께 마련
14	울산소재 자동차 하청 6년	동거하기 15일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5	부산소재 경리, 주류회사 판촉 3년	결혼하기 3개월 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6	대구소재 한복 그림 그리기 5년	결혼하기 직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17	울산소재 정유회사 경리 1년 6개월	결혼하고 두 달 후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
18	오퍼레이터 8년	결혼 직전 퇴사, 울산 와서도 큰 애 낳기 직전까지 1년	본인이 번 것으로 결혼

학력과 성별에 의해 위계화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제한되어 있다.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체로 여성들은 결혼 직전까지 생산직, 사무직(경리), 판매직 등으로 근무하였다. 사례 17을 제외한 사례여성들은 모두 자신이 번 것으로 결혼을 하였다. 결국 사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은 일부는 가족경제를 일으키는데 사용되거나 동생들의 학비를 대는데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부 결혼비용의 의미로 저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으면 언니를 다 줬어요. 언니를 다 주면 언니가 얼마 너 써 하면서 생활비 3만원 주고 그거 가지고 살았을 꺼야. 그래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3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보너스 같은 거 타면 야 기분이다 너 이거 입어 그러면서 골라주는 식으로 하면 그냥 입고.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고 해야되나? 그런걸 전혀 몰랐어. 다 통장에 적금하고 언니가 니 얼마 써 그러면 그거 가지고 쓰고. <사례 14>

어려서부터 전통적 의식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그다지 부유하지 않은 가족적 배경에서 성장한 여성들은 농촌의 정서와 농업노동에 대한 참여를 통하여 돈의 소중함과 가치를 익히게 된다. 경제적 형편상 대부분 상고로 진학한 이 여성들은 졸업 후에 모두 가족의 생계를 뒷받침하고 경제적 독립을 위하여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 여성들은 대부분 월급을 봉투째 부모나 형제에게 맡기고 최소한의 용돈으로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게 적응하게 된다. 사례 여성들의 취업 경험에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이들의 경제활동에는 가족과 본인 생존의 필요라는 ‘의무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에게 통제가 심한, 가난한 가족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단순 반복’적 노동을 수행하면서 어떤 욕망을 꿈꾸었을까?

나도 희생을 하면서 동생 학비 보내고. 정말 내 애인이 회사다, 첫날 만날 10시, 12시까지 연장을 해 가면서 나는 그리해서 집을 도왔거든. 그랬다! 그래도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

미가 없는 거예요. 회사-집 회사-집 이게 싫은 거야. (한숨을 푹 쉬며) 어휴! 나는 여기서 너무너무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또 뭐가 있겠어요? 시집이야. 제 2의 삶을 살자. 그래가지고 또 변화를 줘야 되는 거야. 흥! 시집가면 내가 못 했던 거 하면돼. <사례 12>

그러니까 대구 가서 정식으로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야간 고등학교를 들어 간거 지, 대구에서. 그러면서 몸도 약하고 하니까 집에서 쉬면서. 쉰다고 있었던 건데 쉰게 아니고. 그때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18살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한 거라요. 좀 일찍 시작하면서 언니랑 친정생활을 책임지다시피 했어요. 큰오빠는 벌어도 혼자 쓰기 바빴고 우리 직장생활 해서는 먹고살기 빠듯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그래해 가지고 내 동생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되니까 나도 이제는 내가 마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러니까 내가 시집갈 마음을 먹게 되더라구요. 나도 결혼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자리 잡았으니까. <사례 16>

최근 살인까지 가게 돼 매스컴에 등장하는 아내구타 문제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난 이혼 증가현상²⁴⁾을 보더라도 결혼으로 구성된 가족이 여성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무적인 노동에서 경험하는 단순 반복적 노동의 지겨움, 봉건적이고 통제적이며 가난한 가족구조에서 성장한 이 여성들에게 결혼은 ‘못 했던 것을 할 수 있고’ ‘나도 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의미되는 것이다. 사례 여성들의 생애적 맥락에서 결혼은 인생에서 휴식처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는 자원획득의 의미로 다가간다.

24) 한국의 이혼율은 지난 30년 동안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1년 현재 연간 이혼건수는 120천건으로 99년 118천건에 비하여 2천건 늘어났으며 70년의 12천건에 비해 10배증가한 것이다. 1일 평균 329건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2. 현재: ‘정상가족’²⁵⁾

서구 핵가족에서 부부 중심성이 강조되는 것과는 다르게 부모 자녀관계에 대해 가치가 부여되는 한국사회에서 기혼여성은 아이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이를 갖는 데서 정상적인 가족이 완성된다는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결혼 제도 하에서 자녀출산에 대한 당연한 기대와 함께 울산지역 자동차 공단 밀집 지역 내 ‘노동자’ 가족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사례 여성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된 특성은 결혼 후 빠른 임신과 두 명 이상의 자녀수라는 점이다. 이 여성들의 빠른 임신은 결혼 후 낯선 타지에서 경험하는 신혼 초의 외로움, 전업주부라는 지위, 집단거주지의 동질화된 문화와 연결시켜 이해될 수 있다. 낯선 타지, 남성 중심적 공업도시에서 여성들은 임신을 잠시 미루고 몰두할 수 있는 가정 외 활동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불임으로 인해 임신이 늦어진 사례 6, 15, 16을 제외하고는 허니문 베이비로 첫 자녀를 가졌다는 특성을 갖는다. 사례 여성들은 신혼생활을 이야기 하며 “애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남편만 믿고 따라와서 하루종일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워요!”라고 표현하며 신혼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자녀출산과 이어지는 양육을 암시하고 있다. 물론 이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자녀를 갖지 않을 생각을 한 여성은 아무도 없으나 신혼생활의 외로움과 힘든 적응²⁶⁾은 자녀를 더욱 필요로 하는 조건을

25) 서구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the Family’는 부모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산업사회에서 핵가족은 정상 가족(normal family)이며, 이것에서 벗어난 가족은 비정상 가족, 즉 결손 가족(broken family)으로 불린다. 페미니스트들은 실제 가족구성원의 내용과 성격은 다양하고 복잡하기에 도구적 역할의 남자와 표현적 역할의 여성으로 결합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전형적 가족의 개념은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가족의 구성과 경험의 다양성을 옹호하여 정상적인, 단일한 가족을 의미하는 ‘the Family’라는 용어에 반대하고 대신에 ‘familie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바렛, 1994; 박혜경, 1999; Hareven, Tamara K., 1997 등). 연구대상 가족은 전형적인 핵가족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상가족’으로 명명한다.

26) 결혼 초기에 이 여성들이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은 본문(III. A. 1)에서 서술하겠다.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서 보여지는 또 하나의 특성은 다(多) 자녀에 대한 선호이다. 점차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비율이 늘면서 1인 가구,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구·주택 부문)를 보면,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1.31명에서 1.17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 연구대상 가족에서 평균 자녀수는 여전히 두 명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점은 H사 노조에서 실시한 조합원 생활실태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울산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의 자녀수는 2명이 67.4%, 3명이 8.5%였다. 직군별로 비교해 보면, 생산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2명은 66.6%, 3명은 9.2%)은 75.8%로 가장 높으며 전문직(연구직)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비율(2명은 55.2%, 3명은 6.9%)은 62.1%이다. 본 연구의 사례여성들도 셋째를 임신하고 있는 두 사례를 제외하고는 평균 자녀수는 두 명이었다.

사례 가족의 ‘두 자녀’ 선호는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회사의 가족 복지정책, 집단주의와 연관지어 분석될 수 있다. 최근 전체적으로 자녀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와 그에 부응하지 않는 보육시설의 미비, 또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과다한 교육비 등과 관련이 있다. H사에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전 자녀(등록금의 100%),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두 자녀(매 1학기 등록금의 100%, 매 2학기 등록금의 50%)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²⁷⁾ 또한 자녀수가 많아져 피부양자 수가 늘어날수록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물론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겠으나 개별 가족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등록금에 대한 지원제도는 H기업 노동자들로 하여금 두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직군별로 비교했을 때 생산직에서 두 자녀 출산비율이 높은 것은 집단주의와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다. H사 ‘노동자’ 가족들은 집단적

27) 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1), 『단체협약』.

으로 밀집해 거주하고 있어 동질화된 기업 문화와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남편이 같은 직장을 다니고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집단거주지의 동질화된 문화 속에서 두 자녀가 보편화되면, 여성들은 그 지역 속에서 최대한 적응하며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이 본인에게 가져다 줄 만족을 생각하며 주변 이웃 여성들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두 자녀를 선호하게 된다. 이 사례 가족에서 전업주부라는 존재와 함께 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 동질화된 집단주의 문화는 두 자녀출산을 유도하여 ‘두 자녀’는 보편적인, 정상적인 자녀수로 자리잡고 있다.

3. 거주지역의 성격: 공업도시

울산은 읍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2년 1월 27일 특정 공업지구로 결정·공고된 후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한 전형적인 공업도시이다.²⁸⁾ 울산시의 총면적은 1,055.54km²로서 경남의 9.1%, 전 국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당시 인구규모가 85,000명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1,060,378명으로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의 큰 도시로 성장하였다.²⁹⁾

도시의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는 이 도시의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공업화 과정에서 제1차 산업(농림수산업) 종사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제2차 산업(제조업 및 광공업) 종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울산의 산업구조는 점차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으며, 1967년³⁰⁾ 이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가 크게 변화하였다. 농·어업에 종사인구가 50%이하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제2차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분

2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엮음(1988), 『대구·울산 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29) 울산시(2000), 「시정백서」.

30) 1967년은 울산에 H 모타 주식회사(당시 상호명)가 창립된 해이며 68년부터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68년 11월 4일 자동차 생산이 시작되던 때에는 공장의 인원이 3백 49명이었으나 그 후에는 팽창일로를 걸었다(H사 자동차 주식회사, 『H자동차 이십 년사(1967~1987)』). 따라서 1967년 이후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대규모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H자동차의 공장가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야 종사자가 25%로 크게 늘어났으며 1980년에는 전체 취업자의 50%이상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공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울산은 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울산 전체 임금노동자는 36만 명으로 추산되며 도시인구 중 제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1위이다.

공업도시인 울산에서 제조업의 특성은 남성위주³¹⁾의 조선, 자동차, 컨테이너 등과 같은 기계·장비업종과 정유·화학공업 등이 거대 기업군(群)을 형성하며 압도적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곳 노동자들은 중화학공업에 종사하는 남성 중심의 노동자들로써 대규모 사업장에 고도로 밀집되어 있다. 공업화가 진행되는 동안 울산으로 급속히 이입되는 인구의 연령별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인구에 비해서 남성인구가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³²⁾ 울산지역의 산업화는 남성노동력 중심의 공업화였기 때문에 남성인구비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도록 하였다. 남성노동자 중심의 공업도시에서 여성들(특히, 기혼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흔히 울산을 ‘H 기업 도시’라 말한다. H그룹의 주력기업체들이 이곳에 몰려 있다. H중공업, H자동차, H미포조선, H모비스(구 H정공), H하이스코(구 H강관) 등 이외에도 H그룹 계열사가 가히 ‘H 도시’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 H사의 대표그룹인 자동차와 중공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수만 5만 명(H자동차 2만 6천명, H중공업 2만 여명) 가까이 되며 사내 하청 노동자는 1만 8천 여명(H자동차 8600명, H중공업 9,230명) 된다.³³⁾ H사는 유통업에도 진출해 있어 울산시의 H백화점, D호텔, 1개의 종합병원과 방송사까지 점유하고

31) 연구자가 중공업, 자동차, 화학을 남성직종으로 확정지어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직종을 남성직종, 여성직종이라고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재 드러나는 남녀간의 역할을 그대로 받아들이 성별 직종분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를테면, 현재 H사 중공업, 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용접, 주야간 노동 등을 어떠한 전제 없이 여성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여성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이 논문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기에 여기서 더 다루지는 않겠다.

32) <표 5> 울산의 연령별 성비변화 추이

있다. H공단 맞은 편의 효문공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장은 대부분 H자동차 부품업체이다. 따라서 H그룹 및 계열사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10만 명 이상이 H관련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³⁴⁾ 울산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도 대부분 H사 차이고 H사 차 이외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 H사를 상징하는 울산에서는 H사 노동자들이 회사 작업복을 입고 -가끔 회사 사원증까지 달고서-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울산은 남성노동자 중심의 중공업에 유치하여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공업도시로서 급조되었기 때문에 교육·문화부문의 후진성과 극심한 공해, 여성정책

연도 연령대(세)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평균	105.5	108.5	108.9	107.9
0~4	104.3	106.1	106.0	109.0
5~9	105.5	105.9	107.1	107.9
10~14	105.6	105.6	106.5	107.6
15~19	111.6	122.1	123.3	119.3
20~24	96.6	93.3	97.8	98.5
25~29	115.9	110.5	105.3	99.6
30~34	126.7	135.1	130.6	113.4
35~39	126.8	140.4	134.2	132.2
40~44	105.6	124.8	137.1	132.5
45~49	96.1	99.9	120.4	131.0
50~54	91.2	91.9	89.6	112.1
55~59	83.7	78.2	75.2	74.4
60~64	81.3	72.4	64.4	62.4
65	57.5	53.1	50.9	48.5

* 성비는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로써 표시된다.

*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년도. (유한희, 1993: p.20에서 재인용)

33) 한겨레 21, “비정규직, 당신은 서글픈 식민지”, 한겨레 신문사, 2002년 5월 16일자(제 408호).

34) 울산 민주노총을 거쳐 노동운동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와의 메일수신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확보한 내용이며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의 낙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명실공히 울산광역시에는 종합대학교가 한 개뿐이다. 광역시 중 울산(1,060,378명)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광주(1,387,360명)에는 9개의 종합대학이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되는 현상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학은 다양한 지식간의 경합과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장(場)이며 지역사회에 많은 대학이 있다는 것은 근대적 이론들과 실천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새로운 주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특정 공업도시에서 종합대학교가 1개뿐인 것은 단지 교육·문화부문의 후진성에서 더 나아가 지식과 다양한 NGO운동의 침체로도 연결될 수 있다. 여성단체연합이 발표한 2001년 16개 광역 시도 여성정책 평가에 의하면, 울산은 전국에서 보육 수요 충족률이 40%³⁵⁾로 가장 낮고 울산시 관내 영아수용 시설은 6곳³⁶⁾뿐인 데다 인원 한정 등 이용에 따르는 제약이 많으며 16개 시도 중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울산의 목표액이 30억인데 13%인 3억 9천만 원만 확보해 꼴찌를 차지했으며 여성정책 전담 부서와 담당자가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³⁷⁾

본 연구대상 가족은 H사 자동차 공단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p.43 <그림 1> 참고).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는 자동차 공단 맞은편 지역인 양정·염포지역을 중심으로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90년대 초에 북구 호계, 화봉지역과 남구 삼산, 달동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집단거주지가 그쪽으로도 넓혀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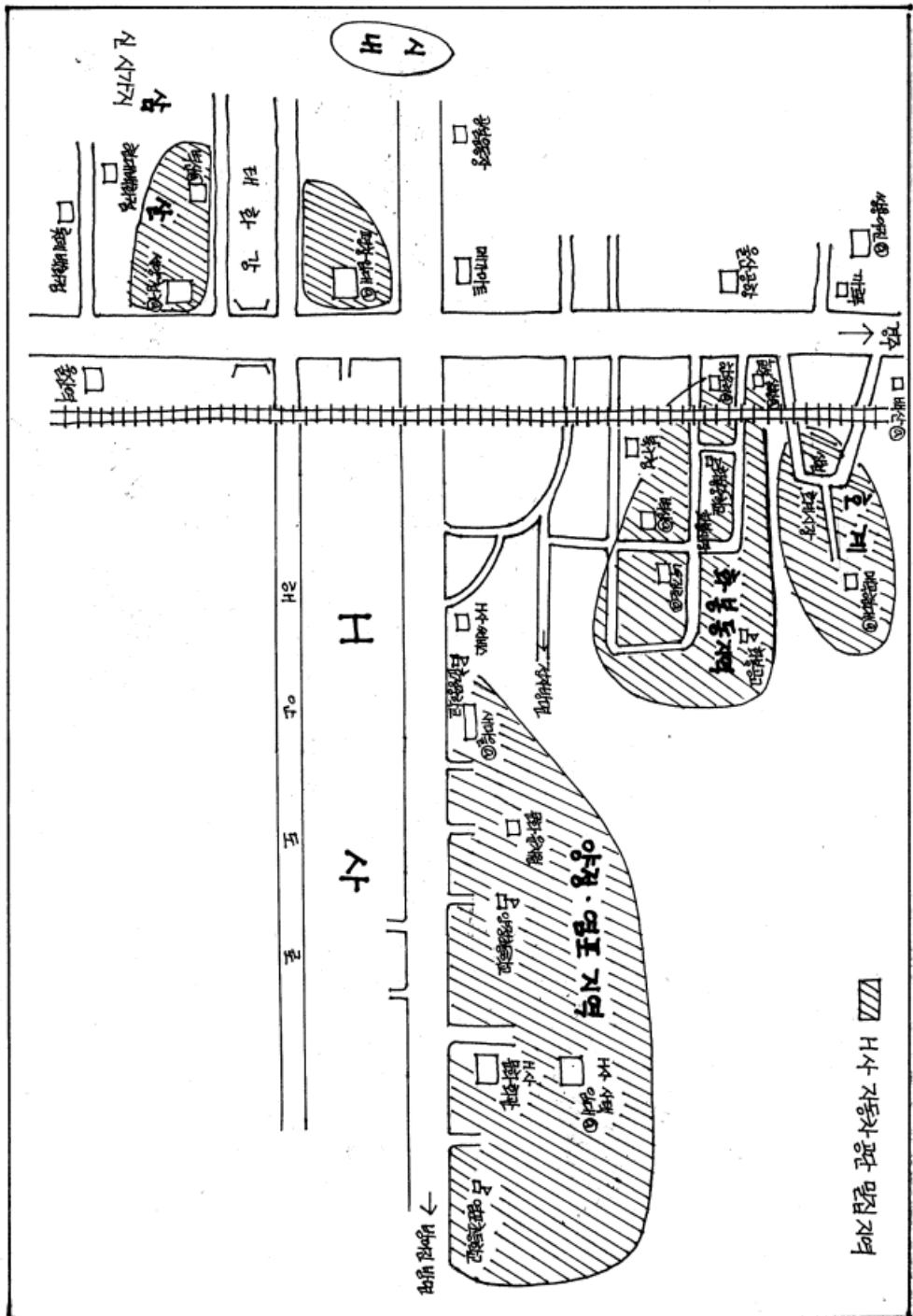
35) 전국적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수는 2000년 현재 1,328,134명이다. 이중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686,000명으로 52%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시설 중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16.9%에 불과하고 정부의 보육재정 부담률은 28%로 민간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에서 제주도의 보육 수요 충족률(92%)이 가장 높고 대전과 울산은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육을 원하는 가정에게 보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가 부족하고, 보육정책과 보육프로그램에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보육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2002), “16개 광역 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36) <http://www.metro.ulsan.kr/html2001/woman/index5.html>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내 여성정보)

37) 인천, 대구, 부산의 경우는 여성국이 있으며, 울산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는 여성정책과가 설치되어 있다.

구기간에 머물렀던 양정·염포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밀집지역이며 공단 맞은편에 위치했기 때문에 주거환경으로는 열악하다. 그러나 회사와 가장 가깝다는 지역적 특성과 H기업이 관리하는 문화회관이라는 편의시설이 주는 장점 때문에 여전히 H기업 자동차 집단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주 가는 길목에 위치한 호계지역은 공단지역에서 떨어져 있어 자연환경이 좋다는 이점은 있으나, 가뜩이나 고립된 울산에서도 변두리라는 특성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은 자녀교육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기회만 되면 시내로 이사하고 싶어한다. 호계가 아닌 다른 집단 집단거주지에 거주하는 연구대상자들도 양질의 자녀교육을 위해 자녀가 중학생 정도 되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어지면 시내로 나가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H사를 중심으로 한 집단거주지라는 특성은 지역 여성들의 가족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은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IV장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림 1>



B. H사의 성별화된(gendered) 기업전략

H사는 남성들을 주/야간 맞교대라는 지루하고 고된 노동의 세계로 밀어 넣고 여성을 가정 영역에 매여 있게 하기 위한 성별화된(gendered)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1987년 H 자동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H기업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도입논의와 함께 일본식 인사관리방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된 노무관리 양태는 1990년 5대 행동계획³⁸⁾ 수립과 정기적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김현기, 1998). H사에서는 기업경영 전략차원에서 노동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업복지 정책을 펼치게 된다.

주 내용은, 남성노동자를 효과적으로 통제·관리하고 친 회사 성향의 노동자들을 확보³⁹⁾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부인 역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은 H사 남성노동자들의 부인을 노동력의 마모가 심한 육체노동자를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전업주부로 묶어 둠으로써 남성 노동자들은 ‘자본을 위한 노동’을 ‘창조적으로’, ‘생산적으로’ 수행하는 ‘성실한’ 노동자로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⁴⁰⁾ 이러한 기업의 문화전략은 H사 ‘노동자’ 가족을 ‘H 가족’이라는 기업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동질화된 집단으로 묶으며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8) 5대 행동계획의 첫번째로, 노사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1)권위주의적 경영스타일 제거, 2)작업현장에서 서로 인사하기 캠페인, 3)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충처리 및 관심 확대 4)휴게시간에 이용할 체육시설의 확충, 5)설비의 정리정돈 등이 추진되었다(H사 노조 정책기획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자동차업종연구팀, 2001: 22).

39) 연구자가 ‘행복한 가족만들기 I’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갔을 당시에 H사 노조에서 2002년 임·단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을 당시 교육받는 공간인 연수원에도 회사 측이 주도하고 있는 ‘반장 협의회’를 해체하고 한마음 교육을 당장 중단하라는 각종 대자보와 유인물이 도배되어 있었다(현자노조 교육선전실, 임투속보 2002년 5월 10일자 02-15-2호).

40) 신병현(2001), 『노동자문화론』,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1. ‘가정주부성’과 ‘어머니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1-1. 직원부인 특별교육⁴¹⁾

직원부인 특별교육은 IMF 직전인 1997년 5월 15일부터 2001년 11월 6일까지 매년 적게는 20회에서 최대 71회까지 실시되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1회(19,846명 참가) 실시되었으며 2000년 9월 26일부터 11월 14일까지 41회(11,565명) 실시되었다. 2000년에 참가한 인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직 부인들이 참가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²⁾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오전에는 교육을 받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공장견학이나 어울림 한마당 등의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선물제공이다. 교육을 마친 후 나오면서 남편에게서 받은 초청장을 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우산이나 생필품세트(비누/ 치약세트), 양념류 세트, 가정용품(봉 청소기) 등을 제공받는다. 돈 천 원도 함부로 쓰지 않고 알뜰살뜰 살림하는 여성들에게 선물제공은 교육참가에 대한 유인책이 되지 않을 수 없다.⁴³⁾ 교육의 내용은 회사에서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매년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고 강사진도 다양하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실시해도 호기심으로 참석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97년 초반에는 ‘회사현황, 경영현황, 판매기법’ 등으로 이루어져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자 회사 현황과 전략을 간단한 비디오시청으로

41) 직원가족 특별교육의 실시현황은 ‘행복한 가족 만들기 I’에 참석하였을 당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직원가족 교육 실시현황’이란 회사자료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 자료에는 교육 대상, 실시기간, 교육시간, 선물의 내용, 참가인원, 교육장소, 교육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2) 교육은 남성 노동자들이 현장 내 조 반장을 통해 초청장을 받아 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알려지는데 인원점검 등을 통한 보이지 않는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 여성들 역시 처음에 참석할 때의 동기에 대해 “뭐 강제는 아니겠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찍힐 수도 안 있겠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3) 2차 인터뷰할 때 연구대상자들에게 직원가족 특별교육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성들은 교육의 내용, 느낌과 함께 받았던 선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물 때문에라도 이후에 교육이 있다면 참석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대체하고 각종 교양특강을 실시하게 된다. 인터뷰하면서 여성들은 인상깊었던 교양특강의 강사로 정덕희, 황수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며 무엇을 느꼈는지를 통해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한번 가서 들어봤어. 그건 좋은 말 들어보고, 노느니 뭐해? 그 전에는 저그 아빠가 가는 거 싫어했거든. 그래서 안 갔어. 뭐 할라고 가노? 그러더니만 안 가면 회사에서 그게 올라 가나봐, 기록이. 그러니까 괜히 또 안 좋게 보이면 뭐하겠노 해서 할 도리는 하고, 일 해줄꺼 일해주고 회사에서 큰 소리치거든. 내(계속) 노니까, 바쁘면 가보라는 소리 안 할끼데 노니까.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그러니까 가서 듣고. 내한테 득이 되긴 득이 되대 뭐. 들으니까 좋대 뭐. 듣고 오니까 상관있나 뭐. [강의는 어땠어요?] 황수관이가 살아온 거 이야기하시고, 신랑한테 잘해주라는 얘기하고. 신랑들한테 잘 해주고, 또 건강! 그때는 건강이야기를 했으니까, 어휴 집에 가서 잘 챙겨 줘야되겠다. <사례 1>

그 교육받아 본적 있어. 작년 여름이었나? 그게 공장견학도 있고. (중략) [근데 그 교육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더라고. 우리 남편이 그래도 제일 큰 회사에서 모든 게, 하기야 그 덕택으로 우리가 별 그거 없이 산다고도 해야 되잖아.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은 가지고 있지. 울산에서는 H자동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더 좀 그런 거는 같애. <사례 18>

직원부인 특별교육에 참석했었던 여성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이 교육을 받은 후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생겼고 남편에 대한 내조와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H사는 교육초기엔 주로 강의의 내용에 있어 회사현황과 경영현황을 주로 하여 파업 등의 노동쟁위를 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원들 부인에게 판매기법까지 강의함으로써 이윤추구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끌어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노조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소위원

등의 조합활동을 통한 열성조합원인 사례 1의 남편도 ‘그 전에는 저그 아빠가 가는 거 싫어했거든’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인들의 회사교육 참석에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회사는 딱딱한 경영현황 등의 내용을 줄이면서 비디오시청 등의 영상매체를 활용하고 명사초청 특강 등의 교육형식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여성들은 문화적인 불모지에서 평소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명사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고 선물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교육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며 열성조합원인 사례 1의 남편을 비롯한 남성들 또한 부인을 상대로 한 회사교육에 대해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직원부인 특별교육 중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낮뜨거운 장면⁴⁴⁾이 연출되어 노조에서 항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노조에서도 이 교육에 대해 주시하고는 있으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닌 한 비판하지 않는다.⁴⁵⁾ 이 교양강좌의 내용과 목적은 고생하는 남편을 내조하는 부인과 자식의 건강과 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을 전업주부로 위치짓는 기업의 문화전략은 하루 당일교육인 ‘직원부인 특별교육’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족 만들기’ ‘공장견학’ ‘주부대학(예정)’ 등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완, 강화되고 있다.

44) 연구자는 이 사건에 대해 노조 홈페이지에 들어가 노조신문을 통해 정확한 정황을 확인하려 했으나 2001년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전(前) 기사가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남편과 사례 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교수들 불러다가 강의 듣고 그런 건 괜찮더라고. 되도 않게 전에처럼 말 많게 이벤트 회사 불러 가지고 막 그런 건 싫고. [그게 뭐예요?] 옷 벗으면 선물 준다 이래 가지고 옷 하나씩 벗을 때마다 선물 준다, 이래 돼 가지고 엄마들이 또 나와서 그래 했나봐 또. 하는 엄마나 그걸 시키는 사람이나! 이벤트 회사가 잘못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노조에서 난리가 났다 아이가. 어데 엄마들 불러놓고 옷 벗기 대회를 하냐고, 이벤트 회사 때려치라고 해서 그거 못 부르게 했잖아.” <사례 1>

45) 사실 노조에서 여성들에게 가정주부성(housewifery)을 강화시키는 내용의 교양강좌를 비판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울산시 H사 ‘노동자’ 가족 내 성별분업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 문화적인 요소 등 다양한 기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있는데 연구자는 이 지역, H사 남성 노동자-그가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이-들의 가부장성에 의해 서로 지지되고 있다고 본다. 노동운동가들의 대중 조직인 노조도 가부장성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 부분은 H사의 상대적 고임금을 가져오게 한 요인인 노동운동의 성격(II. C. 상대적 고임금: 노동운동의 성격과 기업복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2. 공장견학

H사에서는 ‘직원부인 특별교육’에서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병행하거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한두 차례씩 공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H사가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은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가족 간의 유대와 회사-가장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남편, 아버지, 아들의 일터를 공개하는 것이다. H사는 사원 부인, 자녀 외에 사원부모에 이르기까지 사원 가족 회사 초청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건전한 가정, 보람된 일터」를 실현한다는 「家族一體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다.⁴⁶⁾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장견학은 단순히 내 남편, 아버지, 아들의 일터를 말 그대로 ‘둘러보고 자동차의 조립과정을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며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장견학 취지에서도 드러나듯이 가족에게 대공장에서 단순 반복적인 조립공정을 중심으로 한 생산현장을 공개함으로써 ‘한국의 일류기업인 대기업’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남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공장견학을 한 사례 여성들은 공장견학에 대한 느낌이 다소 모순되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공장견학 후 “공장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큰 공장의 규모에 놀랐다”라는 말에서 묻어나듯이,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하루 종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불쌍하다”며 단순 조립과정을 되풀이하는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이다.

또한 회사에서 가족들에게 공장견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 아버지의 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남성을 정점으로 한 가족간 위계질서를 확인시켜주는 한편, 더 넓은 가족으로 의미되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즉 회사는 가족들에게 공장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남성 노동자를 대신해 부계 가족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한편 애사심에서 더 나아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구자는 울산에 거주할 때 공장견학을 하고 온 사람들의

46) <http://www.logispia.net/news/haesa/1336/list/13368.asp>.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남편에 대한 내조가 소홀해질 때 “공장 가서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 정신을 차린다”, “공장견학 가서 남편 일하는 거 직접 보고서 눈물만 펴고 왔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다. 따라서 H사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장견학 프로그램은 부인들을 포함한 가족들로 하여금 생계부양자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⁴⁷⁾하여 가정의 위치를 확인시켜주고 부인들에게는 내조의 내용과 형식을 가다듬고 강화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된다.

1-3.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

여성을 전업주부로 위치 지우며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력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자본의 욕망은 관료제적 통제장치를 비롯한 다양한 관리기제를 동원하여 실현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부인 특별교육은 하루 당일 교육이지만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3일을 기본단위로 실시되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 I · II’, 부부 감수성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자는 2002년 ‘행복한 가정 만들기 I’ 1기(5. 14.~16.)에 참여하였다. 교육은 회사 내 연수원에서 실시되어 9시 50분에 문화회관에 집결, 회사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단체 이동하였으며 1기 수강인원은 25명⁴⁸⁾이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실시된 후 12시부터 1시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3시까지 오후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⁴⁹⁾은 언뜻 보면 회사에서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47) 예를 들어, 사례 17은 98년 고용안정 투쟁 때 남편이 일하는 공장을 처음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후 사례 17은 남편에게 집안 일을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된다. 공장견학을 하고 온 여성들은 대체로 남편에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되며 며칠 동안은 하다 못해 반찬이라도 더 신경 쓰게 된다고 말한다.

48) 1기를 신청한 인원은 30명이 넘었다고 하나 실제로 참석한 인원은 25명이었다. 2002년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대상은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49)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정소개와 인간행동의 마음알기(나의 마음표 그리기) - 1일차

이젠 타인을 이해하고, 갈등은 왜 생길까? 이젠 갈등을 풀고 싶어요(남편에게 편지쓰기) - 2일차
갈등해소 방법(I), 갈등해소 방법(II) - 3일차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실시되는 가치중립적 교육처럼 보인다. 연구자도 1일차 교육을 받고서 이 교육의 목적이 다소 혼돈스러웠다.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본인의 자아상태와 마음 등을 알게 하고 여성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남편에게 기를 붙어 넣어줄 수 있다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쳤다. 둘째 날부터는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여성의 행동과 마음가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부부간 대화의 (기본)자세⁵⁰⁾에서부터 자녀교육 7계명,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화, 남편을 죽이는 말 등을 설명하고 올바른 대화에 대한 분석 및 강좌가 이어졌으며 진지한 분위기에서 강좌가 진행되었다.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예전에 여성들에게 노골적으로 남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조하는 구시대적인 내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당당해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 행동 유형을 설명할 때 심리학 이론의 일부를 가져와 설명하면서 적당히 지적 욕구를 채워주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남편과 자녀에 대한 여성의 행동을 점검하고 수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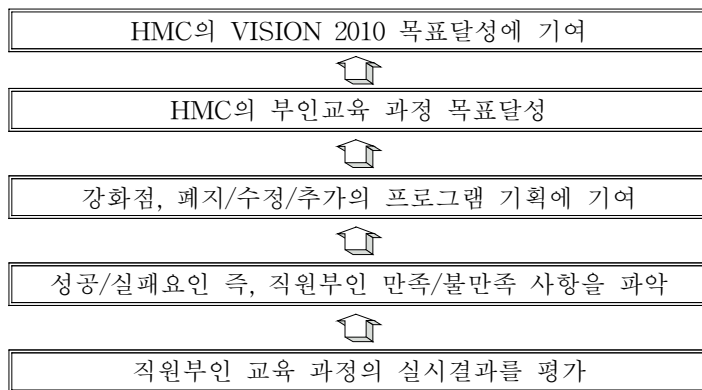
이처럼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이 남편과 자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대화하는 기법을 통하여 여성들이 가정내 주어진 역할을 더욱 불만 없이 해내면서 가정 내 갈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성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과 인내만을 강조하지 않고 심리학 이론을 끌어와 ‘교류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실시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는 여성들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풀어내지 않으면서 여성들 스스로가 ‘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시키게 한다는 점에서 회사의 전략이 더욱 우회적이고 세련되어 졌다고 할 수 있다.

50) 강사는 대화의 자세에 들어가기 전 대화의 ‘기본’자세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밥하기 전에 반드시 세수를 하여 부스스한 얼굴로 있지 말고 몸가짐을 단정하게 해야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남편 아침밥만 차려주고 다시 들어가서 자거나 다른 일을 하지말고 식사할 때는 반드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배웅하는 것인데 남편을 배웅하고 남편에게 문 잠그는 소리가 안 들릴 때까지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사는 직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⁵¹⁾에 대해 꼼꼼하게 평가하면서 이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사에서 작성한 ‘직원 부인 교육과정 평가보고’에는 H사에서 왜 많은 예산을 들여 직원부인들에 대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⁵²⁾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이 각종 프로그램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불만 없이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의 교육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남성들의 노동력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생산시켜 H사의 생산력과 직결되는 회사 이윤을 향상, ‘2010년 글로벌 톱 5 도약’(정몽구, 2002)이라는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동차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일상, 가족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군다나 각종 교양강좌 형식을 띠며

51) H사에서 직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는 ‘직원가족 특별교육’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 부부 감수성 훈련’ 이외에도 ‘자동차 교실, 컴퓨터 교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교실, 컴퓨터 교실’에 대한 분석은 시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연구대상자 중에서 그 교육을 수강한 여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실, 컴퓨터 교실’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문화전략과 직접적으로 - 물론 아이를 키우고 살림하는 가정주부에게도 컴퓨터 교육은 필수가 되고 있으며 “요즘 자동차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차에 대해서 알고 간단한 고장은 가정에서도 고칠 수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개설하게 되었다”는 보조사례 6의 인터뷰 내용을 보더라도 ‘자동차 교실, 컴퓨터 교실’도 여성들이 가정주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한 회사의 기업문화전략이기는 하다 - 연결시키기에는 더 많은 자료와 사례가 필요하기에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2) 「프로젝트 목적」



(출처: H자동차주식회사(2001), 직원부인 교육과정 평가보고)

‘교육’으로 의미되는 회사전략은 가뜩이나 공업도시에서 문화와 교육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여성들의 욕구와도 부합되어 순조롭게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1-4. 문화회관 운영

문화행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육체적, 정신적 긴장감과 갈등을 이완시켜 문화적 욕구를 해소시킴으로써 삶의 의욕을 향상시켜준다. 따라서 H 기업은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행사와 체육 오락활동을 지원해주고 있고, 이러한 문화행사를 사내 조합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가족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6: 110). 앞서 지적한 각종 교육은 특정한 시기에 ‘직원부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집단거주지 안에 있는 문화회관은 H사관련 가족들과 지역주민을 ‘일상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기업문화이다.

문화회관은 H기업 맞은 편에 위치하여 1층엔 은행과 여행사, 서점, 안경점과 H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전시관이 있다. 지하 1층엔 복지매장과 식당가가 있으며 지하 2층엔 헬스클럽과 수영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까지 갖춘 수영장은 요금(2,700원)도 저렴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2층엔 각종 병원과 회의실이 있으며 회의실은 회사와 노조 행사, 조합원들의 결혼식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위층에는 컴퓨터 학원과 볼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 문화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교양강좌는 지역여성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활력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 있으나 여성들에게 가정 내 위치를 공고히 하고 확인시켜 주는 성별화된(gendered) 내용⁵³⁾으

53) H자동차에서 관리하고 문화회관에서 실시하는 2002년 제2기 봄 정기강좌(2002년 3월 4일~5월 28일)의 내용은 ‘전통문화, 실용취미, 건강체육, 음악·예술, 어학·문화, 요리, 어린이특활, 청소년취미, 유아영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실용취미’ 강좌의 내용을 살펴보면, 손 뜨게·양재·선물포장·은공예·에그아트·홈패션·웨딩 플라워·풍선아트·프레스플라워·스텐실·퀼트와 패치워크·빠빠에플라워·대바늘인형뜨기·옷수선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반’ 프로그램도 한복기능사·한식기능사·중식조리사반·미용기능사·피부관리사(전신경락)·효과적인 부모역할훈련(P.E.T.)·자녀글쓰기 지도반·자녀독서지도반·영어독서지도자·아동미술지도법·종이접기 지도자로 이루어져

로 운영되고 있다. 더불어 문화회관 1층에는 의자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병원과 은행이 입주해 있으며 쾌적한 냉난방 시설 때문에 여성들은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는 주(週)의 낮 시간에 이 곳에 아이를 업고 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H사에서 관리하는 문화회관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자주 찾는 각종 편의시설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상을 강하게 흡수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과 H사 가족들은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 ‘H가족’으로서의 일체감과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발휘되는 기업 문화의 효과를 엿볼 수 있다.

2. 2교대제 근무형태

주야간 2교대형태는 자본의 필요성 때문에 채택되는 근무형태이다. 우리나라에서 교대근무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은 섬유, 전자, 철강,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고무나 플라스틱 제조업(석유 정제 및 가공)이다. 교대근무는 불변자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많이 되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동차, 철강, 석유정제 등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그 비중이 높다.⁵⁴⁾ 자동차 업종의 특성은 대량생산체제이며 신기술에 입각한 자동화의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포디즘적’ 노동과정에 머물러 있다.⁵⁵⁾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투여하게 되고 투여된 자본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을 해야 하는데 주야 2교대를 통해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A조를 주간 조로 보고 B조를 야간 조로 본다면, A B조 근무⁵⁶⁾ 사

있다.

54) 권희중(2002), “전자산업 재편과 노동자”, 『민주노동과 대안』 통권 48호,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55) 조형제(1991), “노동자계급 : 1980년대 한국완성차업체 노동자의 사례”,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p.269.

56) H사 자동차 공장의 경우,

주간조(A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각 : 08시 00분>>

오전 휴게시간 : 10시 00분~10시 10분

야간조(B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각 : 21시 00분>>

야간 휴게시간 : 23시 00분 ~23시 10분

이에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만 비어 있는 시간이며 24시간 중 한 시간만 기계가 쉰다고 할 수 있다. 토요일 야 특근시간은 최근 들어⁵⁷⁾ 토요일 오후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까지(식사시간을 제외한 노동시간은 14시간)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주/야간의 근무형태는 남성노동자 자신들의 건강⁵⁸⁾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가족생활에도 많은 갈등과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썸순(1989)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하루 8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노동모델은 묵시적으로 가사노동이 전업주부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남성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정영애, 1996: 101에서 재인용). H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대제 근무 하에서 수행되는 노동은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특성과 함께 일주일 간격으로 밤낮을 바꿔서 일하게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과 양육을 타인에게 완벽하게 전가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H사에서는 생산직 신입사원 채용시 대상을 아예 남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여성에게 보살핌 노동에 대한 책임감이 주어진 상황에서 여성들은 밤에 출근하여 밤새도록 일하는 교대제 근무 하에서 노동하기 힘들다. 따라서 H기업은 남성노동자를 대신하여 가정에서 남성의 노동

점심시간 : 12시 00분~13시 00분
 오후 휴게시간 : 15시 00분~15시 10분
 종업시간 : 17시 00분

야간 식사시간 : 익일 01시 00분~익일
 심야 휴게시간 : 04시 00분~04시 15분
 종업시간 : 06시 00분

출처: 사원수첩(2002)

57) 전에는 오후9시부터 했었는데 오후5시부터 특근하면 할증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오후 5시부터하는 특근이 현재(2002년 5월) 정착되었다.

58) 교대제는 해당 노동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결혼생활의 질 저하 측면에서만 접근했었다. 예를 들어, 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타사 자동차 조립원 생활 실태조사에서도 교대제로 인한 건강장해를 경고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생리적인 건강장해로 인한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파괴하여 정신, 신체기능과 수면주기에 작용하는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작업수행능력의 저하와 작업효율을 저하시켜서 사고, 실수를 유발하게 되고, 셋째로 사회적 기능의 장애로 가족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결혼생활, 육아, 사회적 접촉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네 번째로 의학적인 장애는 수면장애, 식습관의 장애가 생기고, 위장장애(장염, 위, 십이지장염, 위궤양), 정신신체장애(만성피로, 화남, 우울증), 심혈관장애(고혈압, 심근경색증) 등이 생긴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6), 「기아자동차 신 경영전략과 노동조합 활동진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력을 재생산시켜줄 여성의 존재를 전제로 교대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각종 직원부인 교육을 통하여 남녀를 성별화된 공간과 역할에 배치시키고 있는 것이다.⁵⁹⁾

C. 상대적 고임금: 노동운동의 성격과 기업복지

196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수출주도에 의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불가결의 역할을 한 것은 미혼 여성노동자였다. 1970년대 후반 우리 경제는 중화학 공업화의 추구하고 함께 종래의 가발, 신발, 섬유, 식품 등 경공업 중심 산업 구조에서 기계, 자동차, 화학산업 등 중화학 공업중심으로 옮겨가게 된다. 산업의 중심이 남성들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중화학 공업으로 옮겨가는 것은 노동운동의 내용과 핵심주체도 여성노동자에서 남성노동자로 전환되는 역사적 과정을 겪게 한다.

H사의 상대적 고임금은 우선 H사 노동운동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순응하던 완성차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이 19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활성화됨에 따라 급속한 임금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대중화에 따른 국내수요의 엄청난 증가와 수출시장 개방에 따른 대량수출, 재벌지원 정부정책에 힘입어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H자동차의 노조는 강력한 대중 동원체계에 기초, H자동차 노동조합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고 민주노조 운동의 핵심 노조로 성장해왔다. 또한 H사 노조의 파업은 울산 지역경제 뿐 아니라 전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H기업 또한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인상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왔다.

대 공장 생산직 노동자들이 임금상승을 가능하게 한 데에는 가부장적 온정주의가 내포되어 있다. 임금인상의 내용과 동기의 중심에 ‘처자식을 먹여 살려

59) 이것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II장, IV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야 하는 생계부양자, 가장'으로서의 남성의 지위가 있는 것이다. 즉 남성 1인의 벌이로 가족 모두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가족임금' 모델은 남성을 가족 부양자로 위치 지우면서 다양한 여성의 노동을 비가시화 시켜내며 소수의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판받아왔다. H사를 포함한 노조는 남성노동자를 '생계 부양자'로, 부인과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위치 지으며 회사를 상대로 가족임금을 요구해왔고 그것이 수용되어 온 것이다.

2002년 H사 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준비하면서 H사 노조가 소속해 있는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⁶⁰⁾를 근거로 하고 있다. H사 노조가

60) 민주노총이 산정한 표준생계비는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문화생활을 하면서 건강하게 사는데 드는 비용'이다. 1996년 처음 제정되었고 5년이 지난 2001년도에 생계비모형을 전면 재조정해 산출했고 2002년도에도 작년 모형을 이용해 표준생계비를 산출하였다.

<표 6> 가구 규모별 비목별 표준생계비 (2001년 10월 23일 물가 기준, 단위: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식료품비	223,127	420,630	514,161	672,811
주거비	214,772	271,649	271,649	384,165
광열수도비	55,218	81,735	89,620	108,865
가구가사집기비	59,171	136,125	152,891	168,523
피복비	78,443	155,510	179,027	208,235
교육비	-	-	7,500	278,167
교통통신비	121,028	161,857	390,319	400,319
보건위생비	81,231	148,093	171,589	203,092
교양오락잡비	249,467	289,433	298,100	298,100
조세공과금	102,905	202,132	271,283	471,252
생계비 합계	1,185,362	1,867,164	2,346,139	3,193,529

주: 1인가구 - 남(26세) 또는 여(23세)

2인가구 - 가구주(29세), 배우자(26세)

3인가구 - 가구주(32세), 배우자(29세), 여아(2세)

4인가구 - 가구주(38세), 배우자(35세), 여아(8세, 초등학교생), 남아(6세, 유치원생)

(자료: 민주노총, 『2002년 임단협 투쟁방침』)

소속돼 있는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평균 부양가족수가 3.6인이기 때문에 3.6인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임금인상 요구안을 작성하고 있다. H사 노조가 요구해온 임금인상은 민주노총의 표준생계비 근거처럼 부인의 취업여부, 사회에서의 지위여부와 상관없이 부인들을 남성 노동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피부양자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을 가계의 책임자로 위치 지으며 ‘가족임금’을 요구해온 H사 노조의 전략은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통하여 어느 정도 관철시켜 왔다. 따라서 월평균 임금 100만원 이하인 비정규직이 74.7%라는 현실(민주노총, 2002) 속에서도 H사 생산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동종업종,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H사의 상대적 고임금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다. H기업의 급여체계를 살펴보면, 생산직 사원은 시급제⁶¹⁾, 사무직 사원⁶²⁾은 월급제로 급여체계가 나뉘어져 있다. 대부분의 생산직 노동자들은 시급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일명 잔업), 특근의 양에 따라 급여차이가 많이 나며 연공서열형으로 유지되고 있다.⁶³⁾ 따라서 시급제인 생산직 노동자들은 토요일의 철야특근과 일상적인 잔업으로 유지, 확장되는 급여체계를 갖게되고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경기의 특성 때문에 호황과 불황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게 된다. 자동차 경기 불황으로 잔업이나 특근이 없게 되면 생산직 노동자들의 급여는 평상시 임금의 60~70%밖에 되지 않는다.

상대적 고임금으로서 남성 1인의 벌이로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은 비 현금 형태로 주어지지만 소득증대의 의미가 있는 기업 복지제도로 보충되고 있다. H사는 사업장 내외에 각종 편의시설⁶⁴⁾을 실비로 운영하며 조합원

61) 물론 생산직 내에서도 월급제 급여체계인 사람이 있으나 전체 생산직의 5% 수준이다. 예를 들어, 생산직군 내 시급자는 23,034명이나 월급제는 1,383명뿐이다(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2), 「제 67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62) 사무직 사원은 전에 일반직과 사무직군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지금은 사무직군으로 통합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63) 과장급이상은 연봉제가 도입되어 실시 중이며 사무직 직원들은 월급제이기 때문에 동일직급, 동일근속이면 급여가 거의 동일하다.

을 포함한 가족이 동등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H사 ‘노동자’ 가족의 경제적 생활실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복지로는 자녀학자금 지원제도, 진료비 지원, 차량 할인(D/C) 및 무이자 할부판매 등의 복지 후생제도⁶⁵⁾가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도 주간 근무할 때는 점심과 저녁을, 야간 근무할 때는 야식을 제공받는 단체급식, 교통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운행과 연금제도 등은 현금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으나 H사 ‘노동자’ 가족으로 하여금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불가능해 보이는 가족임금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64) 각종 편의시설로는 (1)식당 (2)휴게실 (3)목욕탕 (4)세면장 (5)세탁소 (6)이·미용소 (7)의무실 (8)도서실 (9)실내·외 체육관 (10)하계 휴양소 (11)기숙사 (12)복지회관 (13)면회실 (14)사외연수원(훈련원) (15)주차장 (16)종합운동장 (17)산업보건센터 등이 있다 (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1), 『단체협약』).

65)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H사는 3년 이상 근무한 조합원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전 자녀(등록금의 100%), 대학교(전문대 포함)는 2자녀(매 1학기 등록금의 100%, 매 2학기 등록금의 50%)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진료비 지원: H사는 조합원 및 그 직계가족이 질병으로 병원진료시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입원진료시

의료보험급여 본인 부담금 정산후(본인 부담 보상금 포함)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을 한도로 한다.(1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서 10만원만 공제한다.)

2. 외래진료시

(1) 의료보험급여 정산 후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 중 본인은 전액, 가족은 반액을 지원한다. 단, 해당자 본인은 의료보험급여 본인 부담금이 정산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산보센터 진료자는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을 정산후 전액 지원한다.

차량 D/C 및 무이자 할부판매¹⁾: H사는 당사 생산차종 중 승용차 및 승합차(15인승 이하)를 구입하는 직원에 대해 무이자 할부(400만원, 할부기간은 12개월)제도를 적용하고 근속 년수별 차량을 D/C(3년미만은 8%에서 20년이상은 23%까지)해주고 있다.

* 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1), 『단체협약』 참고.

Ⅲ. 가정중심성의 형성과정: 가족관계

우리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라면서 결혼할 것으로 기대되고 실제로 매해 수 천명의 여성들이 행복한 가족의 꿈을 가지고 기꺼이 전형적인 가족생활을 시작하고 있다.⁶⁶⁾ 모든 사람들이 성인권을 획득하는 의미를 갖는 결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혼제도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와 동인은 어떤 지역에서 성장하여 어떤 가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적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은 결혼 전 생애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하고 보수적인 농촌지역에서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순 반복적이고 무미건조한 직장생활, 여전히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고 통제가 심한 가족관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에서 결혼관계로 들어오게 되었다.

본 장에서는 대부분 타지에서 결혼과 함께 울산으로 오게 된 여성들이 결혼 전 삶의 연장선상에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하여 가정중심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가족관계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 생계부양자 남편을 중심에 둔 부부관계

본 연구대상자들의 부부관계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 전 울산이 아닌 영남권에 살다가 소개를 통해 결혼하는 중매결혼의 형태를 띠며 연애결혼을 한 여성은 사례 2, 5, 14이다. 중매결혼이란 것은 중개자에 의해 제

66)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에게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이다(조주현, 1993: 11).

공되는 상대방의 집안환경, 학력, 직장, 재산의 정도 등 배우자의 조건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들이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을 당시 남편이 H 자동차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대기업 ‘H 자동차’라는 회사 이미지는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중매결혼이라는 것의 특성과 맞물려 이들의 결혼은 남성들에 의해 무척 서둘러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된다. 사례 15, 16은 맞선보고 두 달이 안돼서 10번도 채 만나지 않고 결혼을 하였고, 중매결혼을 한 나머지 여성들은 만남에서 결혼까지의 기간이 채 1년도 소요되지 않는다. 물론 중매로 만나게 되면 연애결혼 보다 빨리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 통념이지만 울산 H사 생산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 본지 한달 만에, 두 달만에 결혼했다는 것은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성들은 결혼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결혼과 함께 울산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같은 지역에서 두 남녀가 결혼할 경우에도 남성의 직장과 시집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결정하게 되며 집을 마련하는 것은 남성의 권한이라는 통념 하에 남성들의 의견이 지배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 가족에서 특징적인 점은 여성들이 결혼하기 한 두 달 전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모두 남성들의 직장이 있는 울산으로 이주해 온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남녀간의 배우자 선택동기로서의 ‘사랑’이라는 낭만적 외피를 두르고 있지 않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여성들 모두는 남편과 만나게 된 과정과 현재까지의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 또한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여성들은 그것을 경상도 남자의 ‘무뚝뚝함’으로 설명하고 이해하였다. 결혼 전 ‘집-회사 집-회사를 반복하는 재미없는 삶에서 벗어나 결혼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던’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퇴사하여 울산으로 이주하였다는 점은 노동을 해야만 가족과 자신의 생계가 영위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남편을 통해 얻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여성

들이 울산으로 이주하여 시작하는 결혼 초기의 생활과 어려움, 부부간에 겪게 되는 갈등과 협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불안한 결혼 초기

결혼 초기에는 부부가 가장 많은 변화를 갖기 때문에 부부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다. 결혼 초기의 부부는 서로를 잘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 있으며, 자신들이 선택한 목표에 공동 참여하여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적응의 시기에 있다(옥선화, 1990). 이러한 신혼 초 부부적응과 갈등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으며 세대와 계층,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이 여성들의 신혼생활은 다른 지역, 계층 여성들과는 다른 적응의 과제를 안고 있기에 더욱 역동적이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평일에는 귀가시간이 있으니깐 무조건 회사 마치면 가야되고 토요일에는 보통 9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평일에도 회사 마치면 집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평일에는 우리 신랑하고 못 만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는데 토요일에 9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 회사가 5시에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부산에 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서 한 8시쯤 만나면 난 9시에 들어가야 되지. (중략) 진짜 우리 신랑이랑 연애할 때는 우리 신랑이 말 많이 하고 나면 나는 대답만 하고 “네” 이렇게 묻는 말에 대답만 하고 그랬는데 남자들 그렇다고 그러대. 연애할 때는 말 많이 하면서 재미있게 해 주고 그러다가 결혼만 하면 집에 오면 말을 별로 안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신랑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기라. 나는 아는 사람도 없는데...

<사례 2>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 전에 몰랐던 점들에 대해 알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적응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따른다. 또한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하기 전과 비교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어느 계층의 부부에게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 여성들의 부부적응 문제는 다른

지역, 계층의 여성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발생된다. 사례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울산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는 울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현재의 남편과 교제를 시작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하기 한달 전까지 자신의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현재의 남편들은 당시 울산 시 H사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개로 만난 후 교제는 주로 남성들이 주말에 사례 여성의 집이나 직장근처에 와서 만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현재의 남편을 소개받아 결혼하기 전까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주말로 제한되는 데다가 엄격한 통행금지 시간이라는 규율이 적용되었던 가족구조 하에 있었던 사례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현재의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알고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다. 더구나 남성들에 의해 서둘러진 결혼⁶⁷⁾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면서 상호 이해나 정서적 친밀감을 가질 기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혼 초 남편과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20년 넘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남편에 대한 적응과 함께 낯선 타지, 교대제에 대한 적응이라는 3중의 맥락은 이 여성들의 신혼생활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사례 16은 교제기간에 서로 공유조차 되지 않은 남편의 근무형태로 인한 신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아니 그러니까 야간을 자기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신혼여행 딱 갔다 오니까

67) H사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결혼을 서두르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남성노동력에 대한 자본의 착취는 가정에서 남성 노동자의 노동력을 재생산시키는 전업주부를 가정한 채 이루어지고 있다. H사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주/야간이란 근무형태는 남성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노동력을 심하게 마모시켜 피로감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남성들은 힘든 노동현장에서 돌아와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책임질 여성들을 찾는데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혼자에 대한 각종 세금 우대 정책 등도 결혼을 간접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둘째는 H사의 기혼자 중심(커플) 문화이다. 연구자 역시 남편과 결혼하기 전 직장 야유회 때 꼭 내려와야 한다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일요일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울산에 내려갔던 기억이 있다. 대부분 기혼남성들은 가족들을 동반하여 왔고 미혼 남성들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야 했으며 만약 파트너 없이 혼자 오는 남성들은 별금을 내야만 했다. 이런 식의 커플문화는 기혼 남성노동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일하는 미혼 남성노동자들로 하여금 사귀는 여성 한 명 없이 혼자 생활하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여기게 하여 결혼을 서두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울산에 와서 짐을 풀었죠. 짐을 딱 풀고 나니까 저녁에 출근한대요. 출근을 왜 저녁에 하나요 했더니 저녁에 가야 된대요.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왜 못가게 하나요. 아니 밤에 일하는 곳도 있냐고 했더니(웃음) “야간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그 날 짐 풀고 출근을 해 버린 거예요. 첫 출근을. 너무 이상한거라. 그날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안자고 앉아 있었죠. 아니 울산이 어딘 줄도 모르고 지도상으로도 한번 본적이 없는 거라요. 아 H자동차가 울산에 있구나 라는 걸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알았는데 위치적으로 어딜가야 울산이 나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여기 울산에 띄어 팽기치고는 출근을 한다길래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있는데 내가 꼬박꼬박 졸았겠지 내가. 눈이 벌겍게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 뭐 놔 놓고 간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말도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밥을 먹고 나니까 그 날 가면서 내일 아침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언제 오냐고 하니까 양정동에 사니까 8시에 퇴근을 하면 8시 5분되면 집에 들어 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밥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밥은 또 해놔어요. 밥은 해놓고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밥상을 내놓고 들어오니깐 코 골고 막 자는 거예요(웃음). (중략) 아 내가 너무 깊이 안 알아보고 결혼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는 결혼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주야간이란 걸 “주야합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작고 빠른 목소리로) 주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례 16>

선 본지 두 달 동안 여덟 번 만나고 결혼한 사례 16은 급하게 진행된 교제 기간 동안 남편이 주야간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한 이해조차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다. 결국 신혼여행 갔다와서 짐 풀기가 무섭게 저녁에 출근하는 남편의 근무형태를 보며 “내가 너무 깊이 안 알아보고 결혼을 했구나”라는 후회까지 하게 된다. 이 외에도 사례 여성들은 낯선 타지에서 남편이 야간 노동을 간 후의 외로움과 무서움을 이야기하였다.

신랑이랑 살아보니까 신랑 야간 하러 나가면 정말 무섭더라고. 뭐 아파트같이 문을 잠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고리 하나 달랑 해서 밖에서 문도 다

열리고. 또 2층이니까 바람도 많이 불면 문이 막 열려. 진짜 무서워서 많이 울고. 생전 처음 와본 곳에 내 혼자 있으니까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안 자고 기다리고 있고 많이 그랬어요. <사례 3>

신혼 때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보다는 주택 전세에서 시작하게 된다. 시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례 5, 8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은 신혼 때부터 두 부부만 함께 살았다. 사례 3은 “문고리 하나 달랑 해서 밖에서 문도 다 열리는” 주택이라는 주거환경과 신랑의 야간근무, 외지의 낯선 환경이 결합한 신혼생활의 불안함을 이야기하였다. 같은 고향 출신인 남편과 6년에 걸친 연애 끝에 결혼한 사례 2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지하나 밍고 여기까지 왔다가”가 막상 낯선 타지에서의 신혼 삶을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더군다나 사례 여성들은 결혼 전에 부산 공장 기숙사에 기거하였던 사례 6을 제외하고는 결혼 전까지 언니 집이나 부모님의 집에서 생활했었다. 따라서 갑자기 남편이 야간노동을 하러 밤에 출근하고 들어가서 혼자 밤을 지내야 했던 경험은 이 여성들에게 새롭다기보다는 낯선 두려움을 동반하였던 것이다. 사례 16은 ‘결혼생활 9년 동안 살면서 처음 울산에 내려왔을 때 타지고 해서 친구도 없고 외로워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말고는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여성들에게 결혼 초기의 어려움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외롭고 힘들며 불안한 결혼초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빨리 안정을 찾고 외로움을 상쇄시킬만한 대안을 찾게 만들며 그 대안이 만들어졌을 경우의 상대적 만족감은 다른 지역, 계층 여성들보다 더 커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2. 전업주부직(housewifery)에 대한 협상

가정이 거칠고 삭막한 바깥 세계와 대비되는 따뜻하고 애정이 깃든 장소로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가정에 대한 신화는 가정을 지키고 보살피는 자로서의 ‘전업주부’가 존재하면서 성립된다. 기존 노동자 가족에서 보여졌던 맞벌

이 가족이 본 연구대상의 가족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은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있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있게 되는 것은 결혼 전 삶의 맥락과 공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 남성들의 근로 조건과 작업장 문화 등과 관련하여 남성들과 협상하게 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혼 전에 힘들게 살아온 연구 대상자들은 ‘결혼해서 이제는 쉬고 싶었다’라는 말을 통하여 H사에 다니는 현재의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전업주부직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혼 초기 남편하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외로운 삶에서 변화를 시도한다.

울산에 와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다녔어요. 한 몇 달밖에 못 다녔어요. 그것도 못 다니게 해가지고. [왜요?] 처음에는 신랑이 억수로 잘 하더라구요. 그때는 자기 회사에 별로 안 바쁘니까 맨날 일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오면 자기가 맨날 먼저 와 있는 거예요(웃음). 갔다오면 밥도 하고 찌개도 끓여놓고 한 달은 그렇게 하더니 한달 지나고 나니까 자기도 싫은지 맨날 여자가 없으니까 남자들은 불꺼진 방에 먼저 오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일부러 더 늦게 오는 거예요. 맨 날 술 먹고 오고. 그때는 연말이라서 술 먹고 올 날이 더 많죠.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나중엔 외박까지 하고 그라는 거라 안 들어오고. 망년회하고 자기 혼자. 자기는 싫은 거라. 조금 벌어도(웃음). 그걸로 살자, 나가지 말라면서 그래가지고 세 달인가 네 달 다니고 못 다녔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니 못 벌어 먹이겠냐면서(웃음). <사례 8>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공업도시에서 어렵게 직장을 구한 사례 8의 남편은 신혼 초에는 맞벌이하는 부인을 위해 일찍 와서 밥도 하고 찌개도 끓여놓으며 기꺼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의 적극적인 저항이 시작된다. 사례 8은 외박까지 불사하는 남편의 강렬한 저항과 압력에 경제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에서는 남편이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데에서 생기는 경제적 궁핍 때문에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경애, 1999). 따라서 H사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부인의 경제활동 금지에 대한 강한 압력은 자신의 임금으로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는 물질 기반, 즉 “내가 니 못 벌어 먹이겠냐”는 생계 부양자로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H사 노동자들이 부인의 경제활동을 반대하는 언설은 다양하다.

저는 인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든 직장이든 뭐든 하고 싶었거든요. 신랑이 싫어해요. 우리 신랑은 그게 싫은 기라.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회사를 갔다 와도 문을 자기가 안 따고 들어와요. 그냥 문을 똑똑 두드려요. 제가 열어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아침밥을 안해줘서 짜증내고 그런다기 보다는, 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자기는 회사 갔다왔을 때 집에 누가 없으면 기운이 없대요. 누군가가 마누라나 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 이 생각으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는데 누군가 반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기라. 그래야 자기가 노동하고 왔으니까 피로가 풀리는 가정으로 돌아오고 싶대요. <사례 11>

남편이 노동운동하고 있는 사례 7도 절대 자신이 직접 문을 열지 않기에 열쇠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면 사례 11과 거의 흡사한 이야기를 하였다. 연구자는 회사에서 퇴근하여 현관문을 본인이 직접 열지 않고 부인이 직접 열어줘야 들어온다는 남성들 이야기는 울산에서 처음 접했다. 사례 7과 사례 11은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귀찮다거나 불만을 갖기보다는 외롭게 보낸 남편의 성장배경에 대해 공감하고 힘든 육체노동을 하고 집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언설을 압력이라기 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존재근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남편과 타협하고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사례 7의 남편은 민주파 현장조직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하고 있으며 사례 11의 남편은 특정 현장조직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서울에서 각종 노동관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올라갈 정도로 열성 조합원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사례 7, 11의 남편들은 98년 고용안정 투쟁 때 1년 6개월 무급휴직을 받았었다.⁶⁸⁾ ‘진보’를 표방하는 노동운동 내의 가부장성은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자본의 착취에 대항한 노

동운동을 하는 남성들 역시 여성이 가정에서 만들어 가는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여 가정 안에서는 또 다른 권위를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16 남편의 경제활동 금지에 대한 언설은 며느리의 의무와 연결된다.

[결혼하고 여기 오셔서 직장생활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나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가 못하게 했어요. [왜요?] 우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여자가 직장생활을 하면 시댁에 소홀해 진다고 싫대요. 딱 그게 싫대요. 자기는 그게 싫대요. 여자들이 돈 번다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댁에 두 번 갈까 한번 가게 되고 돈으로 때우고 그런 게 싫대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거는 뭐든지 다 싫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쇼핑하는 정도. 그런 거는 내가 혼자 있으면 우울해 하고 그런걸 아니까 그런 거는 용납을 하는데 돈벌러 가면 시댁에 못 한다는 거. 만인데 소홀하면 안 된다.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 사람도 그런대요. 아줌마들이 돈을 벌면 시댁에 소홀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좀 알뜰하게 살아 주라 그리고 돈 벌러 가지마. <사례 16>

말며느리인 사례 16의 시집은 일년에 명절 제사 두개까지 합쳐서 13개이며 효자인 현재의 남편은 부인의 경제활동 금지에 대한 언설을 시집에 대한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연결시킨다. 선불 때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안(家)에 충실한 여성임을 검증하려고 시도했던⁶⁹⁾ 사례 16의 남편은 결혼하고 울산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던 사례 16에 대해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활동 하지 말 것을 권한다. 사례 16의 남편은 부인의 직장생활

68) H사 98년 고용안정투쟁 당시 정리해고 되거나 무급휴직 받은 인원들 중에는 현장활동을 열심히 했던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었었다.

69) “우리 아저씨가 선불 때 대뜸 노는거 좋아하냐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노는게 어떤 거냐고 했죠. 나는 어디가서 직장 다닐 때 일요일 되면 도시락 싸 가지고 시외버스 타고 나가서 놀고 이렇게는 해봤거든요. 그런 노는걸 이야기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밤에 나이트 가서 춤추는걸 좋아하느냐, 뭐 이런거. 사람 만나서 나가는걸 좋아하느냐, 앉아있는걸 좋아하느냐 뭐 이런걸 슬쩍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왜 물어보냐고 했더니 울산에는 바람난 여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물어본게 야간 가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하더라구요. 뭐 이런걸 슬쩍 물어보길래 그래서 아니다 카니까 자기는 잘 됐다고 생각했대요. 아 이 사람이구나.” <사례 16>

을 반대하는 근거를 ‘반 사람’, 즉 집단적으로 노동하는 작업장의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끌어오고 있다.

저는 일하러 다니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우리애기 아빠가 반대하거든요. (중략) 일단 잘해주든 못해주든 애들한테 엄마손이 필요할 때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구요?] 일단 동의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끔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같으면 돈벌러 당장 나가야겠다면서 그라고 네 맘대로 하라면서 그러거든요. 그때 외에는 제가 돈을 맞아서 살면 되니까... <사례 10>

지친 삶의 휴식처로서, 전업주부직에 관한 꿈을 안고 결혼하여 울산으로 온 여성들은 살면서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된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끝에 작은 회사라도 들어간 사례 2를 제외하고는 막연한 기대이다. 울산에 와서도 직장생활을 했었던 사례 18은 결혼(1994년) 전 만해도 전문 기술직의 형태를 띠었던 오퍼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울산에서 오퍼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회사를 결혼 전에 소개받고 첫 아이 출산 전까지 다녔다. 이처럼 출산 전까지 직장생활을 잠시 한 사례 2와 18을 제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막연한 시도는 아내, 며느리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남성들의 언설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의 육체노동자 가족생활을 연구한 Komarovsky(1972)는 남편이 부인의 경제활동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 동료들과 어울리게 될지 모르는데서 오는 남편의 질투심, 그의 권력실추에 대한 불안감 등을 지적한다. 김경애(1999)는 남성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반대하는 요인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라고 분석하여 Komarovsky가 지적한 남편의 질투심을 한국적 맥락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H사 남성들은 왜 아내,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의 역할만 인정하며 경제활동에 관한 노골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공업도시에서 그들이 펴뜨리고 민감해하는 불안감의 근거에는 야간 근무

때 집을 비우게 되는 현실이 존재한다. 울산지역에 살다보면 자주 듣게되는 이야기가 남편이 야간노동 가고 집에 없을 때 발생하는 에피소드들이다. 그 내용은 남편이 야간노동 갔다가 조퇴하고 집에 들어오니 부인이 애들 재워놓고 나이트에 가고 없더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야간근무를 갔다가 불시에 들어온 집에 회사 상사가 집에 와 있더라, 노래방에서 뽀뽀아줌마를 불렀더니 부인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하다. 최근에는 모 나이트 클럽에서 “H사 모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남편들이 조기 퇴근하니 빨리 집에 가십시오”라는 방송이 나오자마자 남편이 H자동차에 근무하는 아주머니들이 다 빠져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H사 남성노동자들인 보조사례 3, 4를 인터뷰하면서도 어김없이 나왔다.

그 에피소드들의 진위여부를 떠나 남성들은 여성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넓히게 되는 인간 관계망이 자신의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에 매우 민감해 있다. 사례 16의 남편은 선 본 첫 날 ‘밤에 나이트 가서 노는걸 좋아하느냐’를 물어보고 아니라고 했더니 ‘아 이 사람이구나’라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들 정도로 야간근무 때 출근하고 밤에 집에 없다는 조건에 예민해져 있다. 이것도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김경애(1999)가 지적한 대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이며 야간근무와 맞물려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반감은 집단적인 남성들의 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H사 작업장의 문화는 거의 대부분 남성들로만 구성돼 있어 흡사 군대조직을 방불케 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이 1차 적으로 성적인 시선을 보내는 여성은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다. 그러나 미혼 여성들이 드문 공업도시 울산에서 소수의 여성노동자들⁷⁰⁾과 그들이 작업장 내에서 만나는 ‘일하는’ 기혼 여성들⁷¹⁾은 자신들과 동등한 노동자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서의

70) 생산현장에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여성들은 70, 80년대에 입사한 여성들이거나 98년 고용안정 투쟁 때 집단적으로 정리해고 뒀다가 2000년도에 현장으로 복직한 (전) 식당 여성 조합원이거나 하청 여성노동자들이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전체 남성노동자들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를 구성하고 있다.

71) H사에는 자사 직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된다. 그러나 각종 보험을 권유하는 기혼 여

여성으로 의미화되며 그런 시선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며 확인하고 있다.

여자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대우를 받는대요. 근데 전문적인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는데 자기는 내 와이프가 그런 취급받는 거 싫다고 일하는 자체를 싫어해요. <사례 10>

남성들이 부인 이외에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술집과 노래방 등의 놀이공간이고 노래방 ‘빠빠 아줌마’는 그들의 놀이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 남성 노동자들의 놀이 문화는 고스톱이나 ‘빠빠 아줌마’로 상징되는 노래방 문화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휴대폰이 보편화되지 않고 호출기(일명 빠빠)가 주요 통신수단이던 시절에 남성들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노래방 주인에게 부탁하여 흥을 돋울 여성을 빠빠로 호출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빠빠 아줌마’이다. 이는 H사 남성노동자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동료들하고 술 마시면서 어떻게 어울리세요?] 울산은 뭐냐하면, 노래방이 최초로 빠빠 아줌마! 처음 생겼고 일단 우리 울산에서 생겨서 그 영향으로 내가 듣기엔 구미에도 생겼다고 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이 주야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렇고 일단 우리가 술 먹으면 당연히 노래방에 가고 빠빠 아줌마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가죠. 울산에 다 있습니다! 없는데 없습니다! [대부분의 H사 직원들이 빠빠 아줌마를 불러서 노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죠 뭐. 그건 다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가고 보자, 일단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똑같죠 뭐 [거기서 아줌마들하고 어떻게 어울리세요?] 뭐 같이 노래 부르고 부루스도 치고 뭐 아직 자동차 앞에선 못 가봤는데 노래방 안에서 아줌마들이 훌쩍 벗고 논다고 하대요. 거기서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고 하고... <보조사례 3>

그들은 남성중심의 공업도시에서 기혼 여성들을 돈으로 사서 어울리고 직

성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몰래 들어와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남성들은 그 여성들에게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데이트 또는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제안하기도 한다.

장 동료들과 집단적으로 기혼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가정 밖으로 나온 기혼여성들은 남성들의 집단적인 성적 시선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례 10의 남편도 내 와이프가 ‘그런 취급’ 받는 거 싫다는 이유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와 모성이데올로기를 더욱 내면화하여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반대하는 논리는 호황국면에 원하면 주말에 지원할 수 있는 특근제도에 의하여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

사실 다시 직장을 갖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우리 큰 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아직은 어리니까 보내고 나면 돈이 많이 남는게 아니거든요. 그죠? 내 용돈하고 나면 이 삼십만원 남으니까. 이것 버느니 차라리 아저씨 특근 한 두 번 시키는 게 낫겠다(웃음). <사례 8>

공업도시 울산에서 기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그것은 저임금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가정내 책임으로 인해 시간제 일을 선호하게 된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시간제 노동자들은 50% 이상이 상근직이며 시간제 노동 프로그램과 보호입법에 의해 노동권이 보호받고 있다(김태홍, 1999). 그러나 한국의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받고 있지 못한데다가 보육시설의 미비로 인해 여성들이 시간제 노동으로 받는 임금⁷²⁾과 개별 탁아비용은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따라서 시간제 일을 선호했던 여성들은 ‘몇 시간 나가서 고생하느니 집에서 애 보는 게 돈 버는 거다’라는 의식을 형성하게 되고,⁷³⁾ 남성들이 높은 시급이 적용되

72) 현재 시간제는 금융업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혼 여성들의 시간제 진출은 유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이숙진, 2001)에 의하면 시간제 파트타임자들의 임금은 시간당 800~2700원이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해도 일당 21,600~22,400원이며, 한달 25일을 일한다면 56만원이다. 사례 여성들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5~6시간 가량 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달 25일을 일한 임금은 30만원 안팎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주말특근을 할 수 있는 노동조건은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들이 갖는 낮은 지위 및 저임금과 맞물려 사례 8처럼 “내 용돈하고 나면 이 삼십만원 남으니까 이것 버느니 차라리 아저씨 특근 한 두 번 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현실적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전업주부로 머물기를 원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어떻게 협상하게 되는 것일까? 이들은 가난하고 통제가 심한 가족관계와 무미건조한 직장생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방적인 의미의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

사실 나가서 일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속 깊은 내면으로 가서 솔직히 얘기하면(웃음) 일 하기 싫거든예. 왜냐하면 사실 아가씨 때 직장생활 하는 게 지겨워서 결혼하고 싶었던 면이 많았기 때문에... <사례 17>

여성들은 ‘결혼전 생애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하고 통제가 심한 가족에서 집-회사를 반복하는 지겨운 노동세계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에서 결혼과 전업주부에 대한 욕망을 키우게 된다. 더군다나 여성들은 결혼 전 오랫동안의 직장생활 경험을 통해 성별로 위계화된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들에게 열려있는 직종은 제한적이며, 울산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기혼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혼해서 울산에 가게 되시면서 울산에서 직장생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근데 여기 울산에는 여자들이 할게 없더라구요. 백화점 그

7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보면 1997년 현재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서 29.1%이었고, 그 다음은 호주 26.2%, 영국 23.1%, 노르웨이 21.2%, 일본 19.4%, 캐나다 19.0%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5.9%로서 시간제비율이 낮으며 여성의 시간제 비율도 9.9%로 상당히 낮은 순이다.” 김태홍(1999), “선진국의 시간제 고용형태 확산 유형과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모색”,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과 여성고용정책의 모색』,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개발원. 그러나 김태홍은 한국사회에서 시간제 비율이 낮고 여성의 시간제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있지 않다.

런데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아줌마들 취직할 수 있는데가 뭐 웅진 코웨이 코디 그런 거 밖에 없더라고. 아니면 부업 있잖아요? 밤 깎는 거, 마늘 깎는 거, 그러니까. <사례 3>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벌지 않으면 본인의 생계 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함께 어려워진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온 여성들에게 자신이 굳이 나가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남편의 벌이로 먹고 살 수 있는, 중간계급의 상징인 가정주부는 계층상승으로 의미화된다고(Kim, 1997).⁷⁴⁾ 따라서 여성들은 결혼 후 구직활동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막연히 경제활동에 대한 의사를 비쳤을 때 보여지는 남편의 반대에 직면해 여성 자신은 최선의 생존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된다. ‘남편의 월급으로도 아껴 쓰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한데 여성 일자리도 부족한 이 지역에서 굳이 힘들게 직업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가정주부직을 선택하여 아껴 쓰면서 남편과 갈등없이 살 것인가?’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사례 여성들은 생애적 배경에서 ‘나가면 고생인 일’을 하는 것 보다 가정주부직이 더 만족이 클 것이라고 판단하여 남편의 요구와 협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직에 대한 협상은 시급이 적용돼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남편이 주말에 특근을 할 수 있다는 조건, 남편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특근을 하면 받는 시급이 여성이 일주일 내내 시간제 일을 하여 버는 월급과 비슷하다는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 속에서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과 책임감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3. 일상적 부부 갈등과 상쇄되는 지점: 늘 안쓰러운 남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부간 갈등 원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74)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은 Kim의 연구대상자들처럼 결혼 전 직업이 생산직 노동자뿐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등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학력에 의해 위계와 성별 직종분리가 심화된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상고를 졸업한 여성들이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면서 형성된 결혼에 대한 의식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목은 주로 부부간의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배우자의 이해심 부족, 고부간의 갈등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 초기에 남편에 대한 적응, 주/야간 근무형태에 따른 적응, 낯선 타지에서의 적응이라는 3중의 적응을 겪은 후에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남편과의 갈등내용과 해소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우리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하루종일 있어도 경상도 남자 있죠? “아는? 밥 묵었나? 자자” 그건 신사예요. 우리 아저씨는 더 안해요. 우리 아저씨는 제가 “여보세요?”그러면 “(통명스러운 목소리로)왜!” “저 있잖아요” 그러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빨리 이야기 해”. 내가 이래이래 말을 하면 “응, 알았어” 내가 뭐라고 뭐라고 말을 하면 벌써 끊었어요. 나는 빈 전화기랑 이야기하고 있는거라. 그래가지고 이래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시댁에 갈 때도 명절 때 이거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말도 안해요. 그래가 아 안해도 되는가보다 하고 안 하고 있으면 가기 전 날 “다 샀나?” 한번 물어요. “대답 안 하길래 안 했는데”하면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웃 입어요. 그럼 따라 나서야 돼요. 사러! (중략) 십 년 동안 “다녀오세요” 하면 “응”소리 한번 안하고 가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가요. 말은 안해요. <사례 4>

제가 아저씨한테 한번씩 물어보거든. 자기는 요즘 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애들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 뭐 이런 방향을 제시해 보자. 이야기를 해보자 이라면 이야기를 안해. 대화를 안 할라고 해요. 그게 억수로 싫은데 싸워도 저 혼자 다다다다 하면서 이러다 말고. 저희 아저씨는 고작 말하는 게 고마해라, 됐다 이런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더 화가 나는 거라. 자기 때문에 뭣 때문에 화가 났는데도 풀 생각을 안하고 그냥 자꾸 묵혀 둘라고하는 거라. <사례 15>

사례가족에서의 부부간 갈등 원인은 남편과의 대화부족이나 ‘남편의 빼짐’으로 표현되거나 남성의 보수성에 기이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요약된다. H사 ‘노동자’ 가족에서는 다른 계층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경제적인 문제⁷⁵⁾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H사에서 정규직으

로 일하고 있는 남편의 상대적 고임금은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는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월급에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에 잠 안자고 돈 벌어오는 남편’에게 월급액을 놓고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행위는 이 지역에서 금기 시 되고 있다. 오히려 사례 17은 남편이 98년에 1년 6개월 무급휴직 받았을 때가 결혼기간 중 가장 부부 사이가 좋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남편의 근무형태도 부부갈등을 적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사 노동자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의 반은 친구나 동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귀가시간이 늦어서 빚어지는 부부간의 갈등⁷⁶⁾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기존 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간 갈등과 적응과정에 있어서 시부모와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이숙현, 1988; Komarovsky, 1965). 그러나 사례 여성들은 촌에서 농사짓는 시집과 떨어져 살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불거질 물리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 실제로 연구자는 서울에 사는 기혼 친구들로부터 자주 듣게되는 고부간의 불화로 인한 부부갈등을 울산에서는 거의 접하지 못했다. 실제로 사례 여성들로부터 시집문제가 부부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 한 사례는 3, 8뿐이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시집이 울산이라 가까이 살며 남편 모두 장남(사례 8은 외아들)이고 시부모(사례 8은 시어머니만 계심)가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달 상당한 액수의 생활비까지 부담하고 있는데서 고부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부부갈등의 유일한 원인⁷⁷⁾이 되고 있다.

75) 경제적인 문제는 보증문제나 최근 H사 현장에 만연해 있는 증권투자 등에 의한 많은 돈 탕진, 친정이나 시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금액을 보태야 할 경우 등에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76) 변화순(1992)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부 등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원인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 ‘성격 및 습관의 차이’가 107명(33.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녀 양육 및 교육’으로 95명(29.6%), ‘일, 친구로 귀가 시간이 늦는 문제’가 90명(28.0%)임을 보여준다. 특히 갈등의 정도에서 ‘잔소리’를 하는 비율이 높은 항목은 ‘일, 친구로 귀가시간이 늦음’이 57.8%, ‘성격 및 습관의 차이’가 47.7%, ‘담배와 술, 도박’이 39.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 동료와 어울리며 귀가시간이 늦는 문제도 부부간 갈등 원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노동자 계급 부부에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되며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선행연구(Komarovsky 1962; Klein 1965; 이숙현, 1988)들처럼 본 연구의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들도 남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 H사 ‘노동자’ 가족에게서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부각되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H사 ‘노동자’ 가족 내 부부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첫 번째 원인은 남녀간의 성별화된 생활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 가족의 배우자는 각각 집단적으로 성별화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은 거의 남성들만으로 구성된 작업장에서 집단적으로 일하고 있다. H사 남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의 특성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관심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12시간 동안 자신의 작업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⁷⁸⁾만을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이다.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은 그의 의식세계 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하루종일 단순 반복적인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단순한⁷⁹⁾ 사고체계를 형성하게

77) 2차 인터뷰의 주 내용은 부부관계와 회사 교육에 관한 것이었다. 2차 인터뷰 때문에 4월 22일 사례 3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례 3은 두 시간동안 1차 인터뷰 때 미처 듣지 못했던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흥분하여 이야기하였다. 사례 3은 “시댁이 가까이 있으니까 싸울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중략) 우리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다른 문제 가지고 싸운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남편) 입으로도 그러는데 오로지 시댁 때문에. 진짜 우리 진짜 안 싸워요. 사이도 좋고 애들 데리고 한번씩 이렇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 진짜..”라고 말하면서 시부모가 울산에 사는 데다가 시부모가 일 안하시고 장남인 남편에게 손 벌리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잠이 안 올 정도라며 시집 문제가 유일한 부부갈등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78) 보조사례 3과 4는 자신의 작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는 일단 범퍼 앞에 라지에타라고 있거든요. 그걸 볼트를 다섯 개 박고 다음에 스쿠루 있거든요. 이걸 쪼고! 이게 다입니다.” <보조사례 3> “내 작업은 타이어 서브에 쇼바라고 있거든요. 그거 쪼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그 작업을 하고 위에 꼽는 거 몇 개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 그걸 장착하는 거지,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보조사례 4>

79) 보조사례 4는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해 다음의 이야기를 한다.

“일이 힘들죠! 제 작업은 또 소음이 많이 나거든요. 제 작업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하면서 이걸 컨베어 타는 사람이 다 느끼는건데 참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생각을 넓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씩 느끼는 건 점점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게 아인테 이게 아인테 싶으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컨베어 타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내 생각이 이게 아일 수도 있는데 컨베어 때문에 이래

된다. 그리고 전업주부 여성들의 사회생활은 집단 거주지에서 여성들끼리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부부의 역할이 분리되며 부부 각자가 보내는 성별화된 공간은 그들의 정신세계의 분리로까지 이어지게 한다(살스비, 1985: 157).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육체노동에 대한 비하의식 때문에 남성노동자들은 부부간 대화에서 자신의 직업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과 관련한 주제를 더욱 꺼리게 된다.⁸⁰⁾

둘째는 집단문화의 가부장적 성격에서 기인한다. H사 남성들은 집단적으로 대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서 강한 친화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문화는 자본에 대항한 하위문화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여성을 비하하고 상품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실제로 집에 와서 부인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사례 4의 남편은 직장 동료가 부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가서 뽀빠아쭈마와 어울려 논다고 말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으며 동료로서의 여성들과 접촉하고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는 남성들은 여성을 인격체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여성들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되면서 여성을 비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지역적 특성이라고 알려진 영남권 남성들의 ‘무뚝뚝함⁸¹⁾’은 여성에 대한 편견, 내외(內外)의식에서 온 권위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성들은 부부간 일상적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지나친 남편의 보수성을 경험하며 부부관계의 단조로움을 겪는데서 더 나아가 남편의 무반응에 인격적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단순하게 자기 작업만 하니까 일단은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넓게 생각을 못하고.”

80) 사례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저씨는요 일단 집에 왔다 하면 회사 이야기는 셔터 문 내려요”라는 이야기이다. 사례 여성들은 회사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거나 남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예를 들어, 과로사 등)이 발생하면 궁금해 한다. 이럴 때 여성들은 남편 대신 이웃 간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게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IV. B. 집단 거주지에서 교대제 근무로 인해 구성되는 일상생활’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81) 무뚝뚝한 남편 때문에 갈등하는 여성들에 의하면 남편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남성들과는 이야기를 잘 한다고 말한다.

로 무시당한다는 모멸감을 느끼기도 한다. 여성들은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을 계속 겪어가며 남편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 차라리 대꾸 안 하는 게 더 편하다는 소극적인 적응(passive-congenial) 관계를 갖게 되기도 한다(사례 15). 그럼에도 사례 여성들은 남편과의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을 느끼기 위한 통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도한다.

우리 신랑은 사소한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자기 회사 사정이라든가 그런 거는... 그리고 제가 막 물어봐요. 워낙 자기가 그런데(회사 사정과 연관된 노동운동) 관심이 많으니까 하고. 이야기 하대. <사례 11>

나는 내가 많이 물어본다. 들어오면 내가 많이 묻는 편이야. 그래서 저그 아빠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 다 해주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말하는 거는 좀 드물지, 남자들은. 내가 옆에서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러면 대답 다 해주고. 씩 웃으면서 대답 다 해주고 그래하지. 꼬치꼬치 캐물으면 “됐다” 그라고. 뭐 그리 꼬치꼬치 알라고 그러노 그라고. 그래서 내가 말시키면 말 거의 다 하고 뭐. <사례 1>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인 사례 여성들은 남편과의 친밀감과 정서적 교류에 대한 욕구로 대화를 시도하다 벽에 부딪히면서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시도를 하기보다는 남편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선에서 먼저 바깥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 남편에게 대답을 얻는 과정을 통해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수위를 조절한다. 부인들은 남편에게서 “꼬치꼬치 캐묻는다”, “귀찮다”는 반응이 오면 적당한 수위에서 타협을 하여 대화를 중단하거나 다른 주제로 바꾸는 전략을 취한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은 때로는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며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소극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걸까?

서서 사람이 콘베어 타면서 화장실 갈 때도 말기고 가야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남자로 태어나서 진짜 자식새끼를 먹여 살려야된다는 이유로

화장실까지 맘대로 못 다니고 그죠? 일반 자동차도 편하게 일하는 사람은 편하게 일하는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힘들게 일하고... 솔직히 저는 그것도 속상해요. 저는 그래서 OO 아빠 집에 오면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사례 10>

신랑이 이거 오래 못한다고 하더라고. 야간 한다는 자체도 우리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야간을 안 하거든요. 자동차는 아니지만 경주에 계신데 그 회사에 야간이 있는데 안 해, 몸 축난다고. 나이차이는 두 살밖에 안 나는데. 그거 보면 지 몸 지가 아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간하고 야간하고 월급차이가 많으니까. 내 너희는 부자니까 너희는 월급을 많이 받는다고 항상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내가 그러잖아. 어머님 농사일을 시켜도 아주버님은 주간만 하잖아요. 야간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완전 죽는다고. 나는 나이 40 넘으면 야간 안 시킬꺼예요. 지금 40되기 전까지 몇 년만 고생해 가지고하는 거지 40 넘어서까지 야간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 전에는 어머님이 당신 자식이라도 그래 했는데도 몰랐는데 내가 야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어머님 일 시킬 것 있으면 죄송한데 아주버님 시키세요 막 그러거든요. 내 신랑 내가 아껴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머님 요즘엔 약 먹는데도 피곤해 하구요. 까칠해져서 야간만 하면 얼마나 까칠한데요. 우리 어머님 처음에는 그거하더니 요즘에는 그래 야야 맞다 야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낮에 자는 잠은 잠도 아니다, 막 그래요. 남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사례 17>

사례 10의 남편은 직접 생산라인(컨베어 조립라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화장실까지 맘대로 못 다니는’ 남편의 노동형태에 대해 한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호소하였다. 연구자와 이웃에 사는 사례 10은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남편에 대한 걱정과 어떻게 해서든지 컨베어 안 타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곤 했다.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남편을 보며 “속았구나”라며 배신감을 느끼고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피곤하다며 거부하는 남편과 갈등을 느끼는 사례 17도 농사일을 시켜도 야간 안 하는 아주버님에게 시키라고 시어머니께 당당하게 요구한다. 사례 17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것저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였

으나 그것을 거부하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무
화시킨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사례 17의 남편이 1998년 고용안정 투쟁 때 공
장점거 농성에 결합하였었고 사례 17 또한 파업지지를 위해 공장을 방문하였
을 때이다. 남편이 힘들게 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만 인식하고 있었던 사례
17은 파업 때 공장에 들어가서 “완전히 앓을 자리도 없고 서서 일하는” 작업
장을 보고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 후로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이것 좀 해줬
으면...”하는 작은 요구자체도 하지 않게 된다. 사례 17은 막연하게 힘들겠지
라고 느꼈다가 직접 남편이 일하는 작업장을 직접 보고 눈물까지 쏟게 되면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식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며 되도록 남편에게 피곤한 요구를 줄이게 된다.

물론 우리 아저씨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내 나름
대로 우리 아저씨한테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그전부터 가지고 있고 조금씩
고치고 있거든요,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새벽잠이 많아서 우리 아저씨를 못
깨워 회사를 못 보낸 적이 세 번 정도 있어요(웃음). 여기 이사 와 가지고.
그걸 또 우리 아저씨는 날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밥도 못해서 우리 아저씨가 또 초코파이 같은걸 좋아하거든
요. 그냥 밥 없으면 초코파이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챙겨주면 챙겨주는 대
로 먹는 사람이에요. 초코파이 먹고 우유 먹고 가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신
랑 잘 만났다면서 누가 아침에 초코파이 먹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주위에서 엄마들도 나는 애기아빠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냐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면 (천연덕스러운 목소리로) “자기가 좋아해” 그랬는데 요즘에 교육
받으면서 이러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7시에 일어나
서 딱 밥 차려주고 그라니까 (코맹맹이 소리로) “자기야 나 변했지?” 다시 아
침밥도 챙겨주고 이라니까 “조금 부지런해졌다, 좋다” 그라더라구요. 옛날에
는 아침에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서 밥만 차려주고 다시 들어가자고 그랬었
거든요. 그런데 이젠 변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머리 빗고 양치질도 해서 밥 해주고 그러면 좋아하더라구요. <보조사례 7>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에 초점이 맞춰진 ‘행복한 가

정 만들기 I'을 수강한 후 보조사례 7은 그 전에는 가끔 늦게 일어나 남편에게 밥 대신 초코파이와 우유를 먹여서 보내거나 밥만 차려주고 다시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⁸²⁾ 사례 7은 인터뷰 당시 둘째 자녀를 임신한 상태여서 피곤하고 교육을 받느라 긴장해서 더 늦게 일어날 법도 하지만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양치질도 해서 밥 해주고' 남편을 기쁘게 해주면서 이 교육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퇴근 후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의미부여하고 있고 남편과의 적극적인 갈등표출을 자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회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남편에게 향했던 불만의 원인을 여성자신에게 돌리게 하면서 아내로서 내조방식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사례 여성들의 부부간 소극적 갈등해소 방식은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 이외에 갈등을 상쇄시키는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도 가능하다. 그것은 다른 아닌 동질적인 집단 거주지에서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 여성들간의 네트워크이다. "오전에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아줌마들이랑 차 마시고 수다 떨면서 다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 이웃 간 네트워크는 부부간 갈등을 완화시키는 완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여성들은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편들과 전면전을 시도하기보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남편의 반응을 살피며 수위를 조절하고 타협하는 것이다.

이처럼 일주일 간격으로 주/야간 근무를 하며 육체노동을 하는 남편에 대한 부인들의 배려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되도록 잔소리를 안하고', '집안 일을 요구하지 않으며', '밥 챙겨주는' 행위로 표현된다. 특히 남편에게 밥 챙겨주는 것은 힘든 일 하는 남편의 부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의미화되고 있

82) 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I'에 참가하여 남편과 자녀와의 원활한 대화법에 대해 강의들은 후 그 동안 소홀했던 남편의 '식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하는 여성의 이야기는 흥미롭다. 부부간 공유할 사회활동이나 취미가 없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는 이 '노동자' 가족 내 부부관계에는 '식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 강한 근력을 필요로 하는, ‘밥심(힘)’으로 일한다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밥’은 생존과도 연결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 더구나 근무시간 내 바깥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지정된 자신의 작업위치에서 감독자의 통제 하에⁸³⁾ 일을 해야 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사무직 노동자들처럼⁸⁴⁾ 다소 유연하게 자신의 업무를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노동자 부인들의 가사노동과 내조에는 ‘남편들의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연구자는 아줌마들과 함께 어울리며 “오늘 남편 뭐 먹고 출근했나?”, “뭐 먹어서 출근시키니까 뿌듯하더라”라는 일상적 대화를 많이 듣고 나누었다. 따라서 주간근무 때 밥 못 먹고 나온 남성들을 지켜보는 집단적인 남성은 거기에 대한 질타를 쏟아낸다.

집단적으로 일하는 남성 사업장에서 기혼 남성노동자가 아침밥을 못 먹고 왔다는 사실은 여성에 대한 질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병신같은 남자’(사례 17)로 의미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그런 질타를 들으며 자칫하면 자신의 남편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까 싶어 아침밥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주간근무인 주에는 자신이 만식이 되었어도 새벽에 일어나 라면이라도 끓여 먹여 보내는 것이 의무로 부과되는 것이다. 사례 여성들 중 주간근무 때 남편의 아침식사를 가끔 챙겨주지 않거나 간단한 빵이나 떡, 선식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들은 남편을 향한 애정, 안쓰러움을 언어적 형태나 물건(선물)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화이트 칼라

83) H사 작업장에서는 통상 10명내외의 조원을 조장이 감독하고, 20~40명의 조원과 조장 3~4명을 반장이 감독하며, 반장 3~4명과 80여명의 노동자를 기사가 감독한다. 기사나 주임은 라인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으나 조반장은 현장 노동자를 감독하면서 같이 일하며 반장이 현장 관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나가야할 경우에는 반장을 통하여 외출이나 조퇴처리를 해야하고 경비실을 경유하여 출입증의 바코드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시급제’라는 급여형태에 입각하여 바깥에 나가 있었던 시간만큼 급여가 깎이게 된다.

84)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빌딩 근처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사우나와 해장국 집’이다. 사무실 노동자들도 상사의 감독 하에서 일을 하지만 생산직 노동자와는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처리하고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전날 과음을 하고 빈 속에 출근을 했다 하더라도 사우나를 하거나 근처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에서 남편에 대한 내조에는 넥타이나 와이셔츠, 양복 등의 의복을 구입하고 매일매일 바꿔 입는 외출복을 깔끔하게 다려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행위로 포함될 수 있으나 일주일 내내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노동자 가족에서 남편에 대한 내조는 ‘밥 차려주기’로 표현되며 그 ‘밥’은 행복한 가정과 직결되는 의미체계를 갖는다.

Devault(1991)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 먹는 것을 준비하는 행위가 어떻게 가족을 구성하게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가족 구성원은 동일한 이해관계와 욕구를 갖는다는 가족에 대한 지배적 가치와 현실 속의 가족은 일치되지 않고 늘 불안정하다. 그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속에서 확인된다. 가족 성원의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가족임을 확인하는 성숙한 의례이자 커뮤니케이션의 한 수단인 것이다. 남편과의 정서적 교감에 한계를 느끼고 그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들은 체력 소모가 큰 노동에 종사하는 남편의 식성에 민감해지며 매끼 식사를 챙겨주는 행위를 통해 ‘한 부부’ ‘한 가족’이란 것을 확인하고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 가족 내에서 남편의 식사와 보약을 챙겨주는 것은 단지 먹는 것을 준비하는 행위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부부관계를 확인하는 의례이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여성들은 남편의 식성과 요구에 더욱 민감해지는 과정을 통해 더욱 성별화(gendered) 되어 간다.⁸⁵⁾

85) 여성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는 여성들만 성별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또한 성별화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가족원(타인)의 식성과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식사준비노동을 보며 자라는 자녀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각종 노동은 당연히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굳히게 된다.

4. 경제위기 경험 후 강화되는 남편에 대한 내조

IMF이후 가족 대책위원회(일명 ‘가대위’)까지 꾸려져 남편들과 함께 격렬하게 싸우며 98년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H사 고용안정투쟁은 5차례의 희망퇴직 모집과 36일에 걸친 공장 점거 농성 파업 끝에 희망퇴직 8,000여명, 정리해고 277명, 무급휴직 약 2,000명 등 1만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 조정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H사의 고용안정 투쟁이 진행된 이후인 99년부터 최근까지 H사는 창사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난해 1조 1,600억 원(정몽준, 2002)에 이어 올해 1분기(5,800원)에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⁸⁶⁾ 그만큼 일거리가 많아진 것이다. 많아진 일거리는 정상근무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잔업뿐 아니라 주말의 철야특근도 늘어나게 됐음을 의미한다. 노동운동하는 사례 7의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례 여성들의 남편은 한 달에 평균 2개 이상의 주말 특근을 하고 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웃음) 안하니까. 저번 달에는 특근을 두 번 했나? 특근을 한 개나 두 개나 하면 애들 학원비는 떨어지니까 그것만해도 뭐... 우리 신랑이 요즘엔 열심히 하니까. <사례 3>

사례 여성들의 남편은 자동차 경기 호황을 틈타 일거리가 많아지자 주말에 철야특근을 강행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주말에 철야 특근을 한번 하게 되면 평균 15만원의 특근수당이 생기며 특근을 두 세 개정도 하면 평균 임금에 비해 40~5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H사 ‘노동자’ 가족 간의 빈부 차는 특근 양과, 드물지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2의 남편은 신혼 때부터 현재까지 쉬지 않고 주말 특근을 계속해서 연구자가 방문한 집 중 가장 빨리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남편이 평소 특근을 하지 않았고 98년도에 1년 동안

86) 조선일보, “H차의 위기 不感症(기자수첩)”, 2002년 6월 8일자.

무급휴직을 받은 사례 7의 집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성들이 철야특근을 강행하는 것은 H사에 대한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별 수 있을 때 확실히 별자’⁸⁷⁾라는 의식과 불안함에서 기인한다.

우리 아저씨는 여기를 평생직장이라고 생각 안해요. [왜요?] 평생직장이라고 하기에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98년도에 사람들 직장 떠나는 거 보고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죠?
<사례 2>

98년도에 경제적 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남성들은 H사에 대한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고 있다. 또다시 경제위기상황이 와서 일거리가 줄어들거나 어떤 일이 닥치면 이번엔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동차 경기 호황일 때 무리를 해서라도 ‘잘리기 전에 확실히 별자’라는 의식이 확산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편들이 더욱 노동에 몰입하여 철야특근을 강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안감을 느낀다. 가뜩이나 주/야간 노동이 남성들의 생명을 앗아먹고 있다는 걱정은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과 과로로 쓰러져 나가는 직장동료들⁸⁸⁾을 보면서 더욱 가중되어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H사에서 발생한 과로사 사건은 한동안 아줌마들의 화두였다. 연구자는 건강상 이유로 사우나 시설이 갖춰있는 문화회관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였는데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과로사 사건에 대해 나누며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이처럼 과로사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로’의 문제는 남성 노동자 개인의 문제에서 “여성들 모두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가족내 여성의 일로 이전된다. 결국 여성들은 남성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지며 가사노동과 가정경제를 꾸

87) 이 표현은 고동우(2001)에 의해 사용되었다. 고동우(2001), “울산은 노동운동을 배반하는가”, 월간『말』 지 12월호.

88) 최근 H사에 만연한 주말철야특근으로 인해 2002년 1월~3월 두달 사이에 울산공장 생산직 노동자 6명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려나가는데 있어 생계부양자인 남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게 된다.

요즘 내 특근하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하니까 몸이 틀리대. 야간 때자고 일어나도 안 개운하대. 그 말 듣고 신경이 쓰이더라고. 이젠 한 살 더 먹으니까 체력이 안 따라주나보다 싶어서 보약지어줬다 아이가. 자기도 먹더라고. 그래서 보약을 일년에 두 번은 해줄라고 그란다. 전에는 일년에 한번씩만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애들하고 다 지어 먹었어. [OO 엄마는요?] 나는 나중에 먹는다 했어. 돈이 없으니까 내까지는 못 먹겠는기라. (중략) 요즘엔 야채도 사 와 가지고 한번씩 갈아주고. 한번씩 당근 같은 거, 야채도 갈아주고. 또 우리 어머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 <사례 1>

아니 나는 그럴더라고. 아저씨 주말에 일 가고 나면 아저씨는 없으니까 항상 일을 잘 가니까 제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으니까 동생네 식구랑 어디 놀러가서 바람쐐려 갔다오면 아저씨는 자기가 못 데려가서 미안케 생각하는 데 나는 아니더라고. 자기는 일 하는데 내는 애들 데리고 가서 바람쐐고 오면 미안하더라고. 나만 놀러 갔다온 것 같고. 내만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같고 그럴더라고. 나는 내가 미안코. 웬지 모르게 애껴 진다니까. 하나 사고 싶어도 어휴, 일요일에도 못 쉬고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싶어서 자제가 되지. 그래되지. 애들 과자 이런거 는 크게 낭비는 아니니까. 그래 뭐 자자브리하게 써도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아저씨는 한번씩 그러더라고. “아이고 돈은 이래 벌었는데 남는 건 없다”. 들어가는 거 알지만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또 괜히 미안더라고. 그래 힘들게 버는데 나는 집에서 쓰기만 하고 있나 싶고 (웃음). [그래도 OOO 엄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의 돈 안 쓰시죠?] 그럼! 그러니까 먹는 거 빼고는 안 쓰지. <사례 6>

H사의 단체협약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42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근무시간은 정취근무(일하는 토요일에는 44시간, 노는 토요일에는 40시간) 42시간, 잔업근무 10시간⁸⁹⁾, 토요일 철야특근 14시간(한 달에 두 번 정도⁹⁰⁾) 한다고 가

89)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8시간 외 2시간의 연장노동(일명 ‘잔업’)은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회사는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연장 및 휴일노동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한다’며 H사 단체협약(2001)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정상 근무시간화 되어 있다. 시급제가 적용되는 생산직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정하면 주 평균 7시간 정도임)으로 주 평균 ‘59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35~40 시간대에 걸쳐 있다.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2002년 47.5시간(제조업의 경우는 49.3시간)으로 세계 주요 45개국 중 가장 길다(통계청, 『2002년도 한국의 사회지표』). 주 평균 59시간 일하는 H사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 노동시간을 훨씬 능가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다. H사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동차 경기가 호황이라는 한시적인 시기를 활용하여 작년 1년 365일 동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만 쉬고 일했었다.

경제위기를 경험한 후 여성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들을 보며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남편에 대한 내조를 더욱 강화한다. 여성들은 남편들이 집에서 쉴 때 자녀들이 아버지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자신보다는 생계부양자인 남편에게 각종 보약과 홍삼과 야채 등의 보양식을 먹이게 된다. 그리고 남편이 주말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더 짧아지면서 ‘남편은 힘들게 버는데 나는 집에서 쓰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의미화하게 되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끔 알뜰하게 가정 경제를 꾸려 가는데 더 관심을 쏟게 된다.

여성들은 경제위기 경험 후 가족내 고조되는 긴장감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내조를 강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성처럼 일터에 나가 생계부양자를 도와주고 싶은 욕구를 갖게된다.

우연히 아는 사람하고 시내에 나갔는데 롯데리아에서 사람을 구하더라고. 그 래가지고 주부도 된대요. 아줌마가 직장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잘 됐다 싶어서 다음에 이력서 써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집사람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하는 연장노동을 하지 않으면 임금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에 두 시간씩 평일 5일 동안 하는 잔업근무는 10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90) 사례 여성들 모두 남편이 최근 한 달에 평균 두개 이상의 주말 특근을 하고 있다고 말 하였다.

어차피 내 노는 시간에, 어차피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시간에 신랑 저렇게 주말에도 힘들게 일하는데 특근 한번 덜하고 자기(남편)도 좀 쉬고 나는 나대로 또 내 일 하면 괜찮은 건데..[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신랑한테 얘기하니까 내가 너 그래 버는 거 특근한번만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주말에 한번만 고생하면 되는데 뭐 그러면서 싫어하더라고. <사례 3>

사례 3의 남편은 산업재해를 당해 결혼 초기에 1년 가량 집에서 쉬었으며 연이은 오토바이 사고로 몸이 많이 상해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3의 남편은 한 달에 두 번밖에 쉬지 않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 사례 3은 몸 상태도 안 좋는데 특근을 계속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신이 나가서 일을 하면 ‘남편이 특근도 좀 덜 하고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혼여성의 저임금 구조를 간파하고 있는 사례 3의 남편은 ‘남편의 어깨를 덜어주고 싶은’ 부인의 욕구를 ‘너 그래 버는 거 특근 한번만 하면 된다’는 말로 무마시키게 된다.

남성들이 자동차 경기 호황을 틈타 일거리가 많아지자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여 임금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대부분 두 자녀의 아버지인 남성들은 ‘특근한 개는 첫 자녀를 위해서, 또 하나의 특근은 둘째 자녀를 위해서’ 한다고 말하며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계부양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세워나가고 있다. 남성들이 철야특근을 강행하는 이면에는 H사에 대한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내재해 있다. 하나는 98년 경제위기 시 구조조정의 직접적 대상이 되었던 남성들의 경우, 1년 넘게 H사를 떠나 다른 업종에 종사해본 경험을 통해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H사에 대한 애사심을 굳히게되는 경우이다. 즉 또 다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또 일터에서 나가게 되겠냐는 막연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경제위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남성들은 H사에 대한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고 있다. 또 다시 IMF가 오면 이번엔 자신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남성들은 복지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경험했던 데서 오는 H사의 충성심에서, 그렇지 않았던 남성들 또한 ‘짜리기 전에 벌 수 있을

때 확실히 별자'라는 의식에서 수행하는 결과는 모두 경기가 좋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말철야특근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H사 가족들은 98년 경제위기 때 겪었던 상처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그 상처의 흔적은 노동자 가족운동⁹¹⁾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든 이웃과의 이별, 경제적인 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각인되어 있다. H사 가족들은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기 전인 98년 5월부터 동네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며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거리집회를 조직하였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가자 노동자의 아내들은 어린 자녀들을 업고 들어와 비가 새는 천막에서 자야하는 불편한 잠자리를 마다 않고 36일간 투쟁하였다. 노동자 가족운동은 80년대 말부터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남편이나 아들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어왔다(명진숙, 1994: 20). 그러나 가대위는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내조라는 전통적인 여성의식에서 출발한 조직이며 결국 노조와 남편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⁹²⁾ 이와 같이 여성들의 내조의 성격은 국면마다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데 경제위기 때는 남편의 일터를 지키는 투쟁에 결합하였다가 싸움이 끝난 후에는 가정 안에서 내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높은 노동강도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에 몰입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조를 강화하거나 '남편의 어깨를 덜어주기 위하여' 사회적 노동에 대한 욕구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노동에 대한 욕구는

91) 노동자 가족운동에 대한 여성주의자에 대한 글로는 명진숙(1994), 정주연(2002) 참조.

92) 98년 H사 고용안정투쟁 당시에도 가대위는 H사 노조의 통제 하에 있어야 했다. 가대위 회원들은 어린 자녀를 데리고 공장에 들어와 “정리해고 철회 없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가대위는 회사와의 협상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발언권과 권리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가대위는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더욱 격앙되어 투쟁의 수위를 높여갔으나 노조는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결국 가대위 회원들은 98년의 경험을 통하여 사회의식이 각성되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남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분열되는 가대위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쉽게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성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가정을 운영하고 남성들은 힘들게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으로서의 지위는 굳건해지면서 생계부양자 남편을 중심에 둔 부부관계가 형성되어간다.

B. 결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는 ‘어머니’ 정체성

임신과 출산은 부부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일차적으로 구조적인 면에서 자녀가 생기면서 삼자관계(triad)의 체계로 바뀌게 되며 이에 따라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이에 적절한 역할전환이 요구된다(박숙자, 1992: 141). 첫 자녀의 출생은 부부간의 상호작용 면에서와 가족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⁹³⁾

첫 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변화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첫 자녀 출생의 의미는 그 사회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박숙자, 1992: 142). 그리고 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도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울산의 ‘노동자’ 가족에서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으며 자녀출산과 양육은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어머니 역할에 대한 의미화

93) 첫 자녀의 출생이 한 가족 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아이’에 대한 의미가 바뀌게 되면서부터이다. 즉 ‘아동기’의 발견은 아이가 더 이상 가내 노동력이 아니라 섬세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아야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양육의 의미도 이웃, 공동체와의 연계망 속에서 함께 키운다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가정에서 여성 혼자 아이의 발달과 훈육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다.

고립된 가정에서 홀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머니 역할은 근대 이후에 생성된 것이다. 근대 이전 자녀는 투자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력으로 의미됐으며 어머니만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공동으로 양육되었다. 현대사회의 모성은 특정한 유형과 내용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고 계속 구성되어지고 있는 중(mothering)이다. 모성에 관한 페미니스트들의 연구는 특정계층의 위치에서 유래된 모성의 보편성에 도전하고 계층과 인종(Collins, P. A., 1994; E. V. Glenn, 1994), 다양한 가족에 따라 맥락화 돼 진행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본 연구대상의 여성들은 그들이 위치해 있는 특정한 사회적, 개별적 환경에서 수행하는 어머니 역할에 대해 어떤 내용과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1.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의식

전업주부로 있는 사례 여성들은 내 아이는 내 손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처럼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한 양육은 여성자신의 생애사, 교육·문화적 기반이 약한 공업도시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하는 어머니’와의 차별화를 통해 가능해 진다.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전문적인... 아니면 자기가 돈 벌지 않으면 안될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엄마가 암만 뭐라 해도 엄마가 잘 못 키우더라도 엄마 손에서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일 하시니까 우리 아빠가 제 머리를 묶어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운동회도 어찌다가 한번은 모르게 된 거예요. 6학년 때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그게 참 싫더라구요. 6학년쯤 되며는 엄마랑 같이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지금은 운동회가 재미가 없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만해도 운동회가 참 재미있었거든요. 애들 왜 요즘에는 보니까 목에다가 열쇠를 걸어놓고. 요 아파트에도 몇 있더라구요. 혼자 있는 애들도 있더라구요. 저는 그 애들

보면서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 10>

나는 좀 부모한테 필요할 때 못 그거 하게 커서 일하기 싫거든요. 애들 클 때까지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꿈만 벌어드라. 크게 욕심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래 못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물론 그때도 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때는 자기 공부하는 거 받침만 해주면 되겠지만.. 그래서 고때 까지는 이야기 상대 돼 주고, 엄마 손이 필요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으니까. <사례 7>

사례 10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장사를 하고 아버지가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사례 7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수양딸로 들어갔다가 결국 친정언니, 오빠와 한 방에서 커왔다. 사례 7, 10은 어릴 적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강한 결핍감을 느껴왔으며 어머니가 된 지금 자신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켜주며 ‘이야기 상대’가 돼주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어머니가 일을 하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대가족에서 형제들과 부대끼며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 속에서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성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기혼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애써 무시한 채 전일제 어머니를 상정하며 운영되는 학교 프로그램들은 이 여성들로 하여금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한 양육’을 지지하게 하는 배경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있는 집단 거주지에서 ‘목에다가 열쇠를 걸어놓고 다니는 애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어린이로 의미되어 연민의 대상이 된다.

내 주위에 보면 다섯 명이 되게 친했는데 내만 일을 안하고 나머지는 다 영업 일을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애들한테 소홀해 지는 거라. 애는 일단 집에 와가 집에 있긴 잘 있어주지. 요즘 오락있지 티브이 있지, 그러니까 애들이 생활자체가 반경이 좁아지잖아. 애들은 밖에서 흠이랑 똥굴면서 맘껏 뛰어 노는 게 애들인데... 그래, 그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곤해. 그래

서 나는 애들이 적어도 중학교 갈 때까지는 엄마가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사례 18>

사례 18 역시 자신이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이 자신만 빼놓고 모두 일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애들한테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지니게 된다. 여성들이 ‘일하는 어머니’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생물학적 어머니에 의한 양육을 지지하게 되는 배경에는 공업도시라는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여성들은 남편의 직업으로 인해 삭막한 산업도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현실적 상황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매스컴에서 지적되듯이 울산은 전국에서 카드뮴 등의 중금속 오염도가 가장 높고⁹⁴⁾ 인구 만 명당 승용차 보유율 역시 가장 높으며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다.⁹⁵⁾ 게다가 전국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보육시설 현황 등의 주변환경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들에 대한 ‘보호의식’을 강하게 형성하게 한다. 흠이랑 똥굴면서 맘껏 뛰어 놀 수도 없는 공업도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는 곳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일하는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처럼 어머니들이 일하게 되면서 자녀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사례 18은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책임의식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⁹⁶⁾

94) 울산 공단지역의 중금속 오염은 심각한 수준인데 1997년 2월 17일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울산공단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울산공단 지역 초등학생들의 체내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공단 내 위치한 몇 개의 초등학교가 폐교되기도 하였다 (“울산 공단지역 중금속오염 심각”, <http://ksdn.or.kr/news/9803/0326.htm>).

95) 인구 만 명당 승용차 수는 전국에서 울산(1,967명)이 가장 높다. 그 다음은 대전(1,807명), 대구(1,805명), 경기(1,756명), 서울(1,708명) 순이다. 한해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서울이 42,055건으로 가장 높고 울산이 41,638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울산의 인구와 면적이 서울의 1/1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울산의 자동차 사고 발생건수는 가히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1999), 「지역통계연보」).

96) 연구자와 친구인 사례 18은 셋째를 임신해서도 자녀들을 가까운 경주나 바닷가, 수영장 등을 수시로 데리고 다니며 자녀들의 건문을 넓혀주는데 많은 관심이 있으며 2차 인터뷰는 자녀들이 문화회관 수영장에서 놀고있는 틈을 타서 1층 로비에서 이루어졌다.

울산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다 보면 여성들은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라는 말을 자주 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였다기보다는 자녀를 키우기에 열악한 주변환경을 고려한데에서 나온 전략인 것이다. 더구나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능력을 대학 나온 어머니와 비교하며 ‘지적으로 부족한 어머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학 못간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애 낳고 키우면서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면서’(사례 13, 15) ‘자녀를 위해서’ 방송통신 대학에 진학했거나 진학할 꿈을 가지고 있다(사례 17, 18). 이처럼 여성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자녀에게 지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도시 고학력 여성과 비교하며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직접 키워 자녀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먹을 것을 잘 챙겨주며 건강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1-2. ‘힘듦’의 내용과 맥락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는 어머니라는 이념과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이상화는 어머니들의 일차적인 관심과 욕구를 자녀에게 가질 것을 요구한다. 최근 여성주의자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라 어머니 개인으로서의, 성인으로서의 욕구·정체성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적인 영역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 가족 내 여성들이 어머니역할 수행에서 느끼는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은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애 키우시면서 어떤 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녁에 잠 안자고 내 울고 그런 거 하고 우리 큰애가 잘 었혔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 병원에 가고 그런 게 좀 힘들고. 아무래도 야간 아니어도 남자들은 애 울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저녁에 울면 업고 나와야 돼요, 거실로. 업고 또 재우고. 애 아플 때가 젤 힘들죠. 애 업고 자야 되고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큰 애 때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애는 그런 것도 없고 되게 수월하게 커준 것 같아요. 지금도 둘째는 거저 키운 것 같아요. 첫 애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 첫 애니까 뭣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고... <사례 13>

초보엄마들은 자신의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아이의 반응(갑자기 울거나 낮 밤이 바뀌는 등)에 당황하고 불안해한다. 사례 13은 경험부족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랐던 데서 오는 막막함과 애 아플 때 업고 자야 하는 심신의 피로함에서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사례 13은 첫애를 키워본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상태에서 키운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거저 키운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아프고 그럴 때. OO(첫 자녀)이 같은 경우는 천식도 있어서, 기관지가 안 좋아서 감기도 잘 왔고 그래서 자는 병치레를 좀 많이 했고. 천식으로 갑자기 애들이 갈갈갈(가래 끓는 소리) 해서 응급실에도 한두어번 가봤고. OO(둘째 자녀)가 태어나서는 안 그랬는데 OO(둘째 자녀) 가져서는 많이 그랬지. 임신했을 때는 아파서 좀 힘들었었지 다른 걸로는 뭐 별로. 지금은 괜찮지. 좀 크니까. 천식은 안 한지가 한 2년 됐고. OO(둘째 자녀)같은 경우는 OO(첫째 자녀)이에 비해서 병치레를 영 덜하고. 어렸을 때 홍역 한번 치렀지. 그러고 나서는 뭐 감기도 좀 쏘매하고 병원 왔다갔다하면 떨어지고 영 수월케 키운 것 같아요. 병치레는 수월케 하고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젖병 봐라!(인터뷰 할 당시 4살 된 둘째가 누워서 젖병 빨며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아직도 젖병물고 하는 거는 영 늦는데.. OO(첫째 자녀)는 딱 두돌돼서 정리했는데 저거는 저러네. 또 둘째가 되니까 엄마가 좀 태평해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거든요. 그거말고는 괜찮아. 힘든 거 없어. <사례 7>

OO는 일단 나는 몸만 건강하면 되니까 아플 때 엄마하고 아빠 마음이 틀리잖아요. 나는 재 안 아프고 만 컸으면 좋겠다. 나는 안 아프게만 크고 감기 기침 한번 하는 거에도 가슴이 철렁 하거든요. 어머 재 감기 걸리면 어떡하지? 어머 재 감기가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제일 힘들었을 때는 아팠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플 때! 그때가 제일 힘들지. (중략) 나는 지금은 누구는 몇 개월 됐는데 한글을 알고 숫자를 알고 그러면 처음엔 부러운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안 부럽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전엔 18개월 됐을 때는 그거 했었는데. 우리 애가 더 건강하

잘아! 우리 애가 네 애 보다 키 더 커! 하나도 필요 없어. <사례 17>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은 가족의 필요와 욕구를 벗어난 정체성간 충돌에서 오기보다는 아이의 병치레 때 오는 안타까움과 어려움에서 온다고 말하였다. 어머니 역할이 가장 힘들 때는 자녀가 ‘아플 때’이며 그거말고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으로 상징되는 육체적 능력이 이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소망이다. 그러나 남성 중심적인 노동자도시에서 기호와 욕구는 남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적 코드를 상징하는 ‘강하고 크고 거칠음’은 우월한 가치로 자리 매겨져 있다.⁹⁷⁾ 경쟁사회에서 대도시 화이트 칼라 중산층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의 학력·물적 자원과 지위, 명예 등의 다양한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할 수 없는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능력을 단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육체적인 힘’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샌드백을 거실에 달아놓고 매일 연습을 시키는 집도 있고 남아가 7세가 되면 태권도장에 많이 보내고 있다. 여성들도 이웃끼리 모여서 이야기 할 때 자녀의 키와 몸무게에 특별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성들은 큰 키, 많이 나가는 몸무게⁹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육체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어릴 적 건강유지는 어머니 역할의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애가 더 건강하고 키가 큰 것’이 옆집 아이가 한글과 숫자를 아는 것

97) 남성적 코드의 우월함은 이 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H사는 1987년 노조설립 이후 몇 차례 공권력과 대치하며 격렬하게 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기존 노동운동의 가부장성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울산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집회에서 손을 크게 흔들며 크게 구호를 외친다거나, 공권력 투입시 화염병 투척과 전투경찰과의 몸싸움 등은 남성노동자들의 ‘전투성의 전형’으로 상징되면서(허성우, 1995:50) 남성다움에 대한 코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98) 최근 소아 비만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 노동자 가족에서 자녀의 뚱뚱함은 아직까지 부모의 걱정거리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

과 맛먹는 능력으로 의미(사례 17)되는 것이다. 게다가 ‘공해도시’로 악명 높은 공업도시에서 자녀의 건강은 어머니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힘든거요? 크게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는 거리가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게 힘들어요. 애가 아플 때 여기 나가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아줌마들은 배워서 운전을 많이 하는 거지. 물론 우리 애기같은 경우는 엄마를 많이 안 힘들게 해서 그렇게까지 안 힘들었고 이젠 힘들다는 게 다니는 게 여기서 나가는 게 힘들고 좀 그런 게 힘들었죠. 많이 아프고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OO 엄마는 애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더 있기 힘들대요, 싫대요. 여기서 힘들었기 때문에 나가고 싶대요. 그런데 나는 처음에 아파트에 왔을 때 힘들었지 지금은 힘들게 없으니까 나간다는 생각을 덜 하니까. 뭐 어쨌든 애 키우면서 힘든 거 그런 쪽으로는 많이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례 16>

사례 16은 시험관 시술을 통해 결혼 후 10년 만에 출산을 하였다는 특수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호계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 16에게 육아의 갈등과 어려움은 자녀가 아플 때 치료받아야 하는 병원이 멀다는 점등의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것이었다.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고 순하게 키운 아이 때문에 애 키우면서 힘든 점은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사례 16은 1차 인터뷰에서 연구자와 가장 오랜 시간(3시간 30분)을 인터뷰한 여성이다. 외로움을 많이 타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례 16은 구수한 입담으로 자신의 생애사를 말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애 키우는데 있어 어려움과 갈등이 무엇이었냐는 연구자에 질문에 대해 “그런 쪽으로는 많이 할 이야기가 없다”며 대화를 중단하였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례16은 첫 자녀의 출산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이루어지는 울산지역에서 자신의 출산을 상당한 노산이라고 의미화하며 ‘나이’에 대해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다. “자녀들이 팝송을 부를 때 창을 부를 순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며 젊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사례 16은 이후에 둘째 자녀를 어

린이 집에 보내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살을 빼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자란데다가 야간고등학교 시절부터 ‘가장’역할을 했던 사례 16에게 10년 만에 얻은 자녀는 오직 기쁨과 사랑 덩어리인 것이다.

‘노동자’ 가족 내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아이의 육체적 질병 등 아이와의 강한 동일시나 어머니 역할수행에 따르는 육체적 고단함에서 야기되고 있다. 여성들이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과 성인으로서의 욕구간 충돌에서 오는 갈등과 힘듦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머니 역할수행에 따른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균열을 내지 않는 선에서 시도되고 있었다.

저는 피아노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사회생활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신랑이 벌어들여주는 돈 쓰고 싶어요. 나는 둘째 키워놓고 내 생활 찾을 거예요. 뭐 배우러 다니고 뭐 문화센터 다니면서 배우고 막 이러지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보험하면서 살지는 않을꺼라고 그러거든요. 아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애 보내 놓고 문화생활 하면서 뭐 배우고 싶은 거 컴퓨터도 배우고 짜즈댄스도 배우고 수영도 하러 다니고 그럴꺼예요. 나는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례 17>

OO(첫 자녀)가 지금은 안 하는데 저번에 그런 말 한번 했었거든요. 엄마도 돈 벌러 가라면서. 3층의 아줌마는 자기 차로 운전도 하면서 지금은 안 하는데 저번에 직장생활 했었거든요. 그게 부러웠는가 지가 자기동생 잘 볼 수 있다면서 돈벌러 가라는거라. 그때 억수로 충격적이었거든. 자기 눈에도 그게 부러웠는지, 엄마도 차 사서 다니면서 회사 다니라면서 그러면서 동생 잘 볼 수 있다고. 그때이래 가지고 있어도 되나 진짜(허탈한 웃음). 그 때는 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나도 애들이 자꾸 커가면서 그런걸 자꾸 느끼지. 내가 애들한테 너무 능력없는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닌가? 지금은 OO(둘째 자녀)가 집에 있지만 OO(둘째 자녀) 학원에 보내놓고 나면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될 것 같아. 마트같은데라도 가서 애 학원비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어야지. <사례 3>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이외에 갖는 다양한 욕구들은 주로 ‘컴퓨터, 수영, 운전, 요리, 십자수 배우기’ 등으로 표현된다. 공업도시 울산에서 기혼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부족과 결혼 전의 노동경험을 통해 소위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인식은 어머니 정체성과 갈등을 일으킬 만큼 사회적인 노동에 대한 욕구를 크게 키우지 않는다.⁹⁹⁾ 여성들은 주로 ‘배움’으로 표현되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초기 양육기 동안 잠시 미룰 수 있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사례 3은 둘째가 학원에 갈 나이가 되면 마트같은데 가서 파트 타이머로 일할 각오를 하고 있다. 사례 3이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자녀가 일하는 윗집 아줌마와 비교하며 자신이 ‘무능력한 어머니’로 비취질 때였다. 따라서 둘째를 학원에 보내놓고 경제적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는 자식들에게 세련되고 능력 있는 어머니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어 자녀의 학원비라도 벌고싶은 ‘어머니’ 정체성의 연장선에 입각한 것이다. 이처럼 생계부양자인 노동자 남편의 일상에 의해 틀 지워지는 생활¹⁰⁰⁾ 속에서 여성이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삶에 윤기를 더하고픈 욕구는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지위인 ‘어머니’ 정체성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 수행이 더욱 갈등적이고 어려워진 원인 중의 하나는 책이나 매스컴 등에서 유포시키는 ‘완벽한 어머니’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수행에 있어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뒷장(IV)에서 살펴보게 될 이웃 간의 활발한 교류 때문이다. 책에서 전문가 집

99) 여성들이 직업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의해 표현되었다. “[일하고 싶지 않고 세 아이의 엄마로 살고 싶고 거기서 만족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전문직종을 갖고 좀 당당하게 살고싶지. (머뭇거리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 내가 너무 많이 와 버렸기 때문에 전문직종, 전문직업 자체를 갖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는 몰라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내 그게 가능해질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싶지.” <사례 18>

100) 이것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어지는 본문 IV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단이 제시하는 추상적인 유아정보 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끼리 현실적인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를 수 없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갈등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수행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운 영역으로 느끼지 않는다.

2. 어머니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 느끼기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불안한 결혼초기에 대한 적응을 거쳐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과정에서 여성 개인으로서의 욕구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간 큰 갈등 없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 수행에 따른 육체적, 심리적 피로가 가중되는 초기 양육기를 거치면서 ‘어머니’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신혼 때는 무슨 이야기했지? 특별히 이야기했던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이야기는 계속 했겠지. 아저씨 같은 경우는 뭐 회사이야기 같은걸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중략) 지금은 애들 있으니까 애들하고 놀 때도 그렇고 뭐 애들 이쁘다고 꼬집으면 나는 꼬집지 말라는 둥 아프다는 둥 이런 식으로. 부부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니까 남이 보면 우리 애가 하는 행동이 그래 이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아니잖아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쁘니까 사소한 거에 웃고. 웃음이 많지, 애기가 있으니까. 애기 사소한 거에 막 우습다고 웃고 재밌다고 웃고 잘 한다고 그라고(웃음). 못 한다고 웃고(웃음). 애기가 있으니까 더 좋은거예요. 둘이 있으면 조용하잖아요. 둘이 있으면 크게 웃을 일이 없는데 애기가 있으니까 안 그렇더라구요. 웃을 일도 많고 막 시끄러울 때도 물론 있죠. 울고 짜부지고 하면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웃는 게 더 많지 않나. 애기 없으면 그런 웃음이 있겠나 싶고. <사례 4>

왜 친구들을 봤을 때 결혼안한 친구들을 봤을 때는 “어머 그게 혼자 있는 게 편해” 그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왜 어쩔 때는 속상할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아무래도 애 키우면서 그런 게 보람인 것 같아요. 애들 재밌

게 하고 애들 애교 떨고 그럴 때 그런걸 재미로 느끼죠. 그렇게 커주는게. 그게 한 가정을 꾸미는 그거 같고. 그러니까 애들 위주로 가정에 웃음이 그거 된다고 할까요? 신랑하고 같이 있고 그러면 좀 묵묵하잖아요. 그런데 애들 있으면 애들이 웃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인 것 같아요(웃음). <사례 13>

남편과의 친밀한 의사소통에 한계를 느끼는 ‘노동자’ 가족 내 사례 여성들에게 있어 자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부부간 친밀함의 부족과 빈약한 대화에서 오는 ‘묵묵함’을 자녀가 막아주기 때문이다. 부모 자녀관계가 중시되는 한국사회의 특성과 눈코 뜰 새 없이 아이의 요구가 많은 초기 양육기라는 특성은 가족의 가치와 중심을 두 부부에서 아이에게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부모를 웃겨주고 하루가 다르게 커 가는 아이는 ‘부부끼리만 있으면 대화와 웃음이 없는’ 부부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물이자 부부의 유일한 보람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는 점은 사례 18이 셋째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게 자기가 살아온 환경하고 많이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글썽 그거는 우리 엄마가 우릴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하고 살았던걸 계속 봐서 그런지 부모면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런, 밑알이 썩어야 다시 새싹이 나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부모도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자기 행복을 찾는 거고. 나름대로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여자로서 자기 일을 해야지 꼭 성공한 여자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되어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지. 뭐 내가 애들을 위해서 많이 보낸 시간이 그렇다거나(아깝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셋째를 가질 생각을 했겠지. <사례 18>

사례 18은 어머니가 되는 과정을 밑알이 썩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거기서 나름의 행복이 있음을 암시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에서 강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어머니로만 존재했던 지난 시간과 현재를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례 17은 이후에도 직장생활 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더불어 여성들은 자녀가 생기면서 결혼 초기에 경험한 불안함과 외로움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신혼 때는 외롭고 해서 많이 울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OO를 낳아서 키우니까 덜 무섭던데... 애기가 있으니까, 내가 애를 보호해야 되겠다, 애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도 좀 되고 그렇대요.
<사례 9>

이 여성들이 ‘어머니’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를 느끼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결혼 전 ‘교육과 결혼 전 직업경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결혼 전 노동시장에서 낮은 가치가 매겨져 있는 단순 반복적인 노동 경험을 가지고 있고 가정 밖에서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보상이 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강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사례 여성들이 어머니 정체성에서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까지 자신의 성인으로서의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어머니 역할수행 다음으로 미뤄질 수 있거나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의미된다. 그리고 ‘정상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이 동질화된 지역사회는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들의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연구자는 결혼하여 6개월 후에 자녀를 가졌는데 그 6개월 동안엔 이웃끼리 왕래가 별로 없었다. 연구자에게는 ‘언제 애기 가질 꺼냐’는 질문을 가끔 하면서 남편들이 출근하거나 야간근무 마치고 돌아오면 애를 데리고 주간근무인 집에서 모여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연구자가 임신을 하자 아주머니들은 반가와 하며 연구자를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드디어 ‘끼워’ 주면서 문을 두드려 어느 집으로 모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이처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동질적인 집단 거주지에서 ‘성원권membership’을 획득하게 해주는 자원이 된다. 더불어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결혼 초기에 경험한 불안함과 외로움도 사례 9처럼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라지게 된다. 더 나아가 대화의 빈곤에 애를 먹는 부부관계도 더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짐으

로 인해서 결혼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¹⁰¹⁾

우리 사회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의 이미지와 의미가 부각되며 가정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일컬어지는 일터의 이미지와 극적으로 대비될 때이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과 재생산이 함께 이루어지던 공간이었던 집이 유급노동의 공간과 분리되면서 바깥세계가 위계화되고 비인간화의 상징이 되면서 사랑과 인간화의 공간으로서 가족의 의미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가며 가정중심성은 강화된다. 화이트 칼라 가족에서 가정은 사무직의 특징인 ‘승진체계’에 내면화돼있는 경쟁과 부정부패로 얼룩진 직업세계의 특징과 대비되어 경쟁하지 않고 인간미로 넘쳐나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대상가족인 블루칼라 노동자 가족에서 가정은 통제된 시·공간 속에서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열악한 작업장 환경, 노동조건과 대비되는 의미가 부각된다. 따라서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의 전업주부는 아내로서 장시간 노동을 주/야 근무로 하는 남성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남편에 대해 애처로움과 안쓰러움을 갖게 되며 ‘정성스럽게 밥 차려주는’ 아내의 역할은 생계부양자 남편을 위한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여성들은 결혼 전 삶의 맥락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강한 보호의식을 형성하여 여성이 있을 곳은 가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며

101) 이것은 마치 울프(Wolf 1972)가 개념화한 ‘자궁가족(uterint family)’에 비유될 수 있다. 유교적 전통을 가진 중국 전통 사회에서 결혼 초기 여성들이 자살을 할 만큼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나 점차 자신이 낳은 ‘핏줄’을 이 집안에 더해 감으로써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해 간다. 여자는 공식적 가족과 달리 자신을 중심으로 한 ‘자궁 가족’을 갖게 되는데 자궁 가족 내에는 자신이 낳은 자녀들과 며느리가 포함되어 남편은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그것이 비록 어떤 뚜렷한 이데올로기나 형식적인 구조도 갖고 있지 않지만 여성에게는 일정 기간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만 하면 자신의 권력의 기반인 ‘자궁 가족’을 통하여 응분의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차원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조혜정, 1997). 마찬가지로 사례 여성들도 결혼 초기 낯선 타지에서, 남편과 주/야간 근무에 대한 3중의 적응을 겪으며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자녀가 생기면서 다양한 보상이 찾아온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 사회에서 성원권(membership)을 획득하고 결혼 초기에 느꼈던 불안함이 사라지며 부부관계의 풍부함을 가져오면서 얻게되는 결혼생활의 안정감이다.

‘어머니’ 정체성에서 욕구와 갈등을 조정하며 강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정 내 역할과 정체성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존재근거를 찾으며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생애사, H사의 성별화된 기업전략과 관련하여 공업도시에서 형성된 아내로서의 책임감과 어머니 정체성에서의 만족은 여성이 가정적 요구에 계속 결부되는 계기가 되어 여성들의 가족 내 역할은 더욱 강화된다. 따라서 남녀간의 영역과 역할 분리는 더욱 심화되고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가정의 틀을 벗어나는 갈등 없이 수행되면서 가정 중심성은 형성되는 것이다.

IV. 가정중심성의 강화과정: 남편의 노동자 정체성과 노동환경

서구에서 가정중심성이 형성될 때 중간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은 전형적인 성 역할과 연결되었다. 19세기에 등장한 가정중심성은 중간계급이 자신을 하층계급과 차별화시키는 전략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어머니들은 가정에 머물러서(노동계급처럼) 일하지 않는 계급적 특권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중간계급 지위와 관련된 가치와 태도를 직접 전수하였다(Williams, 2000).

본 연구대상 가족에서도 남편의 ‘노동자’로서의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정체성과 그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은 가정중심성을 강화시키는 배경을 형성한다.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의하여 단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측과 대치상태일 때는 노동자로서의 단일한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형성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왜곡되고 다양한 정체성들이 형성, 충돌, 재통합되는 중이다. 특히 대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의 정체성은 여전히 절대 빈곤을 면치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지만 상대적 고임금 수준은 ‘노동자’로서의 단일한 정체성을 거부하고 싶은 욕망을 형성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장에서는 자녀의 아버지가 형성해 가는 ‘노동자’라는 복합적 정체성과 특수한 근무형태를 포함한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아내와 어머니 역할이 가정중심성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A. 노동자 정체성을 둘러싼 자녀교육

기존 노동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드러나는 특징으로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자녀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강렬한 욕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대상 ‘노동자’ 가족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남편의 상대적 고임금과 그 안에 내면화 돼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은 기존 노동자 가족, 도시 중산층 가족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자녀교육에 투영된다. 본 장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성들의 노동자 정체성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어떤 계층적 의식을 갖게되고 어떤 자원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러한 의미와 자원들 속에서 여성들은 어머니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며, 그러한 여성들의 행위가 가정중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1. 중간계층 의식/ ‘중산층’과의 구별짓기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들은 남편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기도 하지만 중간계층이라는 의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¹⁰²⁾ 하층도 상층도 아니라는 이 의식은 이 가족들의 물적인 기반에서 생겨난 것이다. 결혼해서 살면서 불의의 사고가 나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의 월급만으로 7, 8년 생활하다보면 울산지역 소재의 20여 평 아파트와 승용차를 소유하게 된다. 이 가족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하기 위하여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의 적금을 붓고 있으며 생활비 중에서 보험료로 10만원에서 45만까지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¹⁰³⁾ 하에서 사례 여성들은 자신들은 하층도 상층도 아니라는 중간계층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102) 인간의 정체성은 단일하고 통합되어 존재하지 않고 복수적이고 가변적이며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103) H사 하청 노동자의 임금이 직영노동자의 60% 안팎이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H사 하청에 근무하고 있는 보조사례 2의 집을 12월 12일 방문했을 때 연구자는 그 전에 방문하였던 H사 직영 ‘노동자’ 가족의 집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단 주거현황도 연구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1,600만원의 주택 전세)이었으며 집에 보일러를 잠그고 거실에 전기난로로 난방을 대신하고 있어 기존 노동자가족의 상징이었던 ‘가난’이 묻어나고 있었다. 보조사례 2는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쉬고 일해도 남편의 월급이 90만원이고 두 달에 한번씩 나오는 보너스는 50만원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큰 애가 배우고 싶어하는 것조차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직영 가족과 빈부차를 느끼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기 때문에 내년(2002년) 3월에 H사 집단거주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우리가 중간정도는 속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지금 나로서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는 뭘 해야 되겠더라도 계속 미뤄지게 되잖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경제력은 되거든. 그런데 그게 내 기준이겠지, 뭐. 내가 큰 거를 안 바라니까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지. 그래서 나는 내 사는 게 중간은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다. <사례 18>

우리보다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치면 우리가 그다지 나은 것 같고 또 위에 잘사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어휴 우리는 언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살며는 중간이라고 봐야죠. 너무 호화로운 것도 아니고 없어서 바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남한테 의지 안하고 우리 생활 하니까 한 중간정도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중간정도.. 그냥 반반인 것 같아요.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례 13>

사례 여성들 중 자신의 경제적 삶을 설명하면서 ‘가난’으로 의미화하는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TV 등의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호화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지도 못하고 못 살지도 않기 때문에’ ‘중간정도’는 된다고 말하였다.

이 ‘노동자’ 가족의 경제적 생활 실태는 <표 7>과 같다.

<표 7> 연구대상자의 경제적 생활실태

사 례	남편 근속 년수	2001년도 연봉	주거형태	승용차 소유 유무	월저축액	월보험료	사교육비 (월)	기타
1	13년	4,100만원	28평아파트 (8,000만원) 소유	유	40만원	15만원	40만원	
2	11년	4,300만원	28평아파트 (8,000만원) 소유	무	80만원	10만원	40만원	
3	14년	3,600만원	32평 빌라 전세	무	중도금 때 문에 적금 을 붓고있 지 않음.	40만원	32만원	2002. 4. 32평 임대아파트(5,500만원) 입주예정
4	11년	3,000만원	주택전세 (1,700만원)	유	40만원	30만원	15만원	2003. 32평 아파트 입 주예정
5	9년	4,000만원	23평아파트 (5,000만원) 소유	유	50만원	30만원		
6	12년	4,000만원	23평아파트 전세 (3,500만원)	유	고 정 액 을 정 해 놓 고 적 금 하 지 않음.	42만원	22만원	
7	12년	4,000만원	23평아파트 전세 (3,300만원)	무	40만원	30만원	28만원	98년 고용안정 투쟁 때 1년 무급휴직 중 벌어놓은 1,200~1,300 만원지출. 노동운동하 는 남편은 특근을 전 혀 안함.
8	15년	4,000만원	13평 사택 임대아파트	무	55만원	30만원	20만원	시집에 매달 30만원 씩 송금.
9	13년	3,500만원	13평 사택 임대아파트	유	65만원	20만원	20만원	연봉이 통상 4,000만원은 되나 작 년에 공장휴가 때문 에 연봉이 줄어듦.
10	10년	3,800만원	13평 사택 임대아파트	무	80만원	30만원	20만원	
11	8년	3,500만원	13평 사택 임대아파트	유	77만원	28만원	28만원	

사 례	남편 근속 년수	2001년도 연봉	주거형태	승용차 소유 유무	월저축액	월보험료	사교육비 (월)	기타
12	12년	4,200만원	13평 사택 임대아파트	유	70만원	25만원	30만원	
13	10년	4,000만원	호계지역 24평아파트 소유	유	40만원		30만원	
14	10년	4,000만원	호계지역 24평아파트 소유	유	100만원		30만원	
15	14년	4,200만원	호계지역 28평아파트 (4,500만원)소유	유	없음	45만원	30만원	
16	15년	4,200만원	호계지역 28평아파트 소유	유	80만원		아직 없음	
17	8년	4,000만원	호계지역 27평아파트 전세 (2,300만원)	유	50만원	40만원	11만원	
18	11년	4,100만원	건물소유(2억)/건 물 3층에 거주	유	100만원 (건물 매 입시은행 융자금)	25만원	22만원	건물 외, 시집으로부터 6억 상당의 부동산 상속받음.

그렇다면 생산직 노동자 남편의 월급만으로 생활을 꾸려 가는 여성들로 하여금 중간계층의 삶에 가깝게 보여지는 물질 기반,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가족임금이 가능하게 보여지는 이유는 현금으로 주어지는 남편의 월급, 그것을 보충해 주는 기업복지 제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회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다.

첫째, 울산이라는 지역과 집단거주지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산업단지로 조성된 울산지역은 문화, 여가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여성들은 소비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욕구를 갖기 힘들다. 이는 빈부차가 거의 없는 동질화된 집단거주지라는 특성에서도 기인한다. 사례 여

성들 모두 집단거주지에서의 삶에 대해 “사는 것이 비슷하고 특별히 더 잘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며 호감을 표시하였다. 서울 등 수도권처럼 상대적으로 빈부 차가 큰 지역에서 살아가게 되면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충동구매를 하게 되는 등의 소비욕구를 키우기 쉽다. 그러나 산업도시 안의 동질화된 집단 거주지에서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비슷한 월급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서로의 삶에 영향을 미쳐 고정된 금액을 가지고 알뜰하게 운영되는 가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

둘째, ‘노동자’ 가족의 가족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 사례 여성들 대부분은 농촌의 부유하지 않은 가족적 배경에서 성장하며 검소한 삶을 몸에 익혀왔다. 농사짓는 집에서 일요일이면 미나리를 씻는 등의 어머니 일을 많이 도와주며 성장한 사례 8은 자신의 삶이 중간정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부유한 집에 컸으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껴 쓰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살고 누가 승용차를 줘서 너그 맘대로 살아라, 뭐 하루에 돈 십만원 쓰고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한 달에 몇 십만원 벌어서 나는 겨우 차비만 쓰고 다닐 정도로 난 살았으니까 지금은 우리 아저씨 월급 받아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어요, 그죠? 그렇지만 적금 조금씩 붓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불만은 없어요. <사례 8>

사례 8은 “남편의 월급으로 먹고 싶은 거는 다 못 먹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껴 쓰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불만은 없다고 말한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에 노출되기 쉬운 대도시가 아닌 농촌지역에서 살아온 사례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검소한 삶을 몸에 익혀왔기 때문에 남편의 월급에서 적금, 보험, 자녀 교육비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문화나 여

가에 대한 비중을 최소화하는 내핍생활을 하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자’ 가족들은 남성들이 주말 철야특근을 하지 않는 주말에는 주변 영남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집이나 친정 방문을 자주 한다.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은 시집이나 친정에서 농사를 짓는 데서 가능한 생활비의 절감이다. 본 연구의 ‘노동자’ 가족 중 시집과 친정 모두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경우는 사례 2, 3, 5, 7뿐이다. 시집이나 친정 중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는 쌀이나 각종 부식비가 절약된다. 연구자도 울산에 거주하면서 H사 ‘노동자’ 가족이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쌀과 각종 부식거리를 차에 싣고 오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성장하며 검소한 삶을 익혀온 데다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시집이나 친정으로부터 주식과 부식을 지원 받는 것은 H사 노동자 가족이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H사 ‘노동자’ 가족내 전업주부들이 상층도 하층도 아닌 중간계층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중산층을 가늠하게 하는 연봉과 비 현금의 형태로 주어지는 각종 기업제도에 의한 임금 보충의 효과와 울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연관된 동질화된 집단거주지, ‘노동자’ 가족의 가족적 배경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례 여성들 자신이 살아온 생의 맥락에서 기인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중간계층이라는 의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중간계층 의식은 남편이 H사에 안정적으로 다니고 있는 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긴장 속에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여성들이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소위 ‘중산층’과 구별짓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고. 살다가 진짜로 누구 하나 큰일 당하고 그러면 할 수 없다니까. 집 팔고 그러면 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장담을 안해. 나이 들 때까지 살아봐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중산층 이런 거는 생각도 안한다. 나는 내 지금 살기 빠듯하니까 그것은 생각도 안하고.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그런 것도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어휴 안됐다 싶고 뭐. 어휴 나도 자식이 저래 안될라면 열심히 살자, 부지런히 모드자(모으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뭐. <사례 1>

하여튼 나는 디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산다고 얘기하지 못 산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산층은 아니지만 우리 또래에 쓸 꺼 쓰고 기분 낼꺼 기분 내고 그렇게 사니까. 짜들려서 살지는 않고 애한테 과자를 사주고 싶은데 이걸 못 사준다 그렇지 않는니까. <사례 17>

여성들은 막연하게 잘사는 것도 아니지만 못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중간계층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 모두는 자신에 대한 계층적 지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산층’과는 엄격한 거리두기를 한다. 당장 남편의 월급만 보면 고액 연봉자의 대열에 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며 그 직장을 떠날 경우, 또는 형제들 모두가 부모에게 상속받을 재산 하나 없이 비슷하게 살고 있고 여유자금이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누구 하나 큰일 당하면 집 팔고 그러면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막연한 중간계층 의식은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그것이 ‘중산층’과 구별짓는 원인이 된다.

최근의 IMF 경제 위기는 확장 일로를 걷던 한국 사회의 경제가 국제 분업의 현실 속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임을 보여준다. 흔히 20대 80의 사회로 요약되는 자본의 전 지구화 시대에 계급은 양극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¹⁰⁴⁾ 사례 여성들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위기 의식을 느끼고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98년 IMF 당시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고 떠났던 이웃들 중에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즉 H사를 떠나

104) 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필독서가 된 『세계화의 덫』은 이러한 현실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20대 80의 사회’라든지 ‘터보 자본주의’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기도 했던 이 책의 논지는 세계화가 약속하는 신자유주의의 장밋빛 환상은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국가 차원에서 작동할 때 전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자본의 이윤창출은 이를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다. 자세한 것은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6), 강수돌 역(1997),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카디널 참조.

비록 몇 천 만원의 금원이 주어져 장사 등을 했지만 주저앉게 돼 하층으로 밀려난 경험을 주변에서 쉽게 접하게 되면서 ‘중산층’과는 구별되는 자신들의 계층적 지위를 더욱 확인하게 된다.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저축 액수를 늘려가며 어린이 보험, 보장성 보험, 연금 등의 각종 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중간계층 의식과 관련하여, 또한 가족의 번영과 관련돼 모아지는 가족의 관심 영역은 바로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2. 가족의 세대간 상향 이동노력

노동자 가족에서 미래에 대한 열망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한국 노동자 가족에서도 자식세대의 계층상승에 대한 기대로 인한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과 투자는 지적된 바 있다(강인순, 1991). H사 ‘노동자’ 가족 내 중간계층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기반은 사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식에게 아버지 직업보다 더 나은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즈그 아빠는 OO가 자기가 봐도 머리가 좋으니까 OO는 커서 판사가 될 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부를 좀 하는가 보다 하면서.. 사주를 보면 OO는 그릇이 크다고 그래요. 요번에 갔더니만 그릇이 크니까 부모들이 뒷받침 좀 해주면 크게 되겠다 이런 소리하더라고. 외교관이나 판사도 지가 노력하면 되고, 해외에 나가는 뉴스 특파원도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 공부 쪽으로 많이 키워라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나는 지가 유학간다고 하면, 지가하고 싶어한다면 유학도 보내고 싶어. 빗을 내서라도 보낼 거라고 나는. 지가하고 싶어하면 할거야. 대학교고 유학이고 목돈 들어가잖아. 그때 돼서 형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안 좋아도 나는 빗을 내서라도 지가하고 싶어하면 해줄거야. <사례 1>

나는 만약에 유학을 원한다면 외국에라도 보내주고 싶어요. 지금 알아보면

일년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그게 우리 연봉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야기하거든요, 야 아빠한테도. 3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 그런데 OO가 원한다면 나는 해주고 싶다고. 근데 별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이 벌어야지. 지금으로서는 3천만 원 든다고 하면 무리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가정 하에 해주고 싶어요. 지가 유학을 원한다면 보내주고 싶다고. <사례 17>

연구자가 울산 지역에 거주하며 아줌마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애들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여성들은 자식의 대학교육까지 밀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본’이라고 말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도 노후에 대해 물어보면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후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한 후부터의 시기로 의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여성들은 대학교육은 물론이고 유학까지 보내고 싶다는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서구 노동자 가족에 관한 연구(Gavron, 1966; Rainwater, L. Coleman, R., and Handel, G., 1959)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교교육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Gavron의 연구에서는 노동자 부모의 절반 이하만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Rainwate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간계급 어머니들은 중간계급의 삶과 가치를 위한 훈련기반으로서 교육에 대해 가치 있게 평가하는 반면, 노동계급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학교에 관한 기억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학교교육이 졸업 후의 삶과 별로 연관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 노동자 가족에서 노동자의 세대간 재생산을 막으려는 교육에 대한 관심은 물질적인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소 막연한 욕구로만 표현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가족에서 그 노력은 남편의 일년 연봉으로 실제 일년 유학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구체적 현실 속에서 드러나며 큰 자녀가 다섯 살인 사례 17은 일년 유학비용을 알아보는 열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식에 대한 높은 기대는 대학 학자금에 대한 H사의 지원제도, 중간계층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조건, 대기업에 다니지만 경제위기에 민감한 자동차 ‘생산직’ 노동자라는 직업을 대를 이어 자신의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기대 등이 맞물려 구성된 것이다.

우리 아저씨도 그러더라구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해줘야 되고 하기 싫은 거를 부모가 강제로 하는 거는 안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원한다면 땀 빛을 내서라도 해줘야 되겠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저씨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사례 2>

OO아빠는 그래요. 물론 자식을 위해서만 돈 벌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보다는 조금 낮게 살게 하고 싶죠. “아빠는 그냥 공돌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나보다 나아라 되지 않겠냐”고 항상 그래요. 자기는 싫대. 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길게 하고 싶지도 않대요. 그리고 몰라 자기가 못 배운 거에 대한 그런 거가 있어서인지 OO가 공부 못하면 알아서 하라고. OO가 공부 못하면 알아서 해. OO한테 “니 공부 못하면 아빠한테 죽어!” 그러 거든요. <사례 17>

사례 여성들의 남편인 노동자들은 쾌적한 사무실이 아닌 공장에서 힘든 주/야간 노동을 하며, 한때는 ‘공돌이’로 호명되었던 생산직 노동자라는 직업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욕구를 표현한다. 사례 12의 남편은 “공부는 부모의 책임이기에 어디까지라도 지원해 주지만 그 외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며 지원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장과 관련하여 지방(특히 농촌지역)에서는 H사에서 어떤 직군(생산직, 사무직 등)에 있는지에 상관없이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학력차별, 정신/육체 노동 간 차별적 위계화를 간파하면서 높은 가치가 부여되는 정신 노동, 또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교육수준을 자녀에게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유학 보내고 싶어 정도의 높은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 가족은 일단 울산 지역에서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공단지역을 벗어나 시내로 나가고 싶은 욕구를 표현한다.

우리 아저씨가 애들 교육 그런데 좀 민감하더라고. 애들도 아직 어린데 애들은 학군 좋은데 가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고 저쪽 무거동이나 저쪽 선경아파트 쪽으로 이사가야 한다고 그라고 그래요. <사례 11>

똑같은 돈주고도 사실은 시내나 여기가 학원비는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수준을 보면 차이가 난대요. 책하는 아줌마들이나 이런 아줌마들이 오면 이쪽으로는 너무 상식이 없다 이거지. 교육열이나 그런 게 뒤떨어진 다 그거지, 시내보다. 친한 분은 딱 깨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나도 그런 것 같고. 그런 소리를 듣고 막 그라니까 그렇다고 내가 막 교육에 열의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닌데도 시내 쪽으로 나가면 이왕이면 같은 돈주고 라도 좀 나은 학원에 보내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튼에. 그렇다고 여기가 막 이상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더 나은데서 아이를 가르치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은 들거튼에. 그래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좀 그게 바램대로 안 되고 있는거지. <사례 15>

울산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다가 2000년도에 평준화되었다. 그래서 우수한 순위별로 고등학교가 위계화 되어 있었으며 당시 소위 명문 중·고등학교는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에 모여 있다. 따라서 사례 여성들은 현재는 평준화 되었으나 소위 ‘실력 있는’ 선생님이 모여 있고 자신들보다 더 나은 계층의 이웃들이 있는 시내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다. 사례 15는 경주가는 길목인 호계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소외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도 거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조급함과 불안함을 표현한다. 노동자 아버지도 자식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시내 소위 ‘학군 좋은 지역’에서 자식을 교육시키고 싶은 욕망을 표현한다. 사례 11의 남편 역시 첫 자녀가 5세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학군 좋은데 가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싶어하며 자녀교육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녀들을 위하여 유학이라도 보내겠다는 여성들의 의지와 자녀들의 학습능력에 대한 남성

들의 관심은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 비중을 높이게 한다. 여성들은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유치원에 다니는 첫 자녀를 중심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첫 자녀 한 명에게 15만원~2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지역 사교육에서 특징적인 점은 문자해독 능력에 초점을 맞춘 학습지 한 두개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이나 유치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학습지 교육은 동질적인 집단거주지라는 특성과 맞물려 집단적으로 퍼져있다. 여성들은 “한 집에서 하면 서로서로 따라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웃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이 지역 가족 삶은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라는 비슷한 경제적 생활기반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과 수준의 사교육을 가능하게 한다.¹⁰⁵⁾ 자녀들에게 ‘육체 노동자’로 의미화되는 아버지의 직업보다는 더 나은 지위를 누리게 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은 여성자신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을 높이게 만들며 계급 양극화 인식에 따른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구체화된다.

3. 좋은 아버지와 권위적 아버지의 경계에서 강화되는 어머니역할

기존의 연구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자녀양육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되어 왔다(Komarovsky, 1962; Wearing, 1984). 울산지역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격형성에 관한 연구(최윤희, 1998)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인 경우가 생산직인 경우보다 자녀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그 근거로서 2교대 내지 3교대 생산직보다 관리직인 경우가 시간관리 측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추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다른 계층의 남성들 못지 않게 자녀양육에 높은 관심을 나

105) 사례 여성들은 집단거주지로서의 장점으로 “서로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경쟁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과 내용의 사교육은 그 이면에 이미 경쟁이 내면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타내고 있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을 ‘좋은 아버지’라고 의미화하고 있다.¹⁰⁶⁾ 그렇다면 ‘좋은 아버지’로 의미화되는 그들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은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가능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집에 있을 때 애들 씻기는 거는 참 잘 씻겨줘요. 애들 둘 씻기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신랑 있을 때는 다른 거는 안 해주는데 애들 씻겨주는 거. 목욕시키고 같이 놀아주고 그 정도 예요. 가사 일을 도와 준다든가 밥하는 거를 도와 준다든가 설거지를 도와준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 아저씨는 밥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애한테는 끔찍하니까 막 애들 데리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놀아주고 공차기하고. 그런데 애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럴 때는 엄마한테 안 붙죠. <사례 2>

내가 자식들한테 하는 거 반만 마누라한테 하면 내가 떠받들고 산다고 그래요. 애들하고 무슨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오면 자연스럽게 부대끼는 거. 아빠 뭐 하면 응 그래 뭐 그런거는. OO는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 아빠랑 목욕탕 갔어요. 되게 좋아해요. 자기애를. 어딜 가면 항상 데려가요. 세차를 해도 데려가고 시댁가도 데려가고 그런 편이에요. 뭐 살 것 있으면 수퍼를 가도 둘이 같이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OO는 아빠 오면 끝내주죠. 죽죠, 죽어요. 죽음이예요. <사례 17>

‘밥도 할 줄 모르는’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부인들과 나누지 않는 친밀한 감정을 자녀와 함께 목욕을 하거나 놀이를 통하여 나누고 있다. 남성들은 12시간 동안의 노동을 마치고 와서도 아이들을 씻기고 책을 읽어주는 것 등을 통하여 ‘좋은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남성들은 자녀교육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이 양육에 기꺼

106) Gavron(1966: 74-75)은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기혼여성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양 계급의 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육아에 도움을 주느냐’에 관한 기존논쟁에 있어 자신의 연구에서는 분명하게 숙련공 남성들 집단이 가장 참여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참여적인 남성들만큼 그렇지 않은 남성들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직업에 따른 일반화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 참여하여 좋은 아버지 역할에 충실하려고 하고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자의 세대간 재생산을 막으려는 아버지로서의 관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영남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혈통에 대한 집착’¹⁰⁷⁾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게 한다. 이 지역의 혈통은 ‘부계혈통’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남성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자식이고 그 다음은 부모님이며 부인은 세 번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녀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을 기본적으로 전제한 혈통주의이지만 부인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자신의 피가 섞인 ‘자신의’ 자녀라는 의식은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고 있다.

죽어도 애는 데리고 나가요. 애를 임신해서 싸우잖아요. 애는 낳고 니 갈길 가라, 애는 내 새끼니까 낳아주고. [왜 애 아빠 꺼예요? 부부 공동의 애죠!] 자기 꺼래요. 자기 꺼고. 우리는 다 O씨(남편의 성)니까 니가 O씨(남편의 성)냐? 보통 남자들 싸우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애 데리고 니가 나가 그런다는데 나를 친정에 가라. 나는 도저히 이런 사람이랑 못 살겠다고 하니까 “친정 가서 애를 낳아. 애를 낳아서 전화를 해. 전화를 하면 내가 애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랬거든요. 애에 대해서는 되게... <사례 17>

자녀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례 17의 남편 역시 자녀들을 포함한 자신은 같은 성(姓)이나 아이의 어머니만 다른 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자녀들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사례 16 부부가 자식을 어렵게 얻었다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례 16의 남편은 하루종일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하지 않지만 “애가 앵 하고 울면 먼저 깨서 애를 안고 흔드는” 끔찍한 부정(父情)

107) <표 8> ‘98년도 지역별 출생성비 현황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 수)

평균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부산	제주	충남	대전	전남	강원	경기 인천	전북	서울 광주
110.2	116.5	115.7	114.4	113.1	112.9	112.2	111.0	110.5	110.1	109.3	108.8	108.4	107.9

출처: www.suseong.daegu.kr/homepage/lpgm10/main04_1.htm (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

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과 노동자의 세대간 재생산을 막으려는 욕구에서 생겨난 좋은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일상적 자녀교육에 있어 권위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노동자’ 가족에는 공/사 영역간 다른 의미와 가치가 강하게 분리된 채 부여되어 있으나 남성들은 일상적 자녀양육에 있어서 여전히 강력한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혼자서 회사에서 신문같은 거 보며는 애들 교육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으면 고 부위 가져와서 나보고 읽어보라 하고 그라고. 회사에서 무슨 이야기 들으면... 애들한테는 그란 게 좀 민감하더라고. (중략) 큰애가 애기 때는 밤낮이 바뀌어서 첫 애 때는 분유를 먹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힘들더라구요. 밤에도 2시간마다 먹여야 되는데 저는 성격이 그렇거든요. 성격이 좀 덤벙대서 분유를 타서 대충대충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랑은 안 그러거든요. 밤에 새벽에 4시 돼서 일어나서도 평평한 데다 우윳병 딱 세워놓고.. 사실 새벽에 눈이 들떠지잖아요. 근데도 딱 세워놓고 눈금을 맞춰야 되고. 우리 신랑은 “젖병은 하루에 두 번씩 소독해야된다” 그라고. <사례 11>

우리 친정 오빠는 조카들 중에서 우리 애들이 제일 낫다고 그러거든. 아빠가 한마디하면 “네 아빠” 이러구. 큰아들, 작은 아들 그러면 “네 아빠” “네 아빠” 이거든. 딸네미! 하면 “네 아빠” 이래. 아빠가 딱 한마디하면 토를 달 이런 게 없어요. 잘 키웠어, 아빠가. (중략) 아빠가 자란 만큼 자기가 자라온 만큼 자식들한테 그런 거를 해주니까 믿는 거야. 교육열에 대해서는 내가 아빠를 존중하지. 나보다 나아, 아빠가. <사례 14>

사례 여성들은 자신들의 남편에 대해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효자 아들에다가 좋은 아버지’라고 평가한다. 사례 4를 제외한 여성들은 남편의 양육참여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어린데도 자녀교육을 위해 시내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례 11의 남편은 어린 자녀가 새벽에 배가 고파서 깨면 벌떡 일어나서 분유 양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평평한 곳에 분유통을 딱 세워놓고 분유를 탄다. 또한 사례 11은 회사에서 신문을 보다가 자녀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 읽으라 하고 젖병 소독하는 횟수까지 지정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새벽에 눈이 잘 떠지지도 않는 어머니로서의 자신’과 비교하며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의 남편의 권위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례 14는 개월 수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세 자녀(8세, 6세, 4세)를 직접 키웠음에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름에 대해 토를 달지 않고 “네 아빠”하며 응답하는 것을 보며 교육열에 있어서는 “아빠를 존중하며 자신보다 낫다”라는 말로 남편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 12도 자녀의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되고 안 되고를 딱 끊어주는 규율이 있으며 책도 읽어주고 가끔씩 목욕도 시키며 학습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애를 더 잘 키운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일상적 자녀양육에 있어 권위자로서의 아버지를 만들어 내는 또 하나의 배경은 생산직의 주/야간 2교대 근무형태와 평사원 의식이다. 야간근무 들어가는 월요일은 그 전날 밤에 집에서 잤기 때문에 월요일 오후에 잠시 낮잠만 자고 월요일 첫 야간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사례 1의 남편은 야간 들어가는 주 월요일에 첫 자녀가 다니게 될 태권도장을 직접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선택하는 정성을 보인다. 그리고 남성들이 야간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낮 시간 동안 집에서 주로 수면을 취하면서도 간간이 부인들의 일상적 양육방식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사무직에 비해 생산직 노동자들은 ‘승진’이라는 경쟁체계에 놓여있지 않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있어 업무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원만한 인간관계이고 동료와의 관계도 서로 경쟁의 대상이면서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김효선, 1987)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도 다양한 인맥을 구축하며 인간관계 형성에 열을 올리게 된다. 이에 반해 생산직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마음만 먹으면 가정을 위한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들이 자녀 교육에 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좋은 아버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혈통에 대한 강한 집착, 노동자의 세대간 재생산을 막으려는 욕구와 노동환경에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 남편들이 집에 머무는 동안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

저는 네 살까지는 애들 절대 안 때렸어요. 우리 신랑도 때리는 거를 못 봤거든요. 신랑이 애기 낳을 때부터 애는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또 애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애가 찡찡거리면 “엄마한테 와 와”해서 안 오면 몇 번 이야기 하다가 “(큰 소리로)너 왜 아침에 짜증내는데!”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신랑한테 한소리 듣거든요. “가서 안아주라”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되고 오라고 하거든요. 애가 짜증나니까 안 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거든요. <사례 11>

근데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관심 있게 그런 사람도 있대요. 왜 애를 안해주냐 그런 식으로. 우리 애 아빠도 그래요. 여건이 되는 이상은 애한테 투자를 다 해라면서(웃음) ... 애들하고의 관계는 편하죠, 내가 엄마니까. 근데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신랑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아빠 있는데서 되도록 애들도 되게 뭐라고 안하고.. 그게 싫다니까 그걸 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한번 그러지 말라 그런 게 싫다 그러면 그 뒤로 또 하면 잔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는 편이에요. 되도록 안 해야 되겠다. <사례 13>

사례 11의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찡찡거리는” 아이들에게 오라고 말만 할게 아니라 “직접 가서 안아 주라”고 이야기하며 스킨쉽에 의한 아이와의 정서적 공감을 강조한다. 사례 13은 “여건이 되는 이상 애한테 투자를 다 하라”고 말하며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남편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다고 말한다. 여성들은 남편들의 자녀에 대한 관심과 행동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남편의 자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상적인 어머니 역할수행에 대한 관찰과 통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여성들은 “애들을 봐서라도 신랑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되고” “아빠 있는데서 되도록 애들도 되게 뭐라고 하지 않게 되면서” 육아방식에 대해 자기검열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 화이트 칼라 중산층 가족은 뚜렷한 부부역할 구분을 특징으로 하며 (김은희, 1993; 문옥표, 1997) 여성들은 자녀의 학원이나 학습지를 선택하는 것 등의 일상적 자녀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 가족인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능적인 성별분

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남성들이 수행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 역할은 공동의 부모역할(co-parenting)을 가져오게 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남성들이 비록 가사노동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양육노동에의 관심과 참여로 인하여 여성들에게 의미화되는 ‘좋은 아버지’는 자녀양육에서나마 성별분업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참여방식은 자녀의 올바른 인격체 형성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역할배분의 시작이라고 보기 힘들다. 남성들은 일상적 자녀양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지우게 한 뒤 여성들의 어머니역할 수행에 있어 독자성과 자율성 행사를 방해하면서 보이지 않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어머니 역할수행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머니 정체성에서 일차적인 만족을 느끼는 여성들에게 좋은 아버지와 권위적 아버지의 경계에서 행하는 남성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주문은 남편의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라는 계층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하기 위한 여성의 욕구와 합쳐져 가정 내 어머니 역할의 소중함과 필요를 절감하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B. 집단 거주지에서 교대제 근무로 인해 구성되는 일상생활

H사 ‘노동자’ 가족들은 자동차 공단을 중심으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여 거주하고 있다. 도시 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수행을 하는 공간은 일터와, 이웃과 분리된 폐쇄된 공간이다. 가사노동의 상품화¹⁰⁸⁾와 소 자녀화¹⁰⁹⁾ 추세에도 불구하고

108) 물론 가사노동을 대체할 가전제품의 보급은 가사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게 하는데 일정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의 효율성의 한계는 분명한데,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대변되는 가사노동의 자동화는 가구라는 개별적 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요소 하나하나가 덜 힘들게 될지는 몰라도 그 요소 하나 하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새로운 가전제품은 새로운 일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정희, 1993: 34).

109) 1990년을 전후로 한 시기는 각종 대중매체 등을 통해 자녀양육의 담론들이 폭증하는 시기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무수한 담론들은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역설하고 있어 자녀의 정신적인 발달은 물론 심리적인 측면에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학적 모성애의 욕구는 부모의 역할이 어머니에게로만 전가된 상황에서

하고 전업주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점은 가사노동과 육아의 정교화와 더불어 폐쇄된 공간에서 오는 고립감과 외로움이다. 더구나 타 지역에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례 여성들은 더욱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의 근무형태인 주/야간 2교대는 ‘어머니’라는 정체성에서 편안함과 삶의 가치를 느끼는 여성들로 하여금 아내 역할과 어머니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든다. 그러나 집단거주지라는 지역적 특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고립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동질적인 집단거주지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이웃들과 어떻게 관계 맺고 그 속에서 만들어 가는 문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남편의 근무형태와 관련한 갈등해소에 이웃 간 네트워킹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국 그것이 가정중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1. 노동자 부인들끼리 말걸기

1-1. 여성들끼리의 소통과 공유의 장

결혼 초 남편, 주/야간 근무형태와 낯선 타지에서의 외로움에 대해 한꺼번에 적응해야했던 여성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 거주지에서 ‘노동자’ 부인들끼리 말 걸기를 시도한다.

같이 뭐 보면 한 집에 여섯 가구가 처음에 살았거든요. 다 자동차요. 주인집 따님만 자동차가 아니고 하청에 다녔었고. 그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었고 일곱 집이 살았는데 다 주야간이 조금씩 틀렸었어요. 다 신혼이 많았어요. 애 있는 집은 주야간이 틀리니까 놀기가 좋거든요. 지금도 그 친구들 아직도

어머니 역할의 과도한 부담을 강조하게 되고 어머니의 현실적 자아와 갈등을 일으키며 자녀에 대한 깊은 죄의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최근 소 자녀 추세가 여성들로 하여금 육아에서 더 자유로워지게 했다고 할 수 없다(이재경, 1998; 윤택림, 1996; 차우미, 1997; Hay, S., 1997).

만나고 계를 하거든요.... 신혼 때 우리 여자들은 아저씨들이 다 주무시면 마당에서 애들 데리고 나와 가지고 밖에서 추워도 두껍게 옷 입고 마당에 바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웅기종기 앉아 가지고 같이 점심 먹고, 왜냐하면 단칸방이니까 다 각자 문 열면 방이 쪼르르 있잖아요. 다 각자 방 하나 부엌 하나니까 부엌 문 열면... 방에 있으면 밖의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도 못 있고 사람 소리나면 하나하나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점심 먹고 하는데 주간에 출근하면 저녁은 집집마다 저녁에 7시에 먹어요. 점심 먹고 앉아서 놀다가 다섯시쯤 되면 밖에 같이, 슈퍼도 같이.. 출퇴근이 같다 보니까 같이 슈퍼에 가서 반찬 사 가지고 각자 들어가서 반찬하고. 아저씨들도 출근하면 다 똑같이... 왜냐하면 양정동에 살 때는 오분, 십분 거리니까요. 양정동 살 때는 다녀오세요 그 소리를 다 똑같이 해요(웃음) (중략) 부서가 틀리니까 조금씩 이야기가 틀린 부분 외에는 똑같아요. 하물며 어쩔 때는 반찬까지 똑같아요. <사례 2>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은 출 퇴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남성들이 주간근무를 마친 후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근시간은 예측이 가능하며 거의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직군 별로 월급 나오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시급제는 매달 5일이고 월급제는 매달 25일이며 보너스는 일괄적으로 짝수 달 말일에 나온다. 따라서 집단거주지에서 거주하는 노동자의 부인들은 남편이 같은 회사 생산직에 근무하는 것에서 동질감을 형성하며 ‘월급나오는 날에 함께 은행까지 가면서’(사례 16) 동질화된 삶, 평준화된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비슷비슷한 삶의 양식은 노동자 부인들로 하여금 서로간에 말 거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하며 누군가가 걸어준 말에 서로의 외로웠던 마음을 허물 없이 털어놓게 되는 것이다.

아들 병간호 할 때가 제일 힘들었지. 둘이 정신 없이 키웠지 뭐. 진짜로 미친 듯이 키웠(웃)다. 그때 우울증도 잠깐 왔었어. 진짜 아 내가 진짜 이려고 살아야 되나 싶고 둘이 연년생으로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아만 키우다가 다 늙는구나 싶고 하니까 우울증이 잠깐 왔다가 아줌마들하고 막 놀다 보니까 또 금방 가버리더라고. <사례 1>

애 키우면서 순간순간 힘든 점은 많았는데 뭐 이래 집에 있으니까 후회가 된 다던가 뭐 결혼해서 애 키우고 이런 게 후회되고 그런 거는 없는데 힘들 때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재밌기도 하고 아저씨랑 안 좋으면 낮에 아줌마랑 만나서 수다로 풀고 이라니까 괜찮고. 위의 아줌마(사례 16) 있을 때는 저녁에 한번씩 만나서 맥주 한잔씩도 하고. 위의 아줌마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아줌마가 겪었던 거 뭐 이런 거 이야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있는 거를 그 전에 겪었으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 해주고. <사례 15>

사례 여성들은 이웃들간에 활발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이웃 간의 교류를 통해 낯선 타지, 폐쇄된 공간에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립감과 우울증을 해소하고 있다. 연구자와 비슷하게 17개월 차이의 연년생 두 자녀를 키웠던 사례 1은 “내가 아만 키우다가 다 늙는구나” 싶으니까 우울증이 왔다가 아줌마들하고 막 놀다 보니까 금방 가버렸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다음날 이웃과 함께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린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웃 간의 공동체문화는 주로 ‘음식만들기와 나눠먹기’라는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구자가 울산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편이 주간인 집에 모여 김치 볶음밥, 칼국수, 수제비를 해 먹었으며 김치를 담그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모여서 갓 담근 김치를 찢어먹으며 정을 나누었다. 또한 월급이 나오는 날에는 색다르게 자장면이나 음식을 시켜 먹으며 기분도 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이웃 간 네트워킹을 통하여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애 키우는 엄마들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해야되나? 그게 다 정답은 아닌데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하면 중간쯤은 안다고 해야되나?(웃음) 아무래도 애 키워본 엄마들 이야기 들어보면 낯더라 그라고 요기 엄마도 내가 쪼매 더 키웠다고 무슨 일 있으면 뽐 전화와가,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아 우리 애도 그런 게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뭐 거의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데 순간적

으로는 엄마들은 당황해서 놀래거든. 애기가 조금만 그래도. 제 3자가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내 아가 그러면 큰일나거든(웃음). 그래서 그런데서는 책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키워본 엄마들은 다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게 된다고 해야되나? 아 우리 애도 그랬는데 괜찮더라 그라운 아 괜찮겠지 그라게 되고. 우리 아저씨도 내가 괜찮다더라 그라운 누가 그라는데 그래서 OO 엄마가 그라더라 그라운 야 너는 옆의 아줌마 말만 믿냐면서 그라거든(웃음). 의사 말도 아닌데 너는 그런 말만 들으면 마음이 편하냐면서 그라지. 근데 그랐더라고 옆의 아줌마가 괜찮다더라 그라운 반은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 <사례 6>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학적 모성을 강조하는 전문가 집단은 책과 비디오, 유아교육 교재 등의 상품 형태로 등장한다. 과학적 모성은 아이에 대한 공감과 애정에 대한 실천은 자녀교육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밑줄 치며 공부하는 어머니를 만들어내고 있다. 연구자는 울산에서 자녀를 키울 때 실제로 책을 보며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고 해도해도 끝이 안 보이는 완벽한 어머니에 대한 이상은 연구자를 더욱 괴롭혔다. 사례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간에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어머니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육아지식을 서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육아정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자가 거주하였던 임대아파트는 5년 만기가 되면 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울산 내 어떤 지역의 어느 아파트로 이사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정보를 확보해야만 한다. 연구자가 머물렀던 기간에도 여성들은 울산에 분양될 예정인 아파트의 종류와 분양가, 모텔 하우스에 갓있던 경험을 서로 나누고 비교하며 각자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있어 많은 정보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저희 아저씨가 어떻게 자세하게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도 잘 몰라. 그냥 2공장 젤 끝에 검사에 있다 그거 밖에 몰라요. 뭐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식의 그런 것도 잘 몰라요(웃음). 그래가지고 궁금해도 집에 와서 이렇게 자분자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협상 이런 거 할 때도 저는 궁금해가지고 옆의 아줌마들한테 들어서 물어보면 아 그런 거 나중에 해결 나면 알텐데 뭐 그렇게 궁금해하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그라고는 안하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노조의 힘을 키우고 뭐 이래 이야기하면 솔직히 우리 아줌마들의 주 내용은 금전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는 전혀 이야기를 안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OO 엄마가 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OO 엄마한테 물어보고... 잘 알거든. 그래서 궁금하면 그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니 어째 내보다 더 많이 아노? 이렇게 하거든, 우리 아저씨가. 누가 그라더라 누가 그라더라 정보 소식통 빠르다면서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우리 아저씨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는 이야기 잘 안하는 스타일 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웃들에게 막 듣고 그래서 알고. <사례 15>

사례 여성들의 노동자 남편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가정에서 부인과의 대화에 인색하다. 따라서 노동자 부인들은 살림을 하면서 회사에서 돈이 지급될 예정이라든가 회사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있으면 더욱 예민해져 궁금증을 표하며 알고 싶어하지만 남편들은 먼저 묻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주지 않거나 사례 15의 남편처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사례 여성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의 남편에게 들었던 각각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회사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갖게 된다. 사례 15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조에 상근하는 남편의 부인인 OO 엄마를 통하여 회사와 노조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 남편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남편들로부터 “니 어째 내보다 더 많이 아노?”라는 말을 통하여 이웃 간 네트워킹의 위력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집단 거주지내 자신의 생활영역 안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서로의 친밀함이 조성되어 자녀를 서로 돌려 키우는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다. 연구자가 머물렀던 사택임대아파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다른 지역처럼 아파트 문을 거의 잠그지 않고 산다는 점이다. 아이들은 오후에 학원이나 학교를 갔다온 후에 자신들의 친구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 야간이세요?”라고 확

인한 후 이집 저집 몰려다니며 놀러 다닌다. 여성들은 자녀들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그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고 목욕도 함께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자가 사례 18을 인터뷰할 때는 이웃에 사는 사례 17이 사례 18의 첫 자녀를 봐주고 사례 5를 인터뷰할 때는 사례 6이 사례 5의 둘째를 봐주는 등 각자에게 볼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 자녀를 수시로 돌려 키우며 자녀의 성장속도를 가늠해 보고,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흔히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 한정되어 어머니 역할이 행해지고 모성이 구성된다는 믿음과 달리 가정적 협동의 영역은 한 개인 가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넓은 지역 사회 안에서 위치하며 특히 남편의 직업이 비슷하고 사는 모습이 비슷한 울산에서는 공동 어머니 역할(Shared Mothering)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¹¹⁰⁾

이 지역에서 이웃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H사 생산직 남성 노동자들의 학력은 거의 고졸이다.¹¹¹⁾ 가부장제 사회에서 결혼이 이뤄질 때 여성들의 학력자원이 남성과 비슷하거나 낮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성들의 학력도 고졸(이하)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사례 여성들도 사례 4, 9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졸이며 영남권에 기반한 농촌 출신이다. 따라서 비슷한 학력수준과 성장한 환경이 비슷하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말도 더 잘 통하게 하는’ 공동의 정서를 형성하게 하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사례1)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 것이다. 그

110) 공동 어머니 역할(Shared Mothering)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어머니 역할 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들은 노예제이래 지금까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친인척 아이들 및 이웃 아이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보살필 수 있는 어른들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울산 지역에서는 여성이 이 역할을 전담하되 이웃 여성들 사이의 공동 어머니 역할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어머니 역할 연구에 대해서는 Stack, Carol B & Burton, Linda M(1994), "Kinscripts: Reflections on Family, Generation and Culture", Glenn, Evelyn Nakano, Chang, Grace & Forcey, Linda Rennie(eds.), *Mothering-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Routledge 참조.

111) H기업 생산직 노동자들의 최종학력은 고졸(고퇴)이 88.9%이고 전문대졸(대학중퇴)이 5.9%이다. 고졸이상의 학력이 94.7%인 것이다. H사 자동차 노조(2001), 『H자동차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울산 리서치 연구소.

리고 비슷비슷한 생활수준과 평등의식을 들 수 있다. H사 생산직 노동자들에게는 사무직에 일반화되어 있는 승진체계가 없다.¹¹²⁾ H사 생산직 노동자들 대부분은 수직적 위계서열이 없는 평사원이다. 따라서 남성 노동자들의 관계를 규정짓는 내용에는 평등의식이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비슷비슷한 월급을 받는 남성 노동자, 서로 위아래가 없는 남성노동자들간의 관계는 부인들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 간의 말 걸기는 쉽게 시도되는 것이다.

이웃 간 공동체 문화가 원활한 또 하나의 요소로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한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H사 생산직 노동자들은 유니온 샵 제도에 의해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H사 조합원들은 1987년 민주노조 건설 이후 매해마다 파업 등의 노동쟁의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계속 향상시켜왔다. H사 노동자 부인들도 H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뭉쳐야 산다’라는 집단주의적 의식을 몸으로 체감하며 노동자 의식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사례 여성들 모두는 H사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집단행동을 통하여 노동조건과 임금수준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H사 자동차공단주변에 거주지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여성들간 비슷한 자원의 양에서 오는 동질감, 평등의식, 집단주의적 의식 등은 이 지역 여성들간의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1-2. 동질화된 문화

집단거주지의 문화는 동질화된 문화를 특징으로 한다. 남성들의 작업장 문화도 집단성을 특징으로 하며 거주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서 동질성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각각의 동질화된 문

112) H사에는 조원→조장→반장→기사→주임→기장 정도의 승진체계가 있는데 조원에서 조장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 소요되고 생산 현장에서 그나마 선호되지 않으며 ‘승진’으로 의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금이 평 조원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고 회사의 말단통제기제로 인식되며 직책에 대한 권위를 작업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가 충돌할 경우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집단적인 거주지에서의 문화는 집단적인 작업장 문화와의 조율과 타협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집단 거주지의 이웃 간 네트워킹은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여성들의 소통과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인해 여성들로 하여금 삶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한다. 그리고 빈부 차가 없는, 비슷비슷한 삶은 여성들의 삶에 안정감을 가져오게 한다.

나는 여기가 빈부차도 없고 같이 모여 사니까 좋은 것 같애. 그런데 사실 뭐 사람이 왜 그 차이가 너무 나 버리면 그게 생길 수 있잖아, 우리 마음 자체도. 그런데 그걸 별로 모르고 산다는 건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나의 플러스가 되는 거지. 나한테는 좋은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애. 만약 사는 게 너무 차이가 나면 내 마음이 또 흔들릴 우려성이 있기는 하겠지. 그 차이를 많이 보면서 내가 불안해 진다거나 약간의 동요가 생길 수 있지는 않겠나? 사람이 항상.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닌가 싶고. <사례 18>

여성들은 갖춰놓은 가재도구부터 시작하여 사는 모습도 비슷한 집단거주지에서 위축감과 위화감을 별로 경험하지 못한다. 연구자도 연구대상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비슷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H사 회사와 노조에서 선물로 준 전자레인지, 거실의 시계, 베란다의 빨간색 아이스박스 등이다. 이것들만 보아도 이 집 남편이 H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거실에는 부부의 결혼사진이나 시집식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의 돌 사진 등이 걸려있고 자녀들 방에는 첫 자녀의 유치원 졸업사진 등이, 안방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TV, 비디오, 냉장고, 컴퓨터 등 기본용품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고 울산의 수질오염 등을 감안한 정수기 보급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자녀들 방에 3, 4전집씩 비슷하게 갖춰져 있는¹¹³⁾

113) 아동서적의 예를 들더라도, 비슷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아동서적 등이 기본적으로 몇 전집씩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게 될 자녀교육의 관한 높은

아동서적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집단 거주지에서 비슷한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이 가족은 이웃 간의 왕래를 통하여 이웃집의 인테리어나 가재도구, 유아교구 등을 보면서 동질화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상대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동질화된’ 문화의 특징은 동질하지 않은 것에 대한 끊임 없는 동화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있는 언니들이 있거든. 우리 하나 있는 언니들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는 거야, 하나만 낳으라고. 뭣 하러 둘을 낳냐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면 된다고 막 그리고. 우리 큰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하나만 낳아서 끝내라고 벌써부터 그리고. “진작에 하나만 낳아서 끝내라, 잉” 이러구. 나한테도 그만 낳으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울산) 오니까 진짜 하나만 낳은 사람은 한 집도 못 본 것 같애. 거의 둘 이상이고. 뭐 (둘)이상인 사람은 얼마 안 되고 거의 둘이지 뭐.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나만 하나만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OO언니(이웃 집에 사는 언니)는 맨날 네가 아직 애가 어려서 그렇다는 거야. 고생은 잠깐이라고 그라고. 키울 때 같이 팍 키우는 게 낫다구. 거의 다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부담 느끼지. OO언니는 압력 비슷하게 “하나는 파이दा(안 좋다)” 계속 그러지. <보조사례 5>

H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는 두 자녀 이상이 높은 비율(75.8%)을 차지하고 있다. 두 자녀 이상이 ‘규범’처럼 만들어지면 여성들은 집단거주지에서 적응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두 자녀’를 이상(ideal)으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점점 소 자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둘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주로 첫 자녀의 인성(자기만 아는 성격이 된다는 외로움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들, 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웃들을 통해 확인되는 비슷한 자녀 수 등을 포함한 동일한 생활양식은 이 여성들의 일상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첫 자녀가 10개월인(2002. 4.

관심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같은 출판사’의 ‘같은 서적’이란 점은 이 집단거주지에도 이미 경쟁이 내면화 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 경쟁심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비슷비슷한 경제력을 갖춘 집단 거주지에서 ‘이웃 집에 갖춰진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준) 보조사례 5도 충북에 사는 친정 언니들로부터 ‘한 명만 낳아서 끝내라’는 충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루프시술까지 하였으나 이웃들을 직접 보면서도 확인되고 옆집 언니로부터 매일 듣게되는 ‘두 자녀’에 대한 권유는 ‘부담’에서 더 나아가 ‘압력’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집단거주지에서 동화되는 삶은 ‘압력’으로 의미되지 않으며 집단거주지에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가장 만족이 큰 삶을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집단거주지에서 이웃 간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내용 중 뺄 수 없는 것은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의 공유이다.

동네 아줌마들 모이면 남편 힘들게 일하는 것 때문에 다들 속상해 하고 전부 다 그래. 남자들 안됐다 하고. 그래서 늘 아끼자고 이야기한다. 전부 다. 주야간 신랑들 힘들어서 버는데 우리가 도시 가스비든지 뭐든지 전부 다 조금씩 아끼자고... 모이면 그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잘 해주자고 그라고. 모이면 그 얘기하고 그래요. 나도 그러거든. 야간하고 이러는데, 힘들게 버는데, 사치스러운 옷도 사 입기 싫고.. 아끼자, 모이면 전부다 그 이야기야. <사례 1>

사례 1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각종 정보가 교환되는 이웃 간의 네트워킹은 ‘늘 아끼자고 이야기하며’ 알뜰하게 살림할 의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연구자가 신혼 초에 살았던 아파트에서도 알뜰함이 경쟁처럼 번지는 것을 자주 보아왔다. 15평소형 아파트에서 여성들은 안방에만 보일러를 틀어서 4명의 식구가 웅기종기 모여서 생활하곤 한다. 거실까지 따뜻하게 지냈던 이웃은 그것을 목격하고는 자신도 보일러 사용을 자제하며 서로 간에 가스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가장 많이 나온 집에 대해서는 “뭘 그렇게 많이 썼냐”며 타박을 주기 때문에 그 여성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처럼 집단 거주지에 거주하는 생산직 ‘노동자’ 가족은 이웃 간 네트워킹을 통해 비슷한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며 다른 선택을 힘들게 하면서 동일한 문화로 흡수해 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연구

자도 1차 현장조사를 위해 울산에 머무는 기간에 이웃들과 어울릴 때 그런 경험을 했었다. 다들 모여서 이야기할 때 임신한 한 여성이 “애들하고 남편 것까지 해서 운동화를 세 개나 빨아서 허리 아프다, 남편이 자기 운동화 정도는 빨아 신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다른 여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남편 운동화 하나 빨아준 것 가지고 뭐 그러냐,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라는 반응을 하였다. 이처럼 임신했을 때만이라도 작은 집안 일의 참여를 요구하는 여성의 요구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라고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처럼 ‘남편’의 사업장 주변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여성들은 보이지 않게 서로를 동화시키고 자신도 동화되며 동질적인 삶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집단적으로 동화시키는 삶은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고 대규모 사업장에 모여 작업하는 남성노동자들에게서도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나는 남자들이 요즘에 집안 일도 어느 정도는 하는 줄 알았었는데 여기(울산) 딱 와서 오니까 동네 아저씨들하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아줌마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OO(남편 이름)씨같은 사람 없다, 대단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술 마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나도 그런 생각이 들고. OO씨도 자기를 자꾸 잘한다고 해주니까 우쭐해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오기(울산) 전에는 당연히 하던 집안 일도 이제는 자꾸 고마워하라고 하고. 그리고 옛날에 나 임신했을 때 임신 출산에 관한 책 같은 거 회사에 가져가서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고. 남자 망신 다 시킨다는 등 그러더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도 자꾸 그런 말 듣고 그러니까 보기가 그렇지. <보조사례 5>

보조사례 5와 남편은 비 영남권 출신이며 보조사례 5의 남편이 정리해고 당했을 당시 서울 수도권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2000년도에 복직되면서 울산으로 내려오게 된다. 보조사례 5는 평소 복직하기 전, 수도권에서 직장생활 할 때는 남편과 가사노동을 많은 부분 분담했다. 그러나 울산, H사 사람들로만 구성된 사택임대아파트로 오게 되면서 남편의 이런 행동은 동네에서 ‘튀는’ 행

동으로 의미된다. 동네 아줌마들로부터 듣게되는 ‘OO씨 같은 사람 없다’라는 언설은 남편에 대한 칭찬이면서 동시에 아내의 갈등표출과 불만을 잠재우는 효과를 갖게 된다. 그리고 보조사례 5의 남편이 출산과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직장에서 육아관련서적을 읽게되는 행동은 ‘남자망신 다 시키는’ 행동으로 의미되고 다음부터 공동부모역할에 대한 관심에 입각한 행동을 줄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된다. 남성들이 개별적으로 자녀양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강인한 남성성을 상징하는 코드가 내재돼 있는 작업장문화는 ‘여성의 일’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을 읽는 것을 ‘사내답지 못한 행동’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문화는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남성문화는 술 못 마시는 남성을 ‘쫄쫄한 남성’으로, 가사 일에 참여하는 남성을 ‘남자망신 다 시키는 남성’으로 의미화하여 보이지 않는 견제와 동화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들간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안채문화는 남성들의 작업장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담론에 의거하여 남성들이 가정 일에 결부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2. 남편의 근무형태에 따른 갈등과 일상

H사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주/야간 근무형태는 여성들에게 큰 갈등을 안겨 준다. 여성들은 밤새도록 일하고 온 남편을 쉬게 해야 한다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편안한 놀이, 교육, 정서, 교우관계도 배려해야 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남편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서 잘 때 수시로 자녀에게 “조용히 해”하며 애를 잡게되면서 떠드는 애 입을 막아 놓을 수도 없고, 뛰어다니는 애 다리를 묶어놓을 수도 없는’(사례 2)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긴장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례 여성들은 ‘어머니’라는 정체성에 대해 만족하고 삶의 가치를 느끼며 자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육체노동을 하는 남편의 일상과 자신의 일상간에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

2-1. 남편이 주간근무인 이웃에 마실가기

집단적으로 밀집된 동질화된 거주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은 이웃 간의 친밀한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남편들을 편히 쉬게 하고 싶은 아내의 역할과 어머니의 정체성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간에 소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이웃 간 공동체 문화는 남편이 주/야간 근무를 한다는 특성에서 더욱 활성화된다.

우리는 조가 다 같으니까. 이시간 집은 조가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간 때는 그 집 가고 그 집 야간 때는 우리 집 오고 그랬는데. 여기는 조가 같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애가 어리고 그러니까 거의 언니네 집에 가서 많이 살죠. 가 가지고 아침에 OO 딱 보내놓고는 “야 올라와, 밑에 있는 집 올라오라고” 그러면 차 마시고 점심 먹고 OO올 때쯤 돼서 오고 그래요. <사례 17>

우리 아저씨는 잠을 못 자면 못 이겨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자야돼요. 아침에 누가 안 깨우면 내일까지도 자도 자요. 그래 잠이 많아요. 자고 있을 때 깨우면 신경질 적으로... 그래서 야간 되면 윗집을 가더라도 가요, 그게 편해요. 그래서 많이 놀다가 3시나 되면 들어와요, 한숨 잤다 싶으면. [주로 어디 가세요?] 윗집에 사는 아줌마 집에 가서 개기는 거지. 10층은 애가 다 컸거든요. 초등학생이라서 별 그게 없어서 놀고. 아니면 같은 애, 어린 아 있는 집에. 아저씨 주간만 하는 집에 가죠. 아무래도 힘들죠, 야간하면 신경이 많이 쓰여요. 저녁에 일하러 들어가는데 잠을 못 자면... <사례 13>

여기서도 확인되는 것은 여성들이 남편이 주간근무인 집에 마실을 가더라도 남편과 자녀의 일상에 축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전에 큰 애 딱 보내 놓고 놀러갔다가 점심 먹고 큰애가 올 때쯤 돼서 오거나’ ‘윗집에 갔다가 남편이 한 숨 잤다 싶으면 들어오는’ 사례 17, 13을 보더라도 여성들은 이웃에

게 놀러 가서도 자녀가 돌아올 시간이나 남편이 숙면을 취하고 일어났을 시간을 계속 체크하며 민감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가 사는 사택임대아파트에는 대부분 H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남편의 근무형태에 따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웃 간의 공동체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사례 16이 지적하는 것처럼 애를 조금 키워 봤거나 애가 한 명인 집, 사람들이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하게 맞이하는 집이 소위 아지트화 되어 있다. 따라서 주간근무를 하는 집에 9시부터 모여 앉아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함께 해 먹으며 큰애가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 되면 자리를 정리하게 된다. 물론 이런 식으로 형성된 이웃 간 커뮤니티 속에서 함께 밥도 비벼 먹고 수제비와 칼국수를 해 먹으며 전 날 남편과 싸웠던 이야기 등을 하며 스트레스도 풀고 자녀를 힘들게 키우며 올 수 있는 고립감과 불안함을 해소해간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도 함께 교환하고 서로의 생활을 비교, 점검하면서 동질화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2. 남편을 쉬게 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나오기

초기 양육기의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요구도 많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울음과 보채는 방법으로 관심을 끌려고 한다. 남편들을 편히 쉬도록 배려하고 싶은 여성은 본능에 입각하여 시끄럽게 욕구를 표현하는 어린 자녀를 보면서 결국 밤새도록 노동하고 온 남편이 조용하게 쉴 수 있도록 집을 나서게 된다.

우리 아저씨가 잠귀가 억수로 밝거든, 예민하고. 베개만 배면 잠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신경이 제가 꼼꼼하다고 했잖아요. 꼼꼼하니까 그만큼 신경이 예민하니까 조금만 떠들면 잠을 못 자니까 야간하면 피곤하니까 2, 3시간은 자. 아무리 예민하다고 해도 피곤하니까 2, 3시간은 자는데 그 이상은 떠들면 못 자는 거라. 그러니까 자주 나와 살았지. [주로 어디 가셨었어요?] 그러니까네 여(사례 5를 가리킴)가 친하게 지내니까 여기는 주야간을 하는데 우리랑 바뀌었어. 여가 주간하면 우린 야간이고. 아저씨 야간하면 우리 집으

로 오고 주간하면 내가 오고. 어차피 우리 아저씨가 야간 때 오후에는 잠을 잘 못 자니까 오전에 잠들고 나면 고 때 잠깐 있다가 11시 이레 되면 시장 나오잖아. 시장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데 나오고. 문화회관 가면 애들이 잘 놀잖아.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하니까. <사례 6>

사례 5의 남편은 ‘(나가지 않아도) 괜찮다, 괜찮다’고 하였지만 여성 스스로는 자신이 집에 있음으로 인해 잠을 못 자면서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며 회사가 운영하는 문화회관 등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연구자가 사는 사택임대 아파트는 문화회관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여서 자주 이용하였는데 사례 5, 6에 대한 인터뷰 이후 자신의 둘째를 업고 와서 문화회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례 5, 6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연구자도 울산에서 연년생 두 자녀를 키우며 남편이 야간근무일 때는 주로 나와서 시간을 보냈다. 아는 집이라도 너무 자주 가면 폐를 끼치게 될 것 같아 첫째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둘째 아이를 포대기로 업고서 공단주변 거리를 하루종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때 연구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이고 주간근무인 주가 거의 다 가고 주말이 다가오면 야간근무가 시작된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 까지 하였다. 울산시 중구에 학성공원이란 곳이 있는데 80년만 해도 H사의 임금이 높지 않아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여 그 곳에서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때 당시 학성공원엔 많은 H사 노동자 부인들이 애를 업고 나와서 시간을 보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한다.

여성들이 남편을 쉬게 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나오는 되면 실제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나와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고립된 가정에 있는 것보다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바깥 나들이에 인색하게 되기 쉬우나 자녀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접하게 해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물리적인 공간인 집을 나서게 되는 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이다.

H사 (남성)생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주/야간 근무는 밤에 집을 비우게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하는 성별화된 경영전략이다. 여성들은 한 달에 반(2주)은 남편의 노동환경과 관련하여 자녀를 중심으로 한 삶을 보내지 못하고 남성들의 일상에 맞춰 생활해야 한다. 사례 6은 2, 3시간만 폭 자고 그 후에는 잘 깬다는 남편의 수면리듬을 파악하여 남편이 2, 3시간 숙면을 취한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서 집 근처로 나가고 있다.

여성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남성의 일상에 맞춰 자신의 스케줄을 조정한다. 시내에 볼 일이 있거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볼 일은 남편이 주간 근무인 때로 미뤄진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쉴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면서 남편이 숙면하는 시간, 깊이 잠들지 못하는 시간 등의 수면리듬을 파악하여 자녀와 함께 외출을 한다. 집 근처로 한정된 외출에서 돌아오면서 남편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귀가할 때는 시장에 들려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들어와 남편을 깨우고 저녁식사 준비에 들어간다. 이처럼 여성들의 시간은 가족의 요구와 관심으로 채워지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면서 분할되어 간다. 더 나아가 주/야간이란 근무형태는 여성들의 일상과 관련한 행동반경을 집 주위로 한정시킨다. 집 주위로 한정된 여성들의 공간과 시간은 가족원을 중심으로 분할되어 구성되어 간다.

2-3. 남편을 위해 집에 머물기

남성들이 야간근무일 때 여성들의 활동반경이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중 가장 극적인 것은 집에 머무는 것이다. 집에 머무는 행동은 ‘나가지 말라’는 남편의 언설에 직면하거나 중간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는 남편의 식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아빠는 나가는 거 싫어한다. 야간하고 들어와서도 자기 잘 때 같이 자자고 하고 티브이를 보더라도 같이 누워서 티브이보고... 같이 있는 거 좋아하니까

야간 때는 될 수 있으면 안 나가지. <사례 1>

남성들이 야간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오면 여성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때이나 남성들에게 그 시간은 밤새도록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에서 쉬는 시간, 즉 ‘밤’으로 의미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생활리듬에 맞춰 자기 잘 때 같이 자자고 부인에게 권유하기도 한다. H사 생산직 노동자의 부인들 중에는 남편처럼 똑같이 주/야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도 있다. 이처럼 남성들이 아침에 퇴근해서 잘 때 옆에 누워서 같이 잠을 자게 되면 남편이 출근한 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녘까지 안 잔다고 잠시 눈 붙였다가 남편이 퇴근해서 잘 때 또 같이 자는 것이다. 사례 8은 남편의 식사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경우이다.

우리 아저씨도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계속 잠만 잘 수는 없잖아요. 간식도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2시쯤 깨서 라면이나 아니면 식은 밥이라도 비벼 먹고 한 4시 돼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례 8>

신랑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 게 아니고 아침 먹고 쪽 자다가 저녁 먹을 때가 있고 아니면 아침에 잤다가 점심 11시에 깰 수도 있고 3시에 깰 수도 있고 하면.. 우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는 시간이 밥 시간이거든요. 무조건 일어나면 밥 줘야 돼요. 눈만 뜨면 “밥 뒤(줘)!”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못 가죠. <‘울산지역 생산직 노동자 가족 내 전업주부의 어머니 역할과 모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인터뷰 내용 중>

남성들이 야간근무에 들어가게 되면 남성들은 집에서 두끼의 식사를 해결해야만 한다. 주간 때는 아침식사 한끼만 집에서 하며 공장에서 점심, 저녁을 집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야간 때는 퇴근하고 온 남성들의 아침식사와 저녁에 출근하기 전에 저녁식사를 가정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더군다나 남편들 중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간식을 먹는 경우는 그 여성들의 일상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편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게 된다. 여성들은

주/야간으로 달라지는 노동자 남편의 일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상시간을 구성하고 이것과 관련해 존재하는 갈등은 밤새도록 일하고 온 남편에 대한 배려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핵가족은 부부 중심적인 서구와는 달리 자녀중심적이라고 밝히고 있다(김자혜·김미숙, 1990; 김은희, 1993; 심영희, 1996; 윤택림, 1996, Lee Jae Kyung, 2000). 문(文)을 갈고 닦아 ‘장원급제’하는 것이 온 가문의 명예가 되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 중산층 가족에게는 특권과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기층가족에게는 계층상승의 수단이 되면서 ‘자녀교육’과 관련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게 된다. 예전에는 살림 잘하는 것이 주부로서 최고였지만, 지금은 애 잘 키우는 것이 최고가 되었고 따라서 어머니들은 의식주 가정관리활동보다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된다(심영희, 1996).

아이가 커갈수록 입시부담이 커짐에 따라 어머니의 ‘자녀교육’ 역할 수행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들¹¹⁴⁾과는 달리 H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전업주부들은 전적으로 ‘자녀교육’에만 집중할 수 없다.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은 가정에서 자녀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확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구대상 가족에서는 생계부양자인 남편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자녀교육을 관리하며 어머니 역할을 하는 낮 시간에 남편은 1주일 단위로 방 하나를 차지하고 수면을 취하게 된다. 남성들의 밤과 여성들의 낮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이루어지기에 여성들은 남성들이 휴식을 취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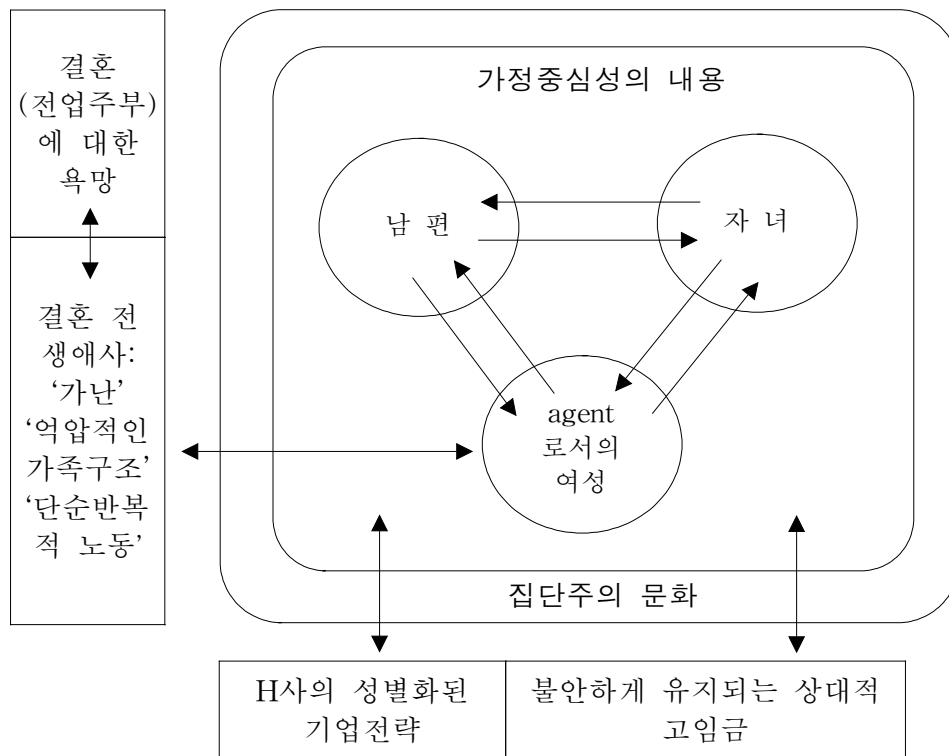
114) 심지어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시간문화를 입시 뒷바라지를 하는 어머니 역할과 연결시킨 논의가 있을 정도이다. 중산층 전업주부에게 일상은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어머니 역할로 구성된다. 자세한 것은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 여성학』 제 12권 2호 참조.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내로서 밥을 챙겨주는 역할은 어머니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남편의 교대제 근무로 인해 자녀의 놀이와 학습지도에도 리듬이 깨지고 자녀들의 사교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지만 어머니 역할수행은 남편의 일상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남편이 야간근무를 한다는 특성과 맞물려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집단거주 지에서의 여성들간 공동체 문화는 남편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아내로서의 역할과 어머니로서의 정체성간 긴장을 해소시키고 부부갈등도 완화시키는 완충지의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지지와 힘을 보내고 있다. 전업주부의 일상은 사적인 영역에서 고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는 달리 이 지역 여성들은 공/사 이분법을 교란시키면서 여성들만의 영역과 문화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부운동 등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남편의 직장과 직급을 매개로 한 ‘동질성’을 특징으로 한 안채문화는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지위를 지지하고 남편들의 가사노동 참여를 막으면서 성별분업을 더욱 굳건히 하는 기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들간 네트워킹 속에서 여성들은 남편들의 교대제라는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공간적으로 ‘집’을 중심으로 한 활동반경을 갖고 시간적으로 가족구성원의 스케줄을 세심하게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남성들은 가정을 ‘여성들이 관리하는 영역’이며 일체의 가사노동을 여성의 책임이라는 가부장적 편견을 굳히게 되면서 남녀간의 역할분리가 심화, 여성들은 가정영역 외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지 못함으로써 가정중심성은 강화되어 간다.

지금까지 논의한 ‘노동자’ 가족의 가정중심성 형성 및 강화과정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림 2> 가정중심성 형성 및 강화과정



H사 '노동자'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족생활은 여성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어떤 내용의 교육을 받고 가족원을 포함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주고받았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과거는 현재에 의해 다시 재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결혼 전에 가난하고 억압적인 가족구조에서 결혼 전까지 단순 반복적 노동에 종사하며 탈출구로서 결혼(전업주부)을 꿈꿔왔던 사실은 사례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구조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H사의 상대적 고임금 수준은 아내들이 전업주부로 있을 수 있고 남성들이 생계부양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부인의 경제활동을 막을 수 있는 물질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H사가 운용하

는 교대제 근무와 가부장적 기업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적 요구에 민감하게 하고 남성들에게는 가사노동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연구대상 가족에서 가정중심성의 배경이 되는 것은 생애사, H사의 성별화된 기업전략과 상대적 고임금 수준 등이다. 사례 여성들과 남성들이 생활하는 집단 거주지와 집단적 작업장은 그 자체가 가정중심성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현재 구성되는 집단주의 문화는 다양성에 한계를 짓고 성별분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들은 남편이자 생계부양자인 남성에 대한 내조는 의무로서 의미하고 있다. 남편은 부인에게 남편으로서의 애정적 친밀함을 보내지는 않으나 각종 자녀교육이나 시집에 대한 세밀한 보살핌을 주문하고 있다. 남편과의 관계와는 달리 친밀한 관계를 주고받는 관계는 자녀를 통해서이다. 남성들은 자녀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자녀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다. 자녀는 노동자 남성과 전업주부 모두에게 기대와 만족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들은 1차 적으로 어머니 정체성에서 많은 만족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느끼지만 교대제 근무로 인하여 여성들의 생활은 남성들의 일상에 의해 강하게 틀 지워지고 남성들의 숙면을 배려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자녀양육 못지 않은 중요성을 띄게 된다. 결국 여성들은 가정중심성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배경 속에서 가족관계(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하여 가사노동을 1차 적으로 자신의 일이며 여성이 있어야 할 공간은 집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가정중심성은 형성, 강화되는 것이다.

V. 결론 및 종합논의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범주화하여 다른 영역과 역할에 배치시키는 성별분업을 내면화하고있는 가정중심성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울산지역 대기업(H 자동차 회사) 생산직 ‘노동자’ 가족의 가족생활을 여성의 경험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정중심성이 어떻게 형성, 강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남녀간의 위계질서에 근거하여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갖는다.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가정중심성’은 외부세계와 분리된 안식처로서의 가정이란 이상과 남녀간의 차이에 입각한 평등이란 외피를 두르고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은폐하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이다. 최근 생계부양자(남성)와 가사전담자(여성)로 구성된 핵가족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고 여성의 경험을 왜곡시키며 남녀간의 권력관계를 은폐시킨다고 비판받아왔다.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경험은 갈등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가족에서는 성별분업에 기반한 핵가족, 즉 ‘정상적인 가족’이 보편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여성들은 아내와 어머니라는 가정 내 역할에 만족하고 정체성의 근간을 가족에서 찾으려 가정중심성을 적극적으로 강화시키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에서 만들어지는 가정중심성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여성들은 가정중심성을 강화하는 사회경제적 배경들과 연결되어 가족을 벗어난 개별적 정체성과 다양한 의제를 생각하기 힘들어지고 자신들만의 관심과 활동들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는데서 오는 안쓰러움과 남편에 대한 배려를 ‘식사준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들은 육아를 포함한 가사노동

일체를 힘든 일 하는 남편을 위한 당연한 역할과 의무로서 의미화 하며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만족의 근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남성들은 가정에서 식사 준비를 포함한 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육아에서는 남아에게 남성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 가족은 평등을 지향하며 변화하고 있는 현 사회에서 ‘권위와 성별성을 만들어내는 공장prestige and gender-production factory’, 즉 가부장제의 원형으로 기능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례 여성들이 결혼을 도피처로 의미하며 만든 새로운 가족이 역설적이게도 자녀세대에서 또 다시 가정중심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로 자리잡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여성들이 가족 내 역할과 정체성에 자존감의 근원을 두게되는 것은 가정 내 남성들의 권위와 권력을 강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가정 내 가장권과 성별분업의 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권력질서와도 연결돼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2001년 현재 기혼여성 중 49%(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연보」)가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이혼 및 동거혼, 여성가구주¹¹⁵⁾,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 등을 보더라도 기혼 여성을 한 남성의 아내와 어머니로만 위치시키는 각종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저항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주체로서의 정체성들을 재구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행위자agent로서 생애사와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아내와 어머니 정체성에 만족하며 정상가족의 주체로 있게 되면 안식처로서의 가족,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성별분업이 더욱 굳어지게 된다. 이런 현상은 평등을 지향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고 다양한 가족을 꾸려 가는 여성들의 경험, 삶을 비가시화 하고 배제하면서 그들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결혼 전 삶의 연장선에서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전업주부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였다. 여성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피

115)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현재 전체 가구주의 16-19%는 여성 가구주이다(강이수·신경아, 2001: 85).

아노, 수영, 운전 등 자녀와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배우고 싶고 ‘이후에도 일하고 싶지 않다’며 가정지향적인 home-oriented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 전 자신이 종사했었던 노동을 ‘비전문적인 일’로 의미화하고 있으며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 여성들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다는 다소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여성들은 결혼 전 성별과 학력으로 위계화 되어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 ‘비전문직’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게다가 남성중심적 공업도시에서 남편의 월급을 아껴 쓰면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한 경제적 현실 속에서 전업주부가 자신에게 가장 만족을 가져오는 지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제적 주체가 되고 싶은 욕구는 무의식 내면으로 묻어두며 전문직에 대한 꿈을 자식에게 투영시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여성들은 가정중심성을 강화시키는 적극적인 주체가 되고 있으나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여건이 주어지면 자신들의 관심사로 가정이외의 영역도 포함시키며 가족중심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전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정중심성은 ‘가정’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안식처로서의 가정에 관한 신화가 존재하는 것은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가정 이외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화·근대화 이후 성별분업이 강화되었던 것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뿐 아니라 가정 내 책임을 공유할 수 없도록 장시간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직업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Williams, 2000). 따라서 인간성을 실현시킬 수 없도록 믿어지는, 가사노동에서 완전히 면제된 남성노동자들의 경험과 생애주기에 입각하여 설계된 노동세계에 관한 성찰과 비판 속에서 가정중심성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연구대상 가족에서 형성되어 강화되고 있는 가정중심성을 어

떻게 약화시키고 가정과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첫째, 가정 내 가부장적 특권을 유지시키는 ‘장시간 노동’, 그것을 유지시키는 기제인 교대제 근무와 ‘시급’이란 급여형태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남성들이 주간에도 장시간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모두들 잠자는 시간인 밤에 안자고 일하는 야간근무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담당하는 많은 가사노동을 ‘밤새도록 일하고 온’ 사람의 노동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야간 근무를 하는 남편들의 노동과 자신들의 노동을 비교하면서 ‘빈둥빈둥 집에서 논다’, ‘결혼해서 여태까지 지겹게도 놀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스스로를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으로 강하게 의미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H사 자동차 조립원들은 총액 중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일한 시간만큼 계산되어 시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체계는 남성들로 하여금 임금 보존의 수단으로서 연장근무를 당연시하게 하고 과로로 회사에서 사망할지언정 특근을 자원하게 되는 유인책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성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시간 일터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남성들은 가정 내 책임을 면제받게 되고 여성들은 더욱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 따라서 주야간 맞교대와 시급제는 생계 부양자로서, 가장으로서의 남성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기제가 되기 때문에 가정 내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경총, 노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그 시기와 대상, 내용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¹¹⁶⁾ IMF 당

116)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 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9년 동안 6단계로 실시되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2007년 이후에나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된다. 민주노총(2002)은 이 법안이 주휴일·생리휴가 무급화, 중소기업세, 비정규 노동자 희생을 볼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할 뿐이라며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함께 주 40시간 노동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법제화에 무게중심을 두고있는 민주노총과는 달리 주 5일 근무 도입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양대 노총이 생각하는 무게중심은 약간씩 다르지만 최종 목적지가 주 40시간 노동의 법제화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김도형(2001)은 노동계의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그 핵심이 변형노동시간제의 확대에 있고 노사협조주의,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논의로 바뀌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주 5일 근무제 기본계획’에 따르면 H사에는 2003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게 된다.¹¹⁷⁾ 2003년 이후에 H사에 적용될 주5일 근무제를 통한 노동시간 단축은 H사에 ‘시급’이란 급여형태가 존재하는 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급제 폐지만으로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이 단축된 만큼 가족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기존에 가정에서 누려오던 가부장적 혜택 포기 등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¹⁸⁾

이 가부장적 혜택에 대한 포기는 두 번째로 ‘1가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파기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H사가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가져올 수 있었던 근저에는 대공장의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타협주의라는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기조가 그 근본바탕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논의는 ‘비정규직 철폐’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여성노조는 ‘여성노동권’ 측면에서 주 5일 근무 안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 5일 근무제는 유급휴가 폐지와 변형근로제의 확대로 규모가 작은 영세상업·서비스업종에 대부분 고용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과 노동시간 증가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노동악법 개악안 즉시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117) 현재 H사에는 격주 휴무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남성들은 연장근로의 형태인 토요일 철야특근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격주휴무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2003년 이후 시급제도가 유지되면서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주말특근을 강행하게 되면서 여성들은 가정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성들에 대한 내조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결국 H사 노조는 2003년에 시행될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해 생계부양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각종 임금보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8) 만약 H사에서 구체적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안전망을 갖추어 놓은 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게 됐을 때의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어야만 한다. 만약 연구대상 가족에서 남성들이 설사 현재의 임금수준과 비슷한 선에서 임금을 보전 받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양육노동, 감정노동의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남성들이 주말 내내 이틀 동안 집에 있게 되면 여성들은 6끼의 식사준비를 주말이 오기 전에 미리 고민하고 장을 보거나 ‘남성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주말 전에 등산화와 배낭을 짊어 놓고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싸며 달걀을 삶고 있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생계부양자로서 남성노동자와 피부양자로서의 처'라는 가족임금 이데올로기가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에 의한 가족 내 위계질서와 성별분업은 또 다시 생계부양자 모델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자본주의 산업화 이래 여성은 그렇게 많이 일을 해 왔음에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주체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경제위기 때마다 위기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근거에는 이처럼 대 공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 요구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조순경, 1998: 6). 따라서 H사가 임금협상을 준비하며 모든 노동자의 부인들을 피부양자로 위치 지우며 협상 요구안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수정이 요구된다. '1가족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가리고 박탈하면서 가정 내 성별분업을 또 다시 강화하게 되고 남성들에게도 '일 중독'이라는 비인간화를 초래하게 한다. 따라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지 않은 노동주체상정은 남성들로 하여금 가부장적 혜택을 포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적 노동을 하게되는 계기가 됨으로써 여성들이 개별적인 정치, 경제, 삶의 행위자(김현미, 2000: 59)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럴 때만이 남녀 모두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동의 기회를 갖게 되면서 가정 내 책임을 공유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가정주부를 '선택'하는데 내포된 차별의 문제는 전일제 어머니를 상징하고 운영되는 각종 학교 프로그램, 모성이데올로기 등과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리고 그 차별을 언어화시키며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울산 지역의 지식생산과 유통의 과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울산지역은 노동자도시로 상징되면서 타 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 가족들로 구성돼 있다. '노동자' 가족 내 여성은 기업 측에 의해, 노조측에 의해¹¹⁹⁾ '남성으

119) H사에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의미에서 각종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노동자 후보를 출마시켰다. 그때마다 노동자의 부인들은 남편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노동자' 또는 '노동자 가족'으로 호명되고 동원돼 왔다. 예를 들어, 2000년 6월 H사 노동자 후보가 시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왔을 당시에도 '가족과 함께 노동자의 자존심을 보여주자!'(H자동차 노조 소식지, 2000년 6월 7일자)라는 각종 유인물이 등장했었다.

로 대표되는 노동자 가족'으로 계속 호명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벗어난 일 주체로서의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물음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여성 NGO 활동가도 남성 노동자가 경제위기 시에 구조조정 되면 남편과 함께 울산을 떠나게 되면서 운동이 축적되지 못했다.¹²⁰⁾ 따라서 인구 백만이라는 광역시답게 울산에는 다양한 운동과 이론을 제기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확충될 수 있는 교육여건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NGO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여성들간 네트워크는 가부장제를 상호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들은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전략에 맞서는 대안 문화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가족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 가족을 여성의 경험을 통한 질적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기존 노동자 가족연구에 내포돼 있었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풍부하고 역동적인 노동자 가족 삶을 드러내었다. 맞벌이를 함으로써 성별분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었던 기존 노동자 가족과는 달리 변화되고 있는 특정 노동자 가족은 매우 가부장적일 수 있다는 함의를 드러내었다. 따라서 계층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양극화되고 이질화가 심화되는 노동자 가족은 세분화되어 연구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노동자 가족연구는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는 기업의 특성, 작업장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연구되어야 함에도 가족 안의 영역으로만 한정되어 진행

120) 보조사례 8은 남성중심적인 공업도시에서 여성운동이 힘들다는 것을 98년 IMF를 겪으면서 실감했다고 한다. 보조사례 8이 일하는 여성단체도 노동자 부인들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던 여성들의 남편이 98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돼 함께 울산을 떠나게 되면서 활동의 위기를 경험했다고 한다.

되었었다. 본 연구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가부장적 기업문화와 가족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통해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나는 구체적인 현장을 드러냈다. 그러므로 이후 가족연구는 가족을 둘러싼 지역문화, 사회경제와의 상호관련 속에서 연구될 필요성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울산지역, 특정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 가족 내 첫 자녀가 취학 전인 전업주부의 경험을 통하여 가정중심성이 어떻게 형성, 강화되는지를 고찰하였다. 따라서 초기양육과정시기를 거쳐서 어머니로서의 잔손이 상대적으로 덜 가는 여성들의 경험은 본 연구내용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기업 생산직 노동자가족에게 일반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연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통계, 연감, 정부기관 백서

행정자치부(2000), 「한국도시연감」 제 29호.

울산시(2000), 「시정백서」.

통계청(1999), 「지역통계연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연보」(1996~2002).

2. 일반 문헌

강인순(1991), “마산·창원의 노동자계급의 가족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김경애(1999), 『한국여성의 노동과 섹슈얼리티』, 풀빛.

김도형(2001), “신자유주의 공세에서 노동시간단축투쟁의 오류”, 월간 『사회진보연대』 9월호.

김부성(1992), “도시 중산층 아파트의 생활 환경에 대한 연구”, 『도시중산층의 생활문화』, 한국정신문화원.

김은희(1993), “일·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 한국의 산업화와 신중간층의 가족이념”, 한국사회사연구회 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서울: 문학과 지성사).

김자혜·김미숙(1990), “화이트 칼라 가족 연구”,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론』, 까치.

김정희(1993), “자본주의에서의 성 모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가족을 중심으로”,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엮음.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김형기(1985), “노동자계급의 성장·내부구성·주체형성”, 『한국자본주의와 노동문제』(돌베개).

김혜경(1999), “가사노동담론과 한국근대가족: 1920,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5권 1호.

러덕 S.(1991), “어머니의 사고방식”, 배리쏜온·매릴린 알롬 엮음, 권오주의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한울).

- 문옥표(1997), “도시 중산층의 가족생활과 주부의 역할”,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집문당.
- 바렛 미셸·매리 매킨토시(1982),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김혜경 옮김, 여성사, 1994.
- 박기남·강이수(1994), “여성과 노동”, 『여성학 강의』 9장, 동녘.
- 박민자(1991),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박숙자(1991), “계급연구의 분석단위”,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_____(1992), “첫자녀 출생과 부부관계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박혜경(1999),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동녘.
- 변화순(1992), “부부간의 갈등과 해소”,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새쑤, A.(1989),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 복지 국가의 모순”, 『여성과 국가』, 한국 여성개발원 역.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회(편)(1991),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신병현(1999), “작업장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와 노동자의 사회적 정체성-H중공업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한 사례연구”, 『현장과 이론: 콜로키움 발표논문집 I』,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2000), 『작업장문화와 노동조합』,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_____(2001), 『노동자문화론』, 도서출판 현장에서 미래를.
- 신혜경(1996), “공간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 12권 2호.
-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대입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회 편, 『한국여성학』 제12권 제2호.
- 아드리엔느 리치. 1995.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모성의 신화에 대한 반성』, 김인성 옮김. 서울: 평민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1990), 『한국가족론』, 까치.
- 유희정(1988), “사회불평등구조에 관한 중간계급의 의식 연구”, 『한국사회학』 제22집 (여름호), 한국사회학회.

-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회 편, 『한국여성학』 제12권 제2호.
- 이광자(1991), “결혼 초 부부관계의 적응”,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 이동원·한인희(1993), “도시 중산층 가족: 가족과 계층의 연결고리를 중심으로”,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이미경(1999), 『신자유주의적 ‘반격’ 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의 위기’』, 공감.
- 이상철(1992), 『한국의 지역노동운동 연구: 포항, 울산, 마산·창원 지역의 비교』, 한울.
- 이숙진(2001), “성별분업과 비정규 여성노동: 유통업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성평등연구 제5집.
- 이숙현(1988), “한국 근로자계층 부부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제22집(겨울호), 한국사회학회.
- 이시재·조돈문(1995), “울산시민들의 공해 및 환경의식-기업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성심여대 사회과학연구』.
- 이연정(1995),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한국여성연구회 편, 『여성과 사회』 제6호(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재경(1993), “사회계층과 가족”, 한국가족학회 편,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_____(1994), “현대가족의 반(反)사회성”, 『철학과 현실』, 가을호. 철학문화연구소.
- 이화여대 경영연구소(2001), 『가족친화적 환경과 기업 정책』, 경영연구 제1집.
- 이효재·지은희(1988), “한국노동자계층 가족의 생활 실태: 노동력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2집(겨울호).
- 자레스키, E.(1976), 『자본주의와 가족제도』, 김정희(역)(1983), 한마당.
- 정영애(1996), “시간제 노동과 성별분업: 시간제 노동논의에 관한 여성학적 비판”, 『한국여성학』 제12권 1호.
- 정주연(2002), “가대위를 통해 본 ‘가족주의’적 운동전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월간 『사회진보연대』 4월호.
- 조순경(1998), “경제 위기와 여성 고용 정치”, 『한국 여성학』 제14권 2호.
- 조은(1985), “가사와 경제활동에 대한 태도와 실태”, 『중산층 여성과 문화지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____(1986), “기업과 가족 II”,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 ____(1989),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 가족, 국가의 관계”, 『가족: 가족의 변화와 전망』, 우석.
- ____(1991), “계급이론과 사적 영역”,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조정문(1995), “결혼생활의 공평성 인지와 결혼만족”, 『한국사회학』, 제29집(가을호).
- 조주현(1993), “낭만적인 사랑과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엮음.
- 조형(1992),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의 성격”,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 연구소,
- ____(1993), “자본주의와 가부장제 가족”, 『현대가족과 사회』, (서울: 교육과학사).
- ____(1997)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권력: 구조적 무권력화와 구성적 권력화, 『한국여성학』, 제13권2호.
- 조형제(1991), “노동자계급: 1980년대 한국완성차업체 노동자의 사례”,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다산출판사.
- 조혜정(1986), “가족윤리 II”,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현대사회와 가족』, 아산사회복지재단.
- ____(1997), “한국의 가부장제에 관한 해석적 분석-생활 세계를 중심으로”, 『성, 가족, 그리고 문화-인류학적 접근』,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집문당.
- 하이디 하트만(1985),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별분업”, 『제3세계 여성노동』,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한스 페터 마르틴, 하랄트 슈만(1996), 강수돌 역(19997), 『세계화의 덫』, 서울: 영림카디널.
- H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20년사: 1967~1987』.
- 현실문화연구 엮음(1993),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현실문화연구.

3. 국내 논문

- 김미하(1990), “노동자 가족 내 성별분업에 관한 사례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김수영(2000),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발전과 가족”, 고대 박사논문(미간행).

김아람(2000), “프랑스의 고용 및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김애령(1987), “노동자가족의 생계유지와 여성노동에 관한 연구-성남 상대원동 기혼여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대 석사 논문(미간행).

김지혜(1995), “모성이데올로기의 수용과 거부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김혜련(1993), “여성의 이혼경험을 통해 본 가부장적 결혼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김효숙(1988), “도시 부부의 역할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노영주(1998), “초기 모성경험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서울대 박사논문(미간행).

명진숙(1994), “노동자 가족운동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박선우(2000), “노동과정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문제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 논문(미간행).

박언주(1996),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박영옥(198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건국대 석사논문(미간행).

박혜경(1993),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변혜정(1992), “임신에서 초기양육까지의 어머니일 수행 경험으로 인한 ‘어머니’로의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백종주(2002), “저학력 비문해 여성의 경험세계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서영주(1999),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 과제”, 숭실대 석사논문(미간행).

신경아(1997), “한국여성의 모성 갈등과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미간행).

신소영(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유한희(1993), “울산과 진주의 도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 서울대 석사논문(미간행).

윤양현(1987), “현대 한국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이건정(1990), “생산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노동통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이경아(2000), “모성의 사회적 확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인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 석사논문(미간행).
- 이신영(1984),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이혜경(1986), “부부권력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정이환(1986), “저임금구조에 대한 노동자들의 경제적 적응양식”, 서울대 석사논문(미간행).
- 조정아(1993), “대졸 사무직 여성의 노동과 좌절”,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차우미(1997), “기혼여성의 일상을 통해 본 가부장제의 변형과 지속-대구지역 30대 중산층 사례연구-”, 계명대 석사논문(미간행).
- 최윤희(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성격형성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미간행).
- 팽경인(1988), “노동자가족의 노동력재생산방식에 대한 사례연구-제조업 생산직노동자가족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미간행).
- 허성우(1995), “1980년대 후반 여성노동자 조직활동가의 여성해방의식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홍승아(1987), “여성노동의 사회적 존재형태 및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 홍은정(1995), “부부의 성역할 분리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논문(미간행).

4. 외국 문헌

- Boulton M. G.(1983), 『On being a Mother』 London and New York : Tavistock Publications.
- Chaya S. Piotrkowski(1979), “Work and the Family”, 『Work and the Family System』, the Free Press.
- Collins, P. A.(1994), “Shifting the Center: Race, Class, and Feminist Theorizing about motherhood”, in E. V. Glenn, G. Chang, & L. R. Forcey eds.,

- 『Mothering: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 Gavron, H.(1966), 『The Captive Wife: Conflicts of Housebound Mothers』, Harmondsworth: Penguin.
- Glenn, E.V., Chang, G., & Forcey, L.R.(1994), 『Mothering-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 Hareven, Tamara K.(1997), “Continuity and Change in America Family Life”, A. Skolnick and J. Skolnick(eds.), Family in Transition, Longman.
- J. 샬스비(1985),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 Komarovsky, M.(1962), 『Blue Collar Marriage』 New York: Random House.
- Lee, Jae Kyung(1999), “The Glorification of Scientific Motherhood as Ideological Construct in Modern Korea”, AJWS, vol. 5, no.4,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Lee, Jae Kyujng and Park Hye-Gyong(2001), “Marital Conflicts and Women’s Identities in the Contemporary Korean Family”, AJWS, vol. 7, No.4,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Evelyn Nakano Glenn(1994), “Social Constructions of Mothering: A Thematic Overview”, in E.V. Glenn, G. Chang & L. R. Forcey eds., 『Mothering : Ideology, Experience, and Agency』 (New York: Routledge).
- Hay, S.(1997), “The Ideology of Intensive Mothering: A Cultural Analysis of the bestselling “Gurus” of Appropriate Childrearing”, E. Long(ed.), From Sociology to Cultural Studies: New Perspective, Blackwell Publishers,
- Kim, Seung-Kyung(1997), “The Myth of Social Mobility: Its Creation and Reproduction among Women Workers”, 『Class Struggle or Family Strug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llian B. Rubin(1976), “Worlds of Pain: Life in the Working-Class Family”, Basic Books, ch. 4, 5.
- Newsons, J. and Newson, E.(1965), 『Patterns of Infant Care in an Urban Community』, Harmondsworth: Penguin.
- Oakley(1974), 『The Sociology of Housework』, Oxford: Martin Robertson.

- Rainwater, L. Coleman, R., and Handel, G.(1959), 『Workingman's Wife』 New York: Oceana.
- Stacey, Judith(1996), "In the Name of the Family: Rethinking Family Values in the Post modern Age", Beacon Press, ch.2.
- Stack C.(1975), Sex Roles and Survival Strategies in an Urban Black Community", in M. Z. Rosaldo and L. Lamphere(eds.), 『Woman, Culture and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ack, Carol B & Burton, Linda M(1994), 『Kinscripts: Reflections on Family, Generation and Culture』.
- Susan N. G. Geiger(1986), "Women's Life Histories: Method and Content", 『Signs: Journal of Women in Culture and Society』, Vol. 11, no.2.
- Wearing B.(1984), "Working class, middle class and feminist mothers(6)", 『The Ideology of Motherhood : A Study of Sydney Suburban Mothers』, George Allen & Unwin.
- Williams, Joan(2000), 『Unbending Gender: Why Family and Work Conflict and What to do About It』, Oxford University Press, ch 1, 2, 3.
- Willis, Paul(1981), Learning to Labo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Columbia University Press., 『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찬호 · 김영훈 옮김(1989), 서울: 민맥.
- James P. Spradley(1988), 『文化研究를 위한 參與觀察方法』 (이희봉 역),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5. 연구 보고서

- H사 노조 정책기획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자동차업종연구팀(2001), 『H자동차 모듈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1996), 『기아자동차 신 경영전략과 노동조합 활동진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보고서』.
- 민주노총(2002), 『노동조건 개악없는 노동시간 단축 투쟁 교안』.
- 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1), 『현대자동차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

서』, 울산리서치연구소.

H자동차 주식회사(2001), 『직원 부인 교육과정 평가보고』

6. 각종 자료집

김소영(2000),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와 정책과제”,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 자료집』.

대구 여성의 전화(1998),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갈등 및 위기실태와 대처방안”, 심포지움 자료집.

박승흡(2000),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노동운동의 과제”, 『전태일열사 30주기 추모사업회 자료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자동차업종연구팀(2001), 『자동차업종 참고자료집(1)』

한국여성개발원(1999),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과 여성고용정책의 모색』, 1999년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세미나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2002), “16개 광역 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민주노총(1998),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 대응 마련을 위한 간부 및 현장활동가 토론회 자료집』

_____ (2002a), 『민주노총 사회임금 인상요구안』.

_____ (2002b), 『2002년 임단협 투쟁방침』

H사 자동차 노동조합(2001a), 『단체협약』.

_____ (2001b), 『제 63차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_____ (2002), 『제 67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H사 자동차 주식회사·H사 자동차 노조(2001), 「사원수첩」.

H사 자동차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이십 년 사(1967~1987)』.

H자동차 주식회사, 『행복한 가정 만들기 I - 교류분석을 중심으로』, 어머니 문화교실 자료집.

7. 기타자료

서울여성노조 성명서, “주 5일 근무를 빙자한 노동법 개악 반대”, 2002년 4월 13일.

울산 여성의 전화(2002), “울산시 여성정책의 현황”.

H자동차 노조 교육선전실, 임투속보 2002년 5월 10일(금)자 02-15-2호

H자동차 문화센터(2002),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H자동차 문화센터”, 제 2기 봄 정기강좌 안내집.

H자동차 노조소식지, 2000년 6월 7일자.

8. 신문과 잡지기사

고동우(2001), “울산은 노동운동을 배반하는가”, 월간 『말』 지 12월호.

내일신문, “임시·일용직 임금, 상용직 절반 수준”, 2002년 5월 13일자.

울산노동자신문, “현자 2001년 통합임단협 잠정합의 부결-찬성 46% 그쳐”, 2001년 12월 24일 제 40호.

울산인권운동연대, 주간 “울산인권소식” 제 34호, 2000년 7월 14일자.

정몽구(2002), “세계 일류기업 향한 결연한 의지 다져야”, 『모터스 라인』 4월호, H자동차 주식회사.

조선일보, “현대차의 위기 不感症(기자수첩)”, 2002년 6월 8일자.

조선일보, “울산 대기 중 중금속 오염 심각”, 2001년 10월 24일자.

H사 자동차 주식회사 울산공장, “現自 열린신문”, 2002년 4월 19일자.

한겨레21, “비정규직, 당신은 서글픈 식민지!”, 한겨레 신문사, 2002년 5월 16일자(제408호).

9. 인터넷 사이트와 자료

www.women119.or.kr (서울여성노조).

www.nodong.or.kr (민주노총).

www.suseong.daegu.kr/homepage/lpgm10/main04_1.htm (보건사업/모자보건사업).

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www.hmwu.or.kr (H자동차 노동조합).

www.women21.or.kr/news/default.asp (한국여성단체연합).

www.metro.ulsan.kr/html2001/woman/index5.html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내 여성정보).

www.fnnews.com/html/fnview/2002/0507/091873736617111100.html “이슈진단: 한국 경제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파이낸셜 뉴스 5월 7일자).

ksdn.or.kr/news/9803/0326.htm (“울산 공단지역, 중금속오염 심각”).

ABSTRACT

Domesticity in the 'Working Class' Family: Workers' Family Lives of the H Motors Company in Ulsan

Cho, Joo-Eun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Ewha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domesticity' has been formed and enhanced in the lives of families of workers, who while working for large companies were once the major force of the labor movement in terms of companies' business gender strategy, socio-cultural cond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Since the 1960s, Korea's rapid industrialization has produced a massive industrial workforce. It was the production workers who led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workers. Although they were directly involved in the production line and great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Korea, they were poorly paid, often under the minimum wage; they have been symbolized by poverty and dual-income living. Since the late 1980s, the active labor movement of major companies has been growing and achieved a wage increase. Heterogeneity and polarization in workers have deepened as the Korean economy changes into a neo-liberalism. Therefore, the categorization of workers' families as a single entity is not applicable any more.

The workers's families of the H company in Ulsan, the target of this study,

are not symbolized as the poor, due to the fact that they get not only wages but also other compensation through the welfare program of the company. The H company operates a 'hourly wage' system for the production line workers. Given this system, to maintain higher salaries, the male workers have to work overtime at work. Furthermore, they have to volunteer to do many other related jobs offered only in an economic boom, because of the peculiarity of automobile industry's sensitive economy as well as the uncertainty of the future. The H company also operates a gendered strategy. Strategically, the company operates 2 shifts on a weekly basis for male workers, which exempts them from doing housework; meanwhile, the company emphasizes 'housewifery' and a 'motherly role' for women in its corporate culture. Another factor to strengthen 'domesticity' results from the wives' family background of family and occupation before marriage because the wives of the H company workers, an active agent in 'domesticity', tend to regard 'marriage' as an exit from reality and wish to be housewives, the symbol of middle class.

Their marriage life usually begins with the arranged match and a move to Ulsan. At their early marriage, they experience triple distress, which entails 'adjustment to their husband', 'the unfamiliar place' and 'the 2 shift system', exposing them to loneliness and uneasiness. Lots of conflicts between husbands and wives stem from the lack and/or difficulty of communication. Being just a housewife is usually the result of negotiations with husbands who object to the spouse's economic activities. Women are likely to find the marriage life more rewarding than their job, which seems painstaking. In this course, women have pity for their husbands who are under hard working conditions; this feeling strengthens through the orientation and other programmes offered by the company. This sympathy makes women be more passive in solving their dissatisfactions with their husbands; moreover, they throw their full support behind their husbands who are suffering from increased labor, especially after the economic crisis. The problems that wives had at an early marriage become diluted; their marriage life combined with their identity as mother after delivery becomes somehow stabilized. Thus, the wife-husband relation, based on the support of their husbands, and

mother-children relation, based on strong motherhood, results in women's dependence on the family needs, which finally forms 'domesticity'.

This enhancement of domesticity partly comes from the husbands' identities as a worker and their specific labor environment. Women regard themselves as belonging to the middle class due to their polarized class consciousness. However, the consciousness of male workers of the H company is quite complicated, since they are proud of working for a major company, while, at the same time, they are ashamed of being manual workers. Therefore, their expectations toward their children are very concrete and enthusiastic. Women put more than half of the salaries into the savings and insurance on account of the uncertain future; at the same time, however, they invest much in their children, regardless of expense. Because of the husbands' intense interest in the education and discipline of the children, women are likely to think that their husbands have authority in education and refrain themselves from expressing their emotions and attitudes when they take care of their children. The mother roles center on the daily lives of their spouse in a relation to their 2 shifts. Women culture prevailed at their residences takes on sort of a buffering role, which unravels troubles they face as workers' wives and a mother in this unique environment. For that reason, women limit themselves to the scope of home-centered activities and manage their family members' schedules. In this sense, the division of gender roles is deepened and women hardly develop their interests in other activities other than family matters, which enhances the 'domesticity'.

In summar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be the need for a family study from all strata of society by means of investigating the experiences of the H company workers' wives in Ulsan; additionally, in this study, the domesticity is seen in the scope of a gender-oriented culture and workplace, and patricentricism which lies in the divided gender roles.

논문 후기

저의 거칠기 짝이 없는 문제의식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화두를 계속 던져 고민하게 해주시며 세심하게 챙겨주신 이재경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으면서 체계 많은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논문을 못 쓸 것 같아 선생님 연구실 주변을 맴돌다가도 선생님의 따뜻한 신뢰에 힘입어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심사하시며 제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훌륭한 논평을 해주신 조순경 선생님과 조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논문은 2000년도 가을학기에 공동연구로 진행했던 학기말 연구과제를 심화시킨 것입니다. 당시 함께 연구했고 그 성과물을 본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해준 김신현경님과 이연경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석사과정 동안 시집에 머물면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 일방적으로 많은 짐을 지워 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각종 골병이 들대로 들어버린 시어머니, 정현이와 정은이의 아침식사를 챙기고 정현이 숙제담당역할을 해주시는 시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아마 여성학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물심양면으로 늘 지원해주신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부인 덕에 5년 동안 떨어져 지내며 명절부부로 지내오다 폐인이 다 됐다고 투덜대는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H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남편과 전화와 메일로 수시로 교환하면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앞으로 자주 와서 몸보신 시켜주며 지지를 보내준 정희언니, 승숙언니, 로마나 언니, 윤숙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논문 초안을 꼼꼼하게 읽고 코멘트 해준 정미숙 덕분에 5월 말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정미숙님의 날카롭고 따끔한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 이 논문이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추운 겨울에 혁수를 입고 함께 다니며 많은 여성들을 소개시켜준 엄미옥과 친구 순덕, 장순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울산의 집단거주지 지도를 멋지게 그려준 황혜정, 지도를 스캔받아 준 이정화, 본 논문에 대해 세심한 논평을 해준 국미애, 나성은, 백박종주, 정종권님, 편집에 많은 도움을 준 국미애, 조혜련님께 따뜻한 동료애를 보냅니다. 함께 논문을 쓰며 고민을 나눴던 새롭, 수진, 은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 논문에 대한 관심을 늘 보여준 유연정, 박경과 논문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 가족 세미나팀원들, 그리고 서울여성노조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에서 활동하며 제 궁금함에 답해 주시고 부탁한 자료를 등기속달로 보내주셨던 사랑하는 선배와 노조관련 각종 자료를 보내주신 채석영님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자료 때문에 들렸던 한노정연에서 맛있는 저녁까지 얻어먹고 자료를 제공받아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민하다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를 ‘연구참여자’로 바꾸지 못하였습니다. 질적연구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한 여성들에게 말로 표현 못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국미애(제 논문을 외울 정도로 읽으며 편집해준 미애...), 오수연님께서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읽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